

빛을 쫓는 여정
광명

**OR OUTDOOR
RESEARCH**



OR M'S VIGOR GRID FLEECE PULLOVER HOODIE
오알 비고르 그리드 플리스 풀오버 후디





이달의 여행

040

빛을 쫓는 여정, 광명

경기도 광명이 보존해 온 자원의 가치를 살피고,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지역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들의 생애를 훑었다.
지켜야 할 것과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하는 시간이었다.



표지 이야기 광명동굴

1912년부터 1972년까지 광산이었다가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인 광명동굴이 이제는 경기도 광명의 대표 관광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찬란한 빛의 향연이 사람들의 걸음을 이끌고,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황금길 곳곳에는 방문객들의 소원이 적힌 황금 패가 걸려 있다. 동굴에 뚫린 구멍으로 보이는 황금나무에도 누군가의 진심이 주렁주렁 매달렸다. 빛 한 점 들지 않는 동굴에서 온종일 노동력을 착취당한 광부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AHILO

홈페이지 www.ahilo.co.kr | 대표 전화 02 2256 7901 | 개설킨문의 02 2254 4903
아일로의 2025 FW collection을 전국 아일로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만나보세요

- 020 촬영지 여행
교도소에서 시작된 성실한 범죄
드라마 <파인: 촌뜨기들> 촬영지 장흥교도소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 022 여행자의 방
고품격 한옥 호텔, 명지각 1956
전북 남원의 이 호텔에선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기분이 든다.
- 024 여행자의 공간
무대를 닮은 서점, 인스크립트
서울 대학로에 연극 무대를 빼닮은 희곡 전문 서점이 들어섰다.
- 028 한국의 멋
완초의 무궁한 변신
초록빛 왕골에 다양한 변주를 시도한 허성자 작가의 완초 함을 소개한다.
- 030 한국의 맛
붉은 꽃의 신비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에 숨겨진 비밀을 전한다.
- 032 전국 행사 달력
9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가을을 맞아 여가 시간을 보내기 좋은 각종 행사를 모았다.
- 064 여행의 발견
기운생동, 금산에 살어리랏다
충남 금산에서 금수강산이란 관념적 이상을 맞닥뜨린다.
- 098 인터뷰
철학자가 된 시인 나태주
능소화가 활짝 핀 풀꽃문학관 신관에서 나태주 시인과 마주했다.



BOOK
in
BOOK 1

made in WONJU 원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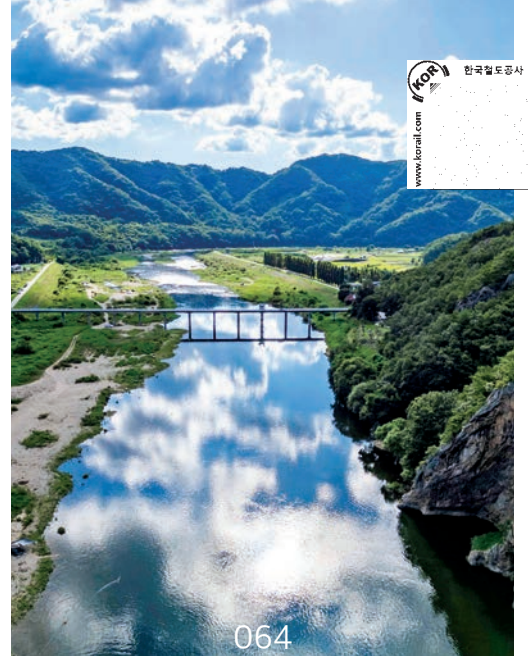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에서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과 사람을 만났다.



BOOK
in
BOOK 2

볼거리, 먹거리, 축제로 가득한 목포 여행 가이드

올가을 전남 목포로 떠나는 여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담았다.



언제나 누구나 서울우유

우유가
불편하던
너도

우유를
좋아하던
나도



QR코드를 스캔하여
A2+ 우유를 자세히 알아보세요!

제조원/판매원 : 서울우유협동조합

10월 10일

서울우유 모델 박은빈

- 106 전시 보러 갑니다

아메리칸 뷰티

미국 LA에서 온 천재 예술가, 마크 브래드포드의 개인전에 다녀왔다.
- 114 기차 안 세계 여행

우리가 몰랐던 스리랑카

서핑 비치와 야생 국립공원. 스리랑카에서 의외의 재미를 찾았다.
- 120 지역 생산자들

한잔 술이 문화가 될 때, 꿀꺽하우스

부산에서 새로운 가양주 문화를 만드는 세 명의 이야기를 들었다.
- 146 문화 산책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적 걸작,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를 살폈다.
- 156 KTX타기 1시간 전

대구 레트로 여행

열차타기 1시간 전, 대구역에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여섯 곳을 찾았다.
- 162 트렌드 읽기

MZ세대 사로잡은 K-무속

한국 무속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K-무속으로 급부상했다.
- 176 플레이리스트

세이수미와 떠나는 음악 여행

부산 출신 록 밴드 세이수미가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음악을 추천했다.
- 168 코레일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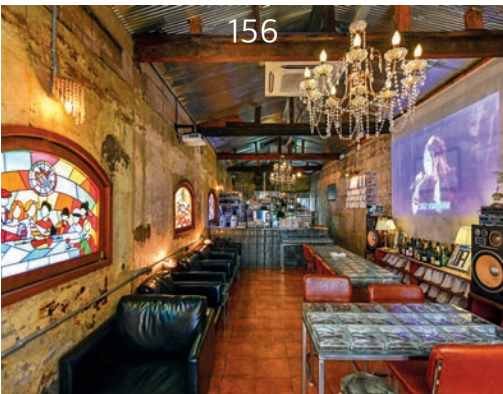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72 열차 이용 안내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 읽어 주는 프로그램, 보이스아이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후 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드립니다.



monami®



Plus Pen 3000
P R I M E
유 성 불 펜 으 로 거 듦 나 다

프러스펜 3000 프라임은 모나미의 프러스펜 3000 수정 디자인을 재해석한 프리미엄 유성볼펜입니다

(주)모나미 고객센터 080-022-0153 | 홈페이지 www.monami.com

2025년 9월호

KTX MAGAZINE

제22권 제9호 통권 제255호
2025년 9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기자 신송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이제희 이미혜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내부 방침상 정기 구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여름을
통과하는
일상
여행법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기습적인 폭우까지.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는 기후학자들의 '예언'을 현실로 체감하는 순간, 입추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된 9월호 마감. 시간을 도둑맞은 기분이 들어 문득 1년 전 오늘이 궁금했습니다. 프리랜서 에디터로 두 달에 한 번 잡지를 만들던 지난해 여름, 저는 도서관에 있었네요. 에어컨 바람이 적당한 서울 남산도서관 5층, 창밖으로 관악산과 청계산 풍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고, 오른쪽으로는 63빌딩이 보이는 열람실에서 꽤나 진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해 3월에 시작한 고전 읽기 북 클럽 덕분이었는데요,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좋은 공간을 찾아 해마다 남산도서관에 정착한 저는 의외로 흥미로운 도서관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과제로 주어진 책을 읽다 지루해지면 다른 책을 찾아 서고에 내려가고, 낯선 이름의 작가가 눈에 띄면 그의 책을 찾아 또 서고를 헤매면서 느릿느릿 책과 놀았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세계에 몰입하는 걸 보면 도대체 어떤 책을 읽고, 무슨 공부를 하는지 묻고 싶기도 했습니다. 해치가 그려진 순환버스만 통행이 허용된 남산 길을 다국적 여행객들과 함께 달리는 10여분의 여정. 도서관은 오가는 길마저 특별했습니다. 커다란 차창 너머로 제주 중산간의 숲 터널 같은 풍경이 지나고, 한낮의 햇살을 온몸으로 뚫고 달리는 러너와 바이커들이 배경 화면처럼 흘러갔습니다. 더위도 잊은 채 배낭에 텀블러와 손수건, 자두 몇 알을 챙겨 도서관으로 향하던 지난여름, 저는 매일 여행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달 <KTX매거진> 기자들은 경기도 광명과 충남 금산, 강원도 원주, 전남 목포, 부산과 대구 등으로 종횡무진 취재를 다녔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같은 도덕산을 품은 광명에선 안양천 독방 길을 걸으며 기형도의 시 '안개'를 떠올렸고, 한반도 인삼 문화의 중심지인 금산을 찾아 좋은 인삼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최근 빙하미술관이 생겨 찾는 이가 많아진 원주에선 박경리 선생의 생전 집필실을 둘러봤고, 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목포를 누비며 먹갈치조림과 민어회를 맛보았습니다. 부산의 골짜기하우스에선 새로운 가양주 문화를 만드는 세 사람을 만났고, 대구에선 일제강점기 적산가옥에 들어선 칵테일 바와 빈티지아트 포스터숍을 둘러봤습니다.

충남 공주도 빼놓을 수 없네요. 풀꽃문화관 신관이 문을 연다는 소식에 공주로 달려간 기자는 능소화가 흐드러지게 핀 마당에서 나태주 시인을 만났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을 한 채 여든을 맞은 시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시를 모아 자신의 꿀단지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시인'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서울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는 화제의 전시 <마크 브래드포드: Keep Walking>도 기억해 주세요. 6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 바닥을 천과 종이, 노끈으로 뒤덮은 작품 '떠오르다(Float)'는 주저 없이 밟고 지나야 한다니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도 매일 조금씩 높아지는 하늘을 봅니다. 가볍고 무해한 일상의 재미, 여행 같은 하루가 필요한 9월입니다.

편집장 최현주

LX Z:IN 바닥재

바닥재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 에디톤 마루



LX하우시스 프리미엄 인테리어 전시장
지인스퀘어

자재 라이브러리
LX Z:IN 자재를 자유롭게 체험

원스톱 서비스
자재 선택부터 시공, A/S까지

맞춤형 인테리어 솔루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1:1 전문 상담

가까운 지인스퀘어에서 LX Z:IN 바닥재 ‘에디톤 마루’를 만나 보세요.

강남/고양/동탄/부천/분당/수원/영등포/위례/의정부/청량리/
대전/청주/광주/전주/대구/부산서면/부산해운대/울산/포항/제주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pine_run



7월의 끝자락에 <KTX매거진> 8월호를 만났다. 출장으로 서울을 가는 동안, 마음만은 잡지가 데려가주는 지역에서 여행했다. 울산과 안동에 이어 베트남으로 떠난 마법 같은 시간이었다. #KTX매거진 #울산담구 #여름 #기차여행

@songsam_raphaela



올해는 여름휴가를 따로 계획하지 않았다. 서울로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는 게 휴가였기 때문이다. 따로 책을 챙기지 않았는데 기차에 비치된 <KTX매거진> 덕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 #여름휴가 #인터뷰 #뮤지컬 #KTX매거진

@ktxmag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성일 대구 동구 팔공로
대구에서 부산까지 매주 두 번 안전하게 데려다주는 고맙고 든든한 친구 KTX에서 흥미로운 표지를 발견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뾰족한 나무가 만든 그늘, 철새의 귀소. 이 모든 것이 공존하는 울산담구의 삼호대숲에 강하게 이끌렸다.

송년순 전북 정읍시 덕천면 용곡2길
가족과 함께 떠날 여행지를 찾던 중 '여행의 발견' 기사에서 안동이 유유히 휘돌아 들었다. 어린이들에게 전통문화와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을 하는 나로선, 뿌리 깊은 선비의 고장 안동을 둘러보는 것이야말로 어떤 여행보다 뜻깊을 테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9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9월 11일까지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시리렁 시리렁

제비노정기

ACC 개관 10주년 기념 판소리 시리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크자1

401

23-24 OCT

19:30

25 OCT

14:00

SIRIRUNG SIRIRUNG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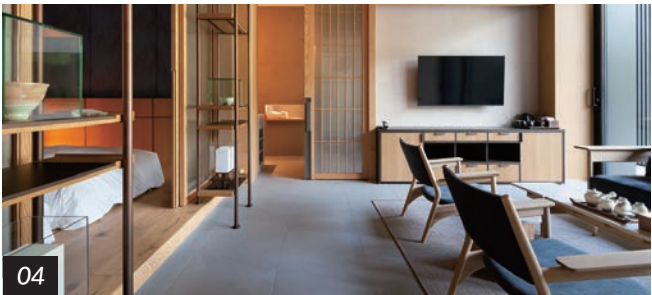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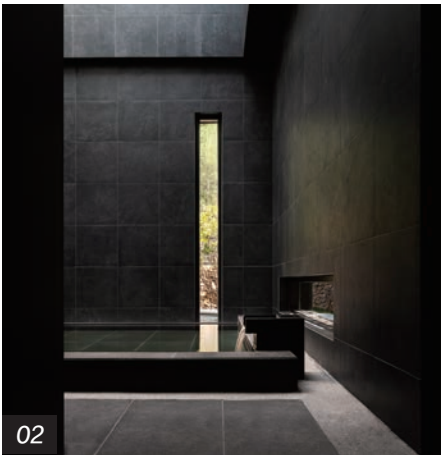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 한옥 호텔 '명지각 1956'



철도의 날 131주년 기념 <KTX매거진>이 131명에게 쏜다!

9월에도 철도의 날 131주년 <KTX매거진> 독자 이벤트가 계속됩니다.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추첨을 통해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과 한옥 호텔 '명지각 1956' 2박 숙박권을 드립니다.



참여 방법

- ① <KTX매거진> 인스타그램(@ktxmagine) 접속
- ② 프로필 링크 중 이벤트 링크 클릭
- ③ 설문 조사 참여하기

선물

- ① 당첨자 131명에게 **KTX 열차 30퍼센트 할인권** 제공
- ② 당첨자 131명 중 1명에게 **한옥 호텔 '명지각 1956' 본관 객실 2박 숙박권** 제공

참여 기간

2025년 9월 1일~20일(20일간)

당첨자 발표

2025년 9월 29일 <KTX매거진> 인스타그램



지금 바로
행운의 주인공에
도전하세요.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대한민국 20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NOBLIAN BLACK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위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임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위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임회금'
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쑤비치남해가 2025년 7월 5일 그랜드
오픈했으며, 9월 말 '경주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쑤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남해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론 해운대 | 소노벨 양평 | 천안 | 단양 | 청송 | 변산 | 제주

번뇌가 사라지는 북소리

여러 명의 승려가 차례대로 법고를 두드리는 소리에 점차 빠져든다.
정신을 깨우는 강한 울림이 술한 고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QR코드를 찍으면 전남 순천 송광사에 올려 퍼지는
북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시작된 성실한 범죄

바다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국에서 도굴꾼이 몰려든다. 이 판이 갱생의 공간, 교도소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재밌다.

드라마 <파인: 촛뜨기들>에는 보물을 찾기 위해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 중 돈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대장 관석은 조카 희동과 함께 자잘한 도둑질로 생계를 이어가다 결국 꼬리를 잡힌다. 삼촌과 조카가 나란히 교도소에 입성하지만, 이들의 관심은 교화와 갱생이 아니라 더 확실한 부를 거머쥔 수 있는 큰물. 그러다 감옥에서 만난 고미술품 밀거래 업자 송 사장의 제의로 출소 후 보물을 캐러 바다로 갔으니 원하는 대로 된 셈이다. 하지만 모두가 목표대로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욕망에 눈이 먼 인물들이 우글우글한데, 하필 그들의 작업장은 누구도 서로를 믿기 힘든 망망대해이니 말이다. 관석과 희동에게 직업소개소가 되어 준 격인 드라마 속 교도소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옛 장흥교도소다. 1975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한 교도소로, <슬기로운 감빵생활> <비밀의 숲> <프리즌> <1987> <더 글로리> 등 술한 드라마와 영화에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곳이 지난 7월 25일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빠빠웅Zip'으로 재탄생했다. 자유를 갈망하는 영화 캐릭터 '빠빠웅'과 다양한 가능성을 압축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의 'zip'을 결합한 이름이다. 모두에게 열린 곳이 되었으니 이젠 누구나 사색과 해방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1977년 돈 냄새를 맡은 촛뜨기들이 신안 앞바다로 몰려든다. 판은 점점 커지고 바다에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가운데, 서로 속고 속이는 처절한 보물 찾기가 시작된다. 윤태호 작가의 동명 웹툰을 드라마 <카지노>의 강윤성 감독이 풀듯하게 연출했다.



2025
'ALL TASTES'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막국수
닭갈비



고품격 한옥 호텔, 명지각 1956

옛사람의 풍류와 남도의 정취를 느끼며
온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한옥 호텔.
전북 남원에는 명지각 1956이 있다.

전북 남원, 광한루원의 기와 담을 따라 걷다 보면 고아한 자태의 건축물을 만난다. 1956년에 지어 '명지장' '명지호텔'로 불렸던 곳. 1980년대 초 문을 닫고 현판만 남은 건물이 한옥 호텔 명지각 1956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곳은 건축미와 역사적 가치, 스토리가 담긴 공간을 큐레이션해 새롭게 선보이는 숙박 플랫폼, 스테이폴리오의 손길로 완성됐다.

70년 만에 옛 명성을 되찾은 한옥 호텔 명지각 1956은 중정을 마주한 여섯 개의 한옥 객실과 함께 조식을 제공하는 사랑채, 명지각 1956에서 큐레이션한 책이 비치된 안사랑채, 그리고 프라이빗 목욕장인 료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온탕, 냉탕, 사우나까지 갖춘 료. 예약제로 운영하며 1회 이용 시간은 60분이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피로를 풀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한다.

이곳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또 하나의 명지각 1956이 있다. 명지각 1956 동관이다. 본관보다 좀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이며 총 다섯 채의 한옥 독채 객실과 한 채의 티 하우스로 구성된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공간은 티 하우스. 체크인 서비스와 웰컴 드링크, 다과를 제공하는 공용 라운지다. 티 하우스를 지나 소나무와 회랑, 누마루를 따라 걸으면 다섯 채의 객실이 나온다. 침실과 스파, 마당을 갖춘 객실은 모두 다른 구조이며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 전 객실 기준 인원은 4명. 넉넉한 공간을 내 집처럼 사용하며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명지각 1956 동관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메이크폴리오에서 큐레이션한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구매도 할 수 있다.

주소 전북 남원시 고생길 57(본관), 정문길 6-7(동관)



엄마, 서울집엔 또 언제 가?

항암치료로 면역력이 약한 아이를 데리고
낯선 모텔이나 환자방을 찾아다니는 것이
언제나 미안하고 불안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잠시 쉴 곳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체국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에서
잘 놀고, 평온히 잠든 아이 얼굴을 보며
얼마나 안심되고 든든한지...

“고맙다”는 마음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우체국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 덕분에
서울 오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우체국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

지방에서 서울로 장거리 이동하며 치료받는 소아암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쉼터로,
숙박, 취사, 세탁 등의 일상 생활 지원과 치료비,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우체국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_사직 010-6686-1544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1길 73-10
- 13객실, 놀이실, 커뮤니티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셔틀버스 운행(신촌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우체국 마음이음 한사랑의 집_해화 010-2943-1543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5길 27
- 8객실, 커뮤니티실, 세탁실





무대를 닮은 서점, 인스크립트

서울 대학로에 이 동네와 잘 어울리는 공간,
인스크립트가 들어섰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희곡 전문 서점이다.



공연장이 모인 마로니에공원과는 다소 떨어진 이화사거리에 오래된 갈색 건물
이 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 강렬한 붉은색 문을 마주하면 목적지에 다다
랐다는 뜻. 안으로 들어서니 빨간 카펫이 깔린 통로가 직선으로 이어지고, 테이블
블과 의자, 커튼도 모두 빨강다. 연극 무대를 연상시키는 이곳의 정체는 바로 희
곡 전문 서점, 인스크립트다.

연극배우 박세인·권주영 부부는 한국에서 희곡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희
곡을 한데 모은 서점을 내기로 했다. 이들이 처음 인스크립트를 연 것은 2023년,
서울 연희동에서였다. 당시 국내 유일의 희곡 전문 서점으로 주목받았고, 2년이
지난 올해 5월 대학로로 확장 이전했다. 서점은 카페와 결합된 형태로 운영해, 통
로 쪽 별이 잘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여유롭게 사색하기 좋다. 통로를 지
나면 원형 테이블 주위를 둘러싼 두 벽면이 책으로 빼곡히 채워져 개인 서재에
들어온 듯하다. 책장에 들어찬 1800여 권의 희곡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분홍색
표지로 유명한 희곡 전문 출판사 '지만지 드라마'의 책. 전권을 갖춘 서점이 전국
에 단 세 곳뿐인데, 그중 한 곳이 인스크립트다. 다른 곳에서 발견 못 한 지만지 드
라마 책을 찾아서 이곳을 들르는 이도 많다고. 희곡 외에 연극·영화 분야 극본집
과 작법서는 물론, 요즘 논의되고 있는 주제의 소설과 논픽션도 비치했다.

공간 한편에는 용도가 궁금해지는 검은 책상이 방문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
달의 작업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공간으로 예술 분야에서 자신만의 작업을 이
어가는 기획자, 작가, 배우 등의 작업 과정을 보여 준다. 책상 위엔 고뇌의 흔적이
느껴지는 초고 작품, 삶에서 영향받은 책, 끄적인 노트와 손때 묻은 필기구 등이
놓여 있다. 책상의 주인공은 매번 달라진다. 인스크립트에선 여러 명이 고전 희곡
을 함께 소리 내어 읽고 토론하는 낭독서 모임도 열린다. 평소 희곡을 좋아하는
사람도, 희곡이 낯선 사람도 누구나 희곡을 즐겁게 향유하는 시간이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25



옷에 대한 이로운 가치와 정성

아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일로가 가을의 색과 감성을 담아
브랜드만의 깊이 있는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1 절제된 미감의 퀴팅 셔츠형 재킷(AOJJ800)

스티치 퀴팅이 돋보이는 베이식한 실루엣의 재킷. 은은한 구조감과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이 특징이다. 여유 있는 핏과 뒤쪽 밑단의 밴딩 디테일은 여성스러운
실루엣을 완성한다. 단품으로, 또는 A라인 퀴팅 스커트(AOJS800)와 셋업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2 가을 무드의 플라워 패턴 프티 스카프(AOIZ820)

가을 분위기를 내는 프티 스카프. 은은한 컬러와 플라워 패턴이 포인트다.
매트한 광택의 폴리 소재를 사용해 가볍고 편안하며, 적당한 폭과 기장감의
프티형으로 다양한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3 은은한 입체감의 A라인 퀴팅 스커트(AOJS800)

절제된 A라인 퀴팅 스커트. 사각 형태의 퀴팅으로 단아한 무드를 연출한다.
허리 전체 밴딩과 스트링 처리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고 착용감이 편안하다.

단품으로, 또는 셔츠형 재킷(AOJJ800)과 셋업 스타일링도 가능하다.

4 소가죽 소재의 데일리 포멀 단화(AOIX950)

단단한 소가죽 결감과 부드러운 양가죽 안감이 안정적인 착용감을 선사하는
단화. 앞코에서 뒤축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브라운 컬러 그라데이션이 가을의
깊이감을 더해 준다. 가죽 특유의 자연스러운 주름은 정갈하면서도 아일로의
감성을 잘 담아낸다.

5 캐시미어 100% 원사를 사용한 스카프넥 니트(AOJK940)

부드러운 착용감과 가벼운 무게, 우수한 보온성의 캐시미어 100% 니트. 최고급
원사를 사용해 내구성이 뛰어나고, 소매와 밑단의 고무단 처리로 안정적인
실루엣이 돋보인다. 네크라인에 덧댄 디테일이 스카프를 착용한 듯 여성스러운
무드를 더한다.

Panasonic



이정후's
Grooming
Gear

STYLE이 있는 남자 **LAMDASH**
PALM IN SH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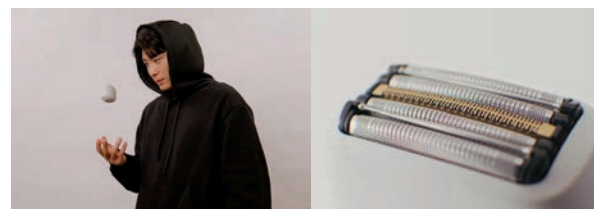
ES-PV6B



ES-PV3B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바람의 손자' 이정후 선수가 그루밍 기어로 파나소닉의 램대쉬 팜인을 선택했다. 램대쉬 팜인의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 뛰어난 휴대성, 강력한 절삭력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이정후 선수의 스타일을 한층 빛나게 한다.



145그램의 가벼움, 5중 날의 목적함

145그램 초경량에 손바닥보다 작은 콤팩트 사이즈. 프리미엄 5중 날과 30도 나노 예지로 빈틈없는 밀착 면도가 가능하다. 분당 회전 수 약 1만 4000회의 초고속 리니어 모터를 탑재해 잔뿌리까지 놓치지 않고 제거한다.



USB-C 충전 및 방수 기능

USB-C 타입으로 전용 충전기 없이 어디서나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해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다. IPX7 등급 방수로 샤워 중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간편한 세척으로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하다.



“파나소닉 램대쉬 팜인 셰이버는 뛰어난 휴대성과 실용성,
프리미엄 성능까지 모두 갖춘 완벽한 휴대용 전기면도기입니다.”

- 메이저리거 이정후 선수



완초의 무궁한 변신

만들새가 단단한 함의 재료는 ‘완초’ ‘왕골’이라 불리는 풀로, 이를 물에 불려 햇볕에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초록빛의 왕골이 은은한 미백색을 띠며 부드러워진다. 허성자 작가는 완초를 검정, 파랑, 주황 등 다양한 색깔로 염색한 뒤 한 올 한 올 엮어 직선과 사선, 격자 패턴을 만든다. 기하학무늬로 세련된 멋을 자아내는 3단완초 함은 작가의 신작. 9월 21일까지 서울 신세계 본점 더헤리티지 5층에서 열리는 <여름이 깃든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줄기세포, 난치병 넘어 일상건강관리로… 전문가가 본 최신 트렌드

항노화, 재활, 미용에 더해 혈당 조절까지, 줄기세포가 난치병 치료를 넘어 일상적인 건강관리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줄기세포 전문가 조찬호 청담셀의원 원장의 도움말로 자세히 알아봤다.

가속화되는 줄기세포 치료의 대중화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화제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 연구 팀이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줄기세포 유래 베타 세포를 이식한 뒤 인슐린 투여 없이 1년간 정상 혈당을 유지한 ‘인슐린 독립’ 사례를 보고한 것이다.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매일 인슐린 주사로 혈당을 관리한다. 하지만 베타 세포로 분화시킨 줄기세포가 스스로 인슐린을 생성하기 시작했으며, 환자들은 2개월 반 만에 매일 맞던 인슐린 주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혈당 조절이 가능해졌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가 특정 질환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의학 분야로 확장될 잠재력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국내 의료 현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된 지방, 골수 유래 성체 줄기세포를 이미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난치성 질환 개선은 물론 항노화와 재활, 미용 등 일상 건강관리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며 ‘줄기세포 치료의 대중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다. 실제 줄기세포는 재생 의학의 꽃으로 여겨진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조직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미(未)분화 세포로, 인체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난치병 개선부터 항노화 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제1형 당뇨병의 혈당 관리 또한 이 같은 맥락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재생 의학의 꽃, 줄기세포

이뿐 아니다. 국내에서는 재생을 넘어 다양한 치료로 줄기세포의 대중화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성체 줄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은 조직의 기능 회복뿐 아니라 외형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어 더욱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젊고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면역력 저하나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경우는 정맥을 통해 전신에 줄기세포를 주입해 전반적인 회복력을 돕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 관절 불안정이나 인대 손상 등 근골격계 불편감이나 퇴행성 문제를 겪는 경우는 인대 부위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조직을 강화하는 치료의 선호도가 높다. 최근에는 장년층뿐 아니라 젊은 층도 피부 개선이나 두피 건강을 위해 진피층이나 두피에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추세다. 성기능 개선을 위한 시술도 줄기세포 치료 영역에 포함되며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성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숙련도에 따라 시술 방식과 부작용 관리 등에 차이가 존재한다. 미래에는 유도만능줄기세포 같은 보다 고차원적 기술이 실질적인 치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붉은 꽃의 신비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를 뜻하지만 사실 안에 꽃이 숨어 있다. 꽃받침 역할을 하는 겹질을 벗겨 내면 드러나는 내부의 붉은 속살은 꽃이고, 안을 뽀뽀하게 메운 작은 씨앗들은 각 꽃송이에 맺힌 열매다. 익을수록 짙은 자줏빛을 띠는 무화과를 한 입 베어 물면, 부드럽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을 촉촉하게 적시고 톡톡 씹히는 씨앗이 재미를 더한다. 지리적 표시제 제43호로 등재된 영암 무화과는 특히 맛이 좋다. 매년 9월 전남 영암에선 무화과 축제가 열린다.

힐링안과, 빛으로 조정하는 차세대 인공 수정체 ‘LAL’ 도입

힐링안과가 국내 단 네 곳만 보유한 LDD 장비로 수술 후 시력까지 정밀 조정하는 백내장 수술을 선보인다.

백내장 수술 후에도 원하는 시력을 맞춘다

58세 이 모 씨는 퇴근 후 아르바이트로 대리운전을 한다. 대학원생 아들의 미국 유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운전대를 잡는 생활이 벌써 3년째다. 어느 비 오는 밤, 신호등 불빛이 번져 보이고 보행자 실루엣이 흐릿하게 흔들렸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는 피했지만 가슴은 한동안 빠르게 뛰었다. 며칠 전부터 휴대폰 문자가 흐릿했고, 회의 자료를 볼 땐 안경을 벗었다 썼다 반복했던 그. 야간 운전을 할 때는 계기판과 도로 표지판이 겹쳐 보였다. 병원 진단은 백내장. 노안과 함께 진행되며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이었다. 수술을 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먼 곳은 또렷하게 보이지만, 컴퓨터 화면과 휴대폰 글씨를 볼 때는 여전히 불편했고 불빛 번짐도 남았다. 이런 현상은 기존 백내장 수술 방식의 한계다. 대부분의 병원은 수술 전 단 한번의 정밀 검사로 눈 길이, 각막 곡률, 난시 여부를 측정하고, 그 수치로 렌즈 도수를 정한다. 그러나 예전에 라식·라섹 수술을 받았거나 난시가 남아 있는 경우, 또는 각막 모양이 약간 울퉁불퉁한 경우에는 계산이 빗나가기 쉽다. 수술 직후에는 괜찮아 보여도,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원거리에서 시력을 맞췄더니 책과 모니터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고, 가까운 글씨는 선명하데 도로 표지판이 번져 보인다. 기존 렌즈는 눈 안에 고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선택지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 아니면 추가 레이저 시술이나 렌즈 교체 수술뿐이다. 하지만 추가 수술은 각막 손상 위험과 회복에 대한 부담이 크다.

이러한 한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LAL(Light Adjustable Lens™)이다. LAL은 미국 의료 기기 기업 알엑스사이트(RxSight)가 개발한 세계 유일의 광 조절 인공 수정체다. 원리는 간단하다. 쉽게 말해, 수술 후에도 시력을 조정할 수 있는 ‘빛에 반응하는 렌



즈다. 수술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용 장비로 특수 빛을 쏘아 렌즈 구조를 바꾸어 초점을 다시 맞춘다. 글자 하나 차이까지 조정 가능해 신문 읽기나 컴퓨터 작업, 야간 운전까지 생활 속 불편을 기준으로 시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정밀 시력 조정의 비밀, 백내장 수술만 2만 3000건

이 씨는 국내 최초로 LAL 렌즈를 도입한 병원 중 하나인 힐링안과를 찾았다. 수술 2주 후 “운전은 괜찮지만 컴퓨터 화면이 흐리다”는 말에 의료진은 중간 거리 시야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며칠 뒤 그는 “하루 종일 업무를 봐도 눈이 편하다”고 했다. 두 번째 조정에서는 야간 운전 시 겪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빛 번짐을 최소화했다. 세 번째 조정이 끝난 날, 그는 “젊을 때 눈으로 돌아간 것 같다”며 웃었다.

정밀한 시력 조정은 병원의 의료 역량이 좌우한다. 백내장 수술만 2만 3000건 이상 집도한 김선영 대표원장을 비롯해, 10년 이상 경력의 검안사가 시력검사부터 수술 후 조정까지 전담한다. 시력검사 오차 0.25디옵터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뛰어난 실력의 검안사가 검사 단계부터 최고 수준의 정밀함을 유지한다. 또한 ‘평생 책임 보증제’를 운영해 시력 조정이 잘 안되었거나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 심지어 렌즈 교체가 필요할 때도 무상 재수술을 진행한다. KBS, JTBC, YTN 등 방송에도 출연해 최신 백내장 수술 법과 노안 관리법을 소개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김선영 원장은 유튜브 채널 ‘안과언니’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구독자와 소통하며 백내장 수술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안 완화 방법, 눈 건강 생활 습관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시한다. 영상을 보다 보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앞으로 마주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답이 이미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FESTIVAL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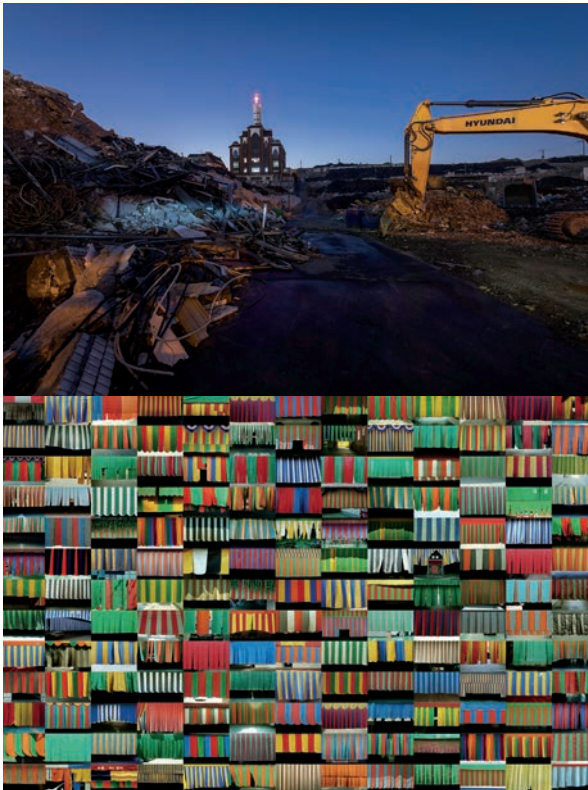
금산 09.19~28

바쁜 일상 속 몸과 마음이 지친 소중한 사람에게 노화 방지,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등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금산 인삼을 선물해 보자. 금산세계인삼축제에서는 인삼 캐기 체험 여행을 비롯해 홍삼 족욕, 홍삼 이혈 체험 등 약초를 키워드로 한 이색적인 프로그램이 열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어린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인삼 요리를 선보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국어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10개 읍·면의 특색 있는 길놀이 행사가 기간 내내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장소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외 문의 041-750-2312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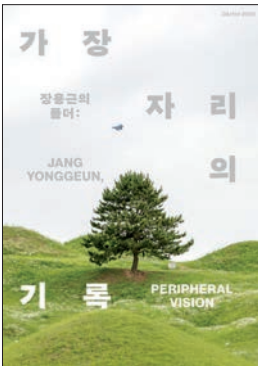


<장용근의 폴더: 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07.15~10.12

다티스트는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독창적인 작업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작가를 뽑아 전시와 아카이브 등을 지원하는 연례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다티스트 시리즈 최초로 사진작가를 선정했는데,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거리에 몰두해 온 장용근이 그 주인공이다. 도시의 욕망과 흔적을 드러내는 '도시채집', 대구의 재개발 현장을 다룬 '부서지고 세워지고', 개인과 공동체의 이동하는 삶을 조명하는 '고려인, 외국인' 등 사회의 주변부를 포착한 사진 연작 여덟 개를 소개한다. 작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미지를 배열, 중첩하는 등 사진이 지닌 가능성을 탐색한다.

장소 대구미술관 문의 053-430-7500



장용근, '폴더 3지구-서대구 KTX 영무예다움 아파트', 2019,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100×150cm

장용근, '가리개', 2004, 아카이브 피그먼트 프린트, 150×225cm

아산 조방원
Cho Bangwon

최종섭
Choi Jongsup

김호득
Kim Hodeuk

황인기
Hwang Inkie

송필용
Song Philyong

박종갑
Park Jonggab

정광희
Jeong Gwanghee

설박
Sul Park

공재 윤두서
Yun Duseo

소치 허련
Heo Ryeon

한스 아르툅
Hans Hartung

이응노
Lee Ungno

로버트 마더웰
Robert Motherwell

피에르 솔라주
Pierre Soulages

자오우키
Zao Wou-Ki

이우환
Lee Ufan

이강소
Lee Kangso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기념

BLACK & BLACK

2025.
9.16. - 12.14.

협력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PERROTIN



Fondation
hartung
bergman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국립현대미술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광주시립미술관
Gwangju Museum of Art

LEE UNGNO MUSEUM



LEEUM



전라남도
JeollaNamdo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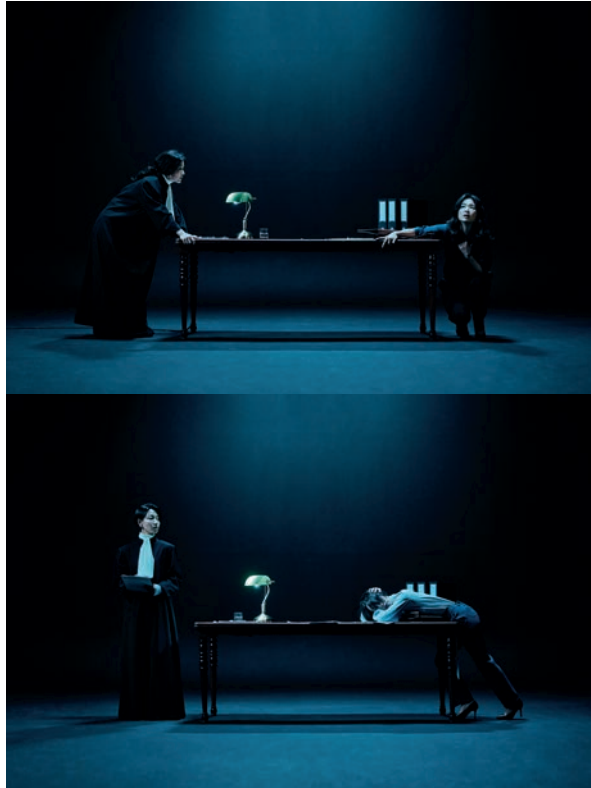
© 이모셔널씨어터

〈르 마스크〉

서울 08.06~11.09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인 조각가 안나 콜먼 래드는 약 1년 동안 부상병의 상처를 가릴 가면을 제작했고, 많은 군인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왔다. 다친 군인들을 위해 설립한 초상 가면 스튜디오를 소재로 한 이 뮤지컬은 소아마비를 앓으면서도 조각가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레오니와 얼굴에 큰 상처를 입은 뒤 삶의 희망을 잃은 프레데릭의 만남을 그린다. 두 인물이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계속 등장하는 가면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상처를 직면한 후 새로운 인생을 덧그린다는 의미가 담겼다.

장소 서울 et theatre1
문의 070-4632-3278



© 프리마 파시

〈프리마 파시〉

서울 08.27~11.02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가 직접 경험한 법의 한계와 모순에서 출발한 연극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해 큰 호응을 얻었다. 토니 어워즈 여우주연상,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즈 최우수 연극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화제의 일인극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상연된다. 법정에서 오직 승소만을 쫓던 변호사 테사는 하루아침에 성폭행 피해자가 되어 782일 동안 법 체제와 맞서 외롭게 싸운다.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입증 책임과 법 체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포착한 작품이다.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테사 역을 맡아 110분 동안 홀로 극을 이끈다.

장소 서울 충무아트센터
문의 02-3485-8700



Seoul Mediacity Biennale
서울미디어시티 비엔날레
Seoul 서울
8.26.-11.23.

Gwangju Design Biennale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Gwangju 광주
8.30.-11.2.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전남국제 수묵비엔날레
Mokpo, Jindo, Haenam
목포, 진도, 해남
8.30.-10.31.

Daegu Photo Biennale
대구사진 비엔날레
Daegu 대구
9.18.-11.16.

Kiaf SEOUL
키아프 서울
Seoul 서울
9.3.-9.7.

ASYAAF
아시아프
Seoul 서울
8.12.-9.7.

Sea Art Festival
바다 미술제
Busan 부산
9.27.-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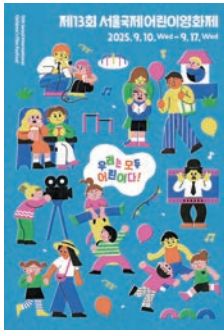
Cheongju Craft Biennale
청주공예 비엔날레
Cheongju 청주
9.4.-11.2.

Frieze Seoul
프리즈 서울
Seoul 서울
9.3.-9.6.

World Seoye Biennale of Jeonbuk-state
세계서예 전북 비엔날레
Jeonju 전주
9.26.-10.26.

문화체육관광부
스예관영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2025 대한민국 미술축제
2025 KOREA ART FESTIVAL
9.1.-9.30.



FESTIVAL

제13회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서울 09.10~17

어린이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영화 놀이터가 문을 연다. 개막작은 사춘기와 신체 변화에 대한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는 열두 살 소년 벤의 이야기를 섬세하고 유쾌하게 그려 낸 <위풍당당 벤>이다. 이 외에도 35개국에서 출품한 개성 있는 작품들이 관객을 맞이한다.
장소 서울 롯데시네마 은평점 외 문의 02-869-6046



FESTIVAL

제29회 무주반딧불축제
무주 09.06~14

환경 지표 동물인 반딧불이를 만나려면 청정 지역 무주로 가야 한다. 올해도 반딧불이 주제관,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신비로운 곤충에 대해 배우고 서식지에서 직접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무주 안성낙화놀이, 무주 부남뱃소배문이 굿놀이 등 전통놀이 재현 행사도 재미를 더한다.
장소 전북 무주 등나무운동장, 지남공원 외 문의 063-324-2440



EXHIBITION

〈지금, 묘(猫)해?:
그림 속으로 들어온 고양이〉
이천 07.16~09.28

월전 장우성과 현대 작가 10명의 시선을 통해 고양이를 다층적으로 바라본다. 장우성, 정종해, 김선두, 박효민의 작품은 형상을 단순화하거나 특유의 여백과 필선을 강조함으로써 고양이의 생동감 넘치고 친숙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영재, 박수연, 박경묵은 산수화나 민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거나 고양이를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 그려 신비로움을 강조했다. 길고양이, 유기 동물 등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는 허진, 김여옥, 이한나, 성왕현의 작품도 중요한 질문거리를 안긴다.
장소 경기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문의 031-637-0033



박경묵, '묘(猫)해?', 2023, 캔버스에 아크릴, 금분, 70×65cm



SHOW

〈돈키호테〉
전국 09.25~11.23

소설 <돈키호테 데 라만차>의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한 희극 발레 <돈키호테>는 현란한 스페인풍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M발레단은 3막으로 구성된 기존 작품을 2막으로 재구성해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돋보이는 공연을 펼친다.
장소 대구 어울아트센터, 세종예술의전당 외 문의 070-7954-1789



EXHIBITION

〈숨의 지형도〉
파주 09.10~10.12

김형주, 서원미, 유창창, 윤상윤, 표영실, 홍정욱 등 파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섯 명의 작가가 숨과 침의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한다. 숨결이 쌓인 17점의 예술품은 방문객에게 사색과 물입의 시간을 마련해 주고, 작품 속 호흡에 귀 기울이는 동안 무뎠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장소 경기도 파주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문의 031-992-4400



1 예술 공간으로 변신한 판교극장.
2 고지은, <낮선 땅에 내리는 뿌리들>.
3 쏜지, <눈을 감으면, 깨어나는>.
4 노동식, <꿈을 찾아>.

예술 마을로 거듭난 서천 판교 〈유토피아적 플랫폼의 경계〉전

서천 판교가 일본의 나오히마 섬을 꿈꾸며 오래된 건축물 네 곳을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들 공간에서 특별한 전시가 진행 중이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 현암리. 100년 이상 된 마을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건축물들이 예술 공간으로 변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휴공간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을 통해 판교극장, 촌담집, 오방앗간, 장미사진관 네 곳이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 중 촌담집을 제외한 세 곳은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이다. 일본 나오히마섬이 오래되어 버려진 전통 가옥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이예(家)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의 섬으로 거듭났듯 서천 판교도 역사와 추억이 깃든 건축물에 예술혼을 불어넣고 있다.

7개월간 이어지는 예술 여행

먼저 9월 14일까지 진행되는 1기 전시에는 쏜지, 노동식, 이웅빈, 고지은, 유기종 다섯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 중 쏜지와 노동식은 판교극장에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뉴욕 SVA에서 파인 아트를 전공한 쏜지는 UV 빛과 투사 이미지를 활용한 미디어 설치 작품 'Eyes Closed, Wide Awake'를 통해 현실과 환영이 교차하는 체험을 선사한다. 현대백화점, 젠틀몬스터 팝업 스토어에서 '숨' 설치 작업으로 주목받은 노동식은 숨의 가볍고 부드럽

고 따뜻한 물성을 몽환적으로 표현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한 꿈의 세계를 보여 준다. 이웅빈은 촌담집에서 어린 시절 여름방학 때 찾아간 할머니 댁에서의 추억을 살린 작품을 전시하고, 고지은은 오방앗간에서 설치·영상 작품을 통해 유랑하며 뿌리내리지 못한 존재들의 흔적을 생태적 시선으로 포착한다. 유기종은 장미사진관에서 사진을 매체로 상실 이후의 풍경을 탐문하며, 바람과 그림자의 언어를 빛으로 전환해 안개와 습도가 느껴지는 사유의 공간을 만든다. 2기(10월 1일~11월 14일) 전시에는 공모 선정작가 허지예와 이웅빈의 전시와 함께 예술경영센터 지역 전시 활성화사업으로 판교극장에서 <둔주: 그림자가 된 전통>전을 개최한다. 김동희, 김소라, 김재민이, 노드트리 등의 작가가 참여해 지역성과 전통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한다. 마지막 3기(12월 1일~2026년 2월 28일)에는 공모 선정작가 고보연, 주기범, 유기종이 과거의 흔적이 남은 공간과 현대 예술이 결합한, 독창적이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전시로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유토피아적 플랫폼의 경계〉

기간 2026년 2월 28일까지
장소 충남 서천 현암리마을 일대
홈페이지 www.artbeside.com





고래와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울산고래축제

올가을 울산고래축제가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이 있는 울산 장생포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올해 29회를 맞는 울산고래축제가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열린다. '고래의 선물(Gift From a Whale)'을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생태와 예술, 기술과 체험이 어우러진 오감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메인 무대인 고래극장에선 뮤지컬 갈라 콘서트와 고래 열린음악회, 고래 오케스트라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인공지능(AI), 증강 현실(AR)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인터랙티브 전시도 눈을 땔 수 없게 만든다. 9월 27일 토요일 저녁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고래 가족 가요제와 춤고래 가족 경연이 준비되어 있다.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두 차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고래 퍼레이드와 마술 쇼, 클래식, 국악 등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도 풍성하다.

축제의 흥을 돋울 인기 스타의 무대도 빼놓을 수 없다. 트로트 가수 김다현·박지현이 축제의 포문을 열고 인디 밴드 오월오일, TV조선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진 출신 가수 안성훈 등의 열정적인 공연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축제장 곳곳에 출출한 배를 채워 줄 푸드 트럭과 치맥존, 활기를 더할 놀이 시설과 체험존도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고래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울산고래축제로 향하자.



제29회 울산고래축제

기간 9월 25일~28일

장소 울산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문의 052-226-3403

제작 지원 울산광역시

ULSAN WHALE FESTIVAL 2025

울산고래축제 홈페이지 QR코드

2025.09.25(목) - 09.28(일)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

주최 울산광역시남구 주관 고래문화재단

www.ulsanwhale.com

고래의 선물
Gift From a Whale

2025 제29회 울산고래축제

The 29th Ulsan Whale Festival 2025

빛을 좇는 여정, 광명

이름처럼 빛으로 가득한 경기도 광명을 살살이
훑으며 경험한다. 이곳을 환히 밝히는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제작 지원 광명시청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광명역까지 20분 정도 걸린다.
수도권 전철 1호선도 광명역에 정차한다.

보존과 순환, 그 이상의 가치

광산에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광명동굴을 비롯해 오랜 역사가 깃든
지역 일대의 소중한 자원을 만났다.

도덕산에서 아침을 여는 사람들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하는 동네 주민을 만나려면 산보다 좋은 곳
이 없다. 가학산, 구름산, 도덕산, 철망산 등 광명에는 여러 산이 존
재하지만, 그중 이름에서부터 산정기가 느껴지는 도덕산에 단숨에
꽃혔다. 맑은 정신과 깨끗한 태도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목적지
를 향해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산의 시작점에 위치한 근린공원에
는 맨발로 황토의 촉감을 느끼며 천천히 걷는 사람, 수행자처럼 평
온한 표정으로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 등 일찍부터 하루를 가
꾸는 이들이 있었다.

텍 계단을 따라 쪽 올라가니 도덕산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출렁다
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도덕산 출렁다리는 경남 거창의 우두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Y자형 현수교로 2022년 8월에 개통했다. 여기에
인공 폭포를 가동해 거센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한다. 출렁다리 위
를 걷는 동안 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온몸이 조금씩 흔들리
면서 오르막길 산행에 지친 정신이 차츰 깨어난다. 세 갈래로 나뉜
길에선 등산객들이 서로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으며 모이고 흩어지
기를 반복하고, 다리 끝에 위치한 폭포정에는 땀을 닦고 수분을 보
충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25분가량 오르락내리락하기를 반복하자 도덕산 정상부 녹화 사업
으로 조성한 야생화 단지가 나온다. 미약한 체력으로 이곳까지 오
른 여행객을 햇빛 아래 살랑이는 꽃들이 반겨 준다. 크기와 색이 다
양한 백일홍, 백합과의 원추리 등 채도 높은 꽃들이 포기하지 않고
잘했다며 칭찬해 주는 듯하다. 느릿한 걸음으로 좌우를 살필 때 인
자한 표정으로 음료를 건네는 할아버지 덕분에 도 힘도 차오른다. 화
단 근처에선 흔들의자와 간이 도서관 등을 설치한 휴식 공간을 발
견한다. 의자에 걸터앉아 몸을 앞뒤로 움직이는 동안 또 한 번 바람
이 얼굴을 스치고, 출렁다리를 건널 때처럼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한여름 무더위가 가신 뒤 찾아온 바람은 가을을 기다렸던 이의 마
음을 흔들기에 충분히 산들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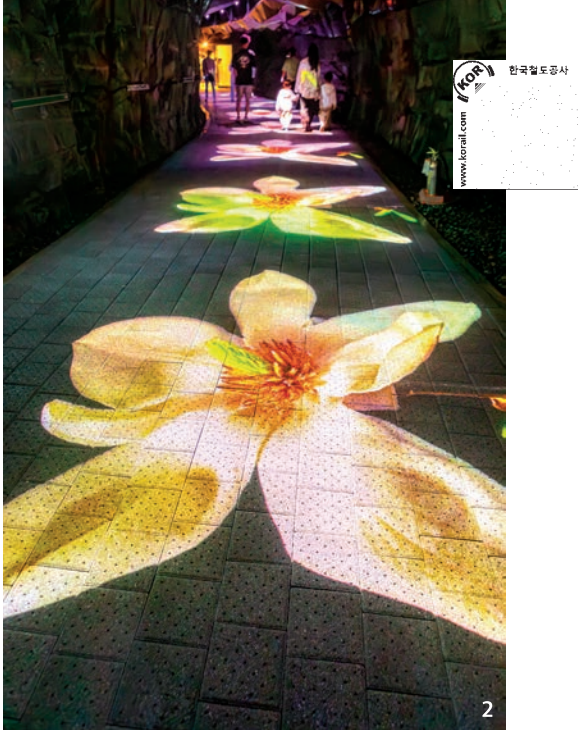


1, 2 도덕산 정상부 녹화 사업으로 조성한 야생화 단지에 50여 종의
야생화를 식재하고, 화단 근처에는 간이 도서관과 흔들의자를 마련했다.
3 2022년에 개통한 Y자형 출렁다리 아래에는 인공 폭포를 가동한다.





044 1'소망의 초신성'은 방문객들의 소원이 적힌 황금 패로 만든 작품이다. 2 광명동굴 동편 끝자락에서 펼쳐지는 빛의 향연.



빛이 안내하는 공간, 광명동굴

입구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광명동굴은 명실상부 광명의 대표 관광 명소다.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기에 제격일 뿐 아니라 내부가 어두컴컴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네 개의 동공이 만나는 원형광장부터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찬란하고, 첫 번째 파트인 빛의 공간은 LED 조명이 박자에 맞춰 일렁인다. 얼마안 가 나타나는 350석 규모의 동굴 예술의전당은 광명동굴이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주목받게 된 출발점이다. 초반에는 오페라, 패션쇼 등 동굴에서 펼쳐질 거라 상상하기 어려운 각종 행사가 열렸고, 울림통이 큰 덕에 공연 무대로도 자주 활용됐다. JTBC 예능 <비긴어게인 오픈마이크>의 버스킹 장소로 등장해 가수 김나영, 케빈오의 감미로운 목소리와 엔플라잉 이승협과 유희승의 청량한 음색이 동굴 안에 울려 퍼지기도 했다.

10분 간격으로 진행되는 미디어 파사드 쇼를 보고 나온 뒤엔 황금길을 통과한다. 황금을 키워드로 한 조형물이 곳곳에 자리하는데, 그중 '소망의 초신성'은 방문객들의 소원이 적힌 황금 패 4219개로 만든 작품이다.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이 모여 하나의 별이 된 것이다. 부와 행복을 기원하는 풍요의 여신이 들고 있는 황금 주화를 만져 보거나, 돌맹이를 황금으로 바꾸는 동굴 요정 아이샤가 알려준 주문을 속삭이는 동안 이곳이 금·은·동을 썼던 황금 광산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광명동굴이 지나온 역사를 되짚는 근대역사관에 다다르자 문득 광부들의 소원이 궁금해진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동굴 안에서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당장의 목마름과 허기를 달래는 일이 더욱 절실했을 테다. 광석을 임시로 저장하는 조구통, 광물을 상부로 운반하기 위해 광차를 매달아 운행했던 권양기, 한 줄기 빛을 만들어 준 휴대용 랜턴 간드레, 바위에 구멍을 뚫는 착암기 등 열악한 도구를 통해 광부들의 모습을 그려 본다. 일본에 채굴권이 넘어간 일제강점기, 전성기를 기준으로 500여 명의 조선인 광부가 일본인의 관리·감독 아래 하루 종일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이렇게 채굴한 광물은 태평양전쟁에 쓰일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했다. “갑자기 생기는 암전을 제대로 느껴 보셨으면 해요.” 반짝이는 LED 조명 앞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건넨 말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동굴에서 하루하루를 버틴 광부들의 지난했던 시간을 짐작케 한다.

마지막으로 만나는 와인동굴은 광명동굴의 정체성이 엿보이는 구간이다. 연평균 12도를 유지하는 광명동굴은 와인을 저장하고 숙성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전국 와이너리에서 생산한 와인을 모아 판매한다. 매년 와인 페스티벌을 열어 지역색을 살린 개성 강한 제품을 소개하고, 방문객들의 투표로 우수한 와인을 뽑기도 한다. 와인 판매소를 지나면 또다시 빛의 향연이 펼쳐진다. 바닥에 꽃봉오리가 하나둘 나타나고, 활짝 핀 꽃잎이 날아가는 영상이 이어지자 걸어가 있는 사람들의 표정에도 웃음꽃이 핀다. 이제 동굴 안에는 땀과 눈물 대신 기쁨이 가득하겠지만, 빛이 모두 꺼진 암흑의 장면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 월홀광장에서 빛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구간에 설치된 형형색색의 조명이 찬란하다. 2 동굴 예술의전당에서 10분 간격으로 미디어 파사드 쇼를 진행한다. 3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광부들은 일본인의 감시 아래 하루 종일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3





1

도심 속 내륙 습지, 안터생태공원

도덕산이나 광명동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안터생태공원에 도금처럼 귀한 동물이 있다. 한국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금개구리가 산다. 이곳의 옛 이름은 안터저수지로, 과거에는 북쪽의 도덕산과 남쪽의 구름산에서 흘러드는 지하수와 우수를 모아 두었다가 농업용수로 활용했다. 1990년대부터 근처에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등이 하나둘 들어서고 가물치 낚시터로 용도가 바뀌었는데, 저수지에 일부러 가물치를 풀어놓아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한 데다 주변 토지 개발이 이어지자 안터저수지 물이 점점 오염되고 결국 금개구리 서식처가 줄어들었다.

광명시는 금개구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4년 안터저수지를 경기도 생태보전지구로 지정했다. 2009년에는 환경부 신기술 제258호인 생태적 수질 정화 비오톱(SSB)을 도입해 안터생태공원을 조성했다. 비오톱이란 생물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제 안터생태공원에는 금개구리를 포함한 7종의 양서·파충류, 애기부들과 수련 등 식물 66종, 버들붕어와 가물치 등 어류 6종, 쇠물닭을 포함한 조류 27종을 비롯해 각종 동식물이 자란다. 습지를 가로지르는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걷다 보면 부들 같은 긴 풀이 옷깃을 스쳐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은 사람의 편의보다는 자연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공간이다.

1안터생태공원은 청둥오리, 쇠물닭 등 각종 동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도심 속 내륙 습지다. 2금개구리 서식지라는 정보를 담은 포토존. 3안터생태공원을 뒤덮은 노을이 아름답다.



2



3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물건의 용도를 재발견하는 곳으로, 자원 회수 시설 홍보동을 리모델링한 문화 예술 공간이다. 버려지는 양말 목으로 텀블러 가방 만들기, 빈병과 자투리 천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조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클래스를 진행한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이색적인 예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쓸모 있는 업사이클>이 12월 31일까지 열린다.



달콤한 사색의 맛

책 읽기 좋은 계절, 시인 기형도가 학창 시절을
보낸 소하동에서 여유를 만끽해 본다.
시한 구절, 디저트 한 입을 차례대로 음미한다.



소하고택

할아버지가 짓고 아버지가 태어난 곳을 개조해 만든
카페. 가래떡구이, 잔기지구이 등 한옥과 잘 어울리는
메뉴를 마련했고 여기에 곁들일 고소한 콩고물라테는
이곳의 시그너처다. 바닐라아이스크림에 각종 과일,
참쌀떡, 팔랑김을 올려 내는 대나무아이스크림을
다먹은 뒤엔 빈 대나무통을 가져갈 수 있다. 고즈넉한
분위기 덕에 드라마 촬영지가 되기도 한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신촌북로 7 문의 0507-1323-1957

카페 르꾸떼

피낭시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달에 한번은 들르게 되는 곳이다.
고메버터, 발로나다크 초코, 솔티드
캐러멜, 무화과 크림치즈 피낭시에는
고정 메뉴이며 여기에 매달 네 종류의
피낭시에를 추가한다. 복숭아, 멜론,
골드키위 등 당도 높은 제철 과일을 듬뿍
넣은 케이크도 인기가 높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디저트를 맛보고 영감을 받아
메뉴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카페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09번길 19
문의 0507-1309-0242



이파리맨션

가드닝 솜을 함께 운영하는 디저트 카페로, 식물이 공존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름 지었다. 귀여운 모양에 눈길 가는 썩절미
케이크는 거문도 해풍썩을 넣은 시폰케이크에 인절미·우유
크림과 인절미를 더해 완성했다. 우산 모양을 꽃은 달콤한 멜론
소다는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모양과 맛이다.
기형도문학관, 이케아 광명점에서 자동차로 3분 정도 걸린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영당로 18 문의 0507-1354-2822

피케

바삭한 타르트지와 푸딩처럼 부드럽고 두꺼운 필링이 특징인 에그
타르트가 대표 메뉴다. 오리지널 에그 타르트 외에 쇼콜라 타르트,
옥수수 에그 타르트가 색다른 매력을 전한다. 바게트처럼 단단한
식감에 고소한 풍미의 크랙 소금빵도 찾는 이가 많다. 계절별로
달라지는 통창 너머 잔디밭 풍경이 눈을 환하게 만들어 준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94 문의 0507-1360-4814





잊지 못할 이름들

광명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 봤을 이름, 오리 이원익 정승과 기형도 시인이다. 이들을 기리는 공간이 광명 땅을 지키고 있다.

청렴한 삶을 실천하다, 오리 이원익

조선 중기 문신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 세 임금을 모시며 영의정만 여섯 번을 지냈다. 병졸의 입번 제도를 개선해 훈련과 근무의 강도를 낮추고, 대동법을 실시해 백성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준 것은 널리 알려진 업적이다. 관직 수행 능력뿐 아니라 청빈한 생활 태도를 인정받아 모범 관료에게 수여하는 청백리에 녹선되었고, 공이 많은 70세 이상 신하에게 내리는 궤장을 하사받았다. 지금까지도 이상적인 관료상으로 언급되는 이원익과 직계 후손들의 유적·유물을 보존하고 있는 충현박물관이 그의 호를 딴 광명시 오리로에 자리한다. 전국 최초의 종가 박물관으로, 종가의 민속 생활품을 함께 전시한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이원익의 모습이 담긴 그림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임진왜란 때 선조를 모시고 피란했던 공적이 인정되어 그린 호성공신도상 이원익의 초상으로, 2005년 보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이원익의 필체가 담긴 편지와 일기 등에서 올곧은 신념이 엿보인다. 관감당도 오랜 세월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원익은 말년에 비가 썰 정도로 허름한 두 칸짜리 초가집에 살았는데, 그의 청렴결백함을 높이 산 인조가 1630년(인조 8년)에 하사한 집이다. 이원익은 수차례 사양했으나, 인조는 본보기로 주는 것이라며 '모든 백성이 보고 느껴야 할 집'이라는 의미가 담긴 관감당을 하사했다. 관감당 앞마당에는 수령 400년이 훌쩍 넘은 측백나무와 이원익이 자주 거문고를 켰던 탄금암이 그대로 남아 당시 풍류를 즐기던 정승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배롱나무꽃이 곳곳에 피어난 한옥 근처를 거닐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정승은 3년간 이 땅을 밟으며 어떤 생각에 몰두했을까.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백성 사랑만 한 것이 없고, 몸을 다스리는 데는 욕심을 버리는 것만 한 것이 없다."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긴 걸 보면, 관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백성에 대한 근심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듯하다. 이원익은 채워야 할 것과 비워야 할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그가 남긴 삶의 흔적은 오래도록 광명과 그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다.



1 이원익의 후손들이 살았던 종택. 2 이원익의 청렴결백함을 높이 산 인조가 하사한 관감당. 3 오리 이원익의 시문집 <오리집>. 4 호성공신도상 이원익의 초상. 진본은 충현박물관 수장고에 있다.



1



2

1 등단작 '안개'를 텍스트 애니메이션과 영상으로 구현한 공간. 2 기형도의 시에 담긴 정서는 지금도 많은 독자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3 전시장 한쪽에 기형도의 시가 수록된 문예지를 비치했다. 4 기형도문학관 전시장 입구.



3

길 위에서 기형도의 시를 중얼거리다

천재 예술가가 생을 빨리 마감하면 남은 이들의 아쉬움은 세월이 흐를수록 배가된다. 불과 서른 살에 요절한 시인 기형도가 그중 하나다.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들은 1주기, 5주기, 10주기를 기념한 추모 산문집과 기형도 전집 등을 출간했고, 시를 모티브로 한 연극도 상연했다. 2017년에는 시인의 업적을 기리고 문학 세계를 널리 알리기 위해 경기도 광명시에 기형도문학관을 건립했다.

기형도는 다섯 살 때 경기도 시흥군 서면(현 광명시)으로 이사해 정착했다. 아홉 살 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중학생 때 둘째 누나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등 어린 시절이 마냥 순탄치 않았다. 상실과 슬픔의 무게가 시로 옮겨 간 것일까. 두 살 터울 누나를 떠나보낸 무렵, 그는 시를 쓰기 시작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문학회 활동을 했고, 198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기자 활동을 하며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갔다.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며 시인으로 등단했는데, 이때 당선작이 안양천 독방 길을 배경으로 한 '안개'다. 산업화와 무자비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상실된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시를 관통한다. 유교 시집 <입속의 검은 잎>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에서도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



4

가 드러난다. 해당 시집이 100쇄를 눈앞에 둘 때까지 계속해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조리하고 폭력적인 사회를 향한 분노와 쓸쓸함,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과 허탈감 등은 시간이 흐른 지금도 청년들의 마음을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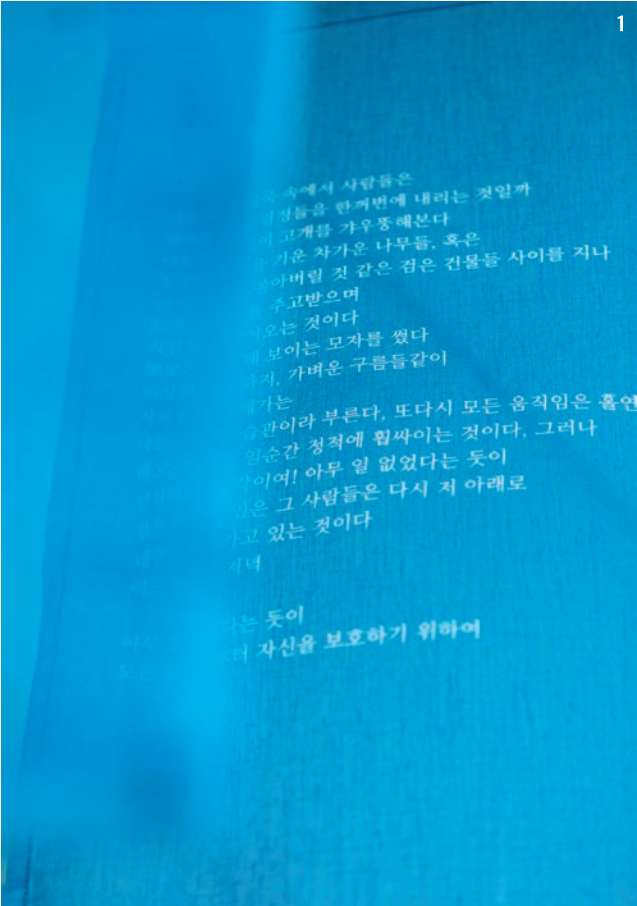
기형도의 생애를 훑은 뒤 전시장 1층 끝자락에 다다르면 시인의 작품을 필사해 보는 구간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인들의 목소리로 ‘엄마 걱정’ ‘질투는 나의 힘’ 등의 대표작을 들려주는 구간이 나온다. 강성은, 김행숙, 박준 등 각 시인 고유의 호흡과 톤으로 낭독하는 시를 들은 뒤, 한 글자씩 되새기며 인상에 남은 구절을 써 내려가는 시간이다. 소리 내어 시를 감각하고 싶어 2층에 마련한 낭독 공간으로 간다. 본인의 낭독을 녹음한 파일을 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니 응원이 필요한 이에게 연대의 목소리를 전할 기회이기도 하겠다.

해 질 무렵 기형도문학관에서 나와 ‘안개’의 배경이 된 안양천으로 가 보니, 시의 분위기와 달리 산책과 휴식을 즐기는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 보이지 않는 안개는 자욱하지만, 그가 남긴 작품 덕에 아이들이 시를 소리 내어 읽고, 단어와 문장을 곹씹고, 자신만의 언어로 재탄생시킨다. ‘안개’의 마지막 연은 “아이들은 무력 무력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로 끝나지만,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은 시인으로 성장해 각자 고유한 상상의 세계로 떠날 것이다. 누구나 가져야 할 ‘안개의 주식’,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맡아야 할 책임을 적절히 나누면서 말이다.



+
광명의 독립 서점

작가가 공들여 빚은 한문장이라도 담아가고 싶다면 특색 있는 서점에 들르자. 주기적으로 시인과의 북토크와 각종 독서모임을 여는 소하동의 소하서점, 같은 날 태어난 작가의 책을 판매하는 광명동의 읽을마음, 광명역과 가까워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가볍게 들르기 좋은 일직동의 무인 책방 꿈인책방 등이 좋은 선택지가 될 테다.



1기형도 시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어느 푸른 저녁’.
2 시인의 문학 세계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2017년 기형도문학관을 건립했다. 문학관 옆 기형도문화공원에는 주요 작품이 적힌 조형물을 설치했다. 3, 4 유교 시집 <입 속의 검은 잎> 첫 페이지에 실린 ‘안개’는 광명시를 흐르는 안양천 독방 길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현재 안양천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다.





자연과예술이 어우러진 도시, 광명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좋은 선택지가 되어 줄 경기도 광명의 명소를 박승원 광명시장이 소개한다.

광명의 매력을 새롭게 전해 줄 광명9경이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각 명소를 소개해 주세요.

먼저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근대화, 산업화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업 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광명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광명전통시장은 1970년대 초 작은 오일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350여 개 점포가 들어선 광명의 대표 재래시장이고요. 2022년에 개통한 도덕산 출렁다리는 초록빛 숲과 인공 폭포를 배경으로 특별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인기가 높고, 청계산 남서 계곡에서 발원해 광명시를 흐르는 안양천은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입니다. KTX 광명역은 이미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죠. 광명시 일직동에 위치한 고속철도(KTX) 전용 역으로, 서울과 수도권 남서부를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입니다. 조선 시대 청백리 재상인 오리 이원익과 후손들의 유적과 유물을 보존하는 충헌박물관, 기형도 시인의 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시하는 문화 공간 기형도문학관도 있으니 광명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 궁금한 분들은 꼭 한번 둘러 보시길 바랍니다. 안터생태공원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도심 속 내륙 습지고요. 새빛공원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에 친환경 녹지 공간을 조성해 어엿한 휴식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광명역과 가까워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하기도 좋죠.

광명동굴은 여름휴가지로도 손꼽히죠. 계절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명동굴은 내부 기온을 연중 12~15도로 유지해 한여름에 더위를 식히려고 찾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겨울에는 따뜻해 어느 계절에 방문해도 좋죠. 매년 100만 명 정도 방문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5회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빛을 주제로 한 공간,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드 쇼, 동굴의 역사를 되짚는 전시관, 우수한 품질의 국산 와인을 판매하는 와인동굴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동굴 탐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기존 노천카페를 리모델링해 6월부터 새롭게 운영하는 카페 케이브(Cafe Cave)에서 음료를 마시며 잠시 쉬어 가세요. 지난해 7월에 개장한 라스코전시관에서 열리는 <광명동굴 공룡탐험전>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 좋습니다. 이 외에도 광명 가학동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동굴 전망대,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기 좋은 아이사 힐링 숲길 등 다양한 콘텐츠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에 개최하는 광명동굴 빛 축제는 최첨단 미디어 쇼와 드론 쇼 등으로 구성해 청명한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이색적인 야경을 즐기러 오세요.

자원 순환과 환경보호 문제가 대두되는 지금, 재개관한 광명업사이클 아트센터가 유독 눈에 띕니다.

업사이클이란 버려지는 폐자원에 예술적 가치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업사이클 거점 공간으로 기획 전시, 체험 및 교육, 공모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업사이클 작품들이 설치된 전시장이 눈길을 끕니다. 올해 말까지 이어지는 <슬모 있는 업사이클>전에서는 일상생활 제품을 활용한



조형 작업을 통해 새로운 쓰임을 얻은 여성 작가 4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작품을 감상하고 제작 의도를 떠올려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예술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정규 수업부터 단체 수업까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자원 순환에 대한 정보도 얻어 가세요.

광명에는 산과 공원이 많아 여유롭게 둘러보기 좋습니다. 가을에 산책하기 좋은 장소 세 곳을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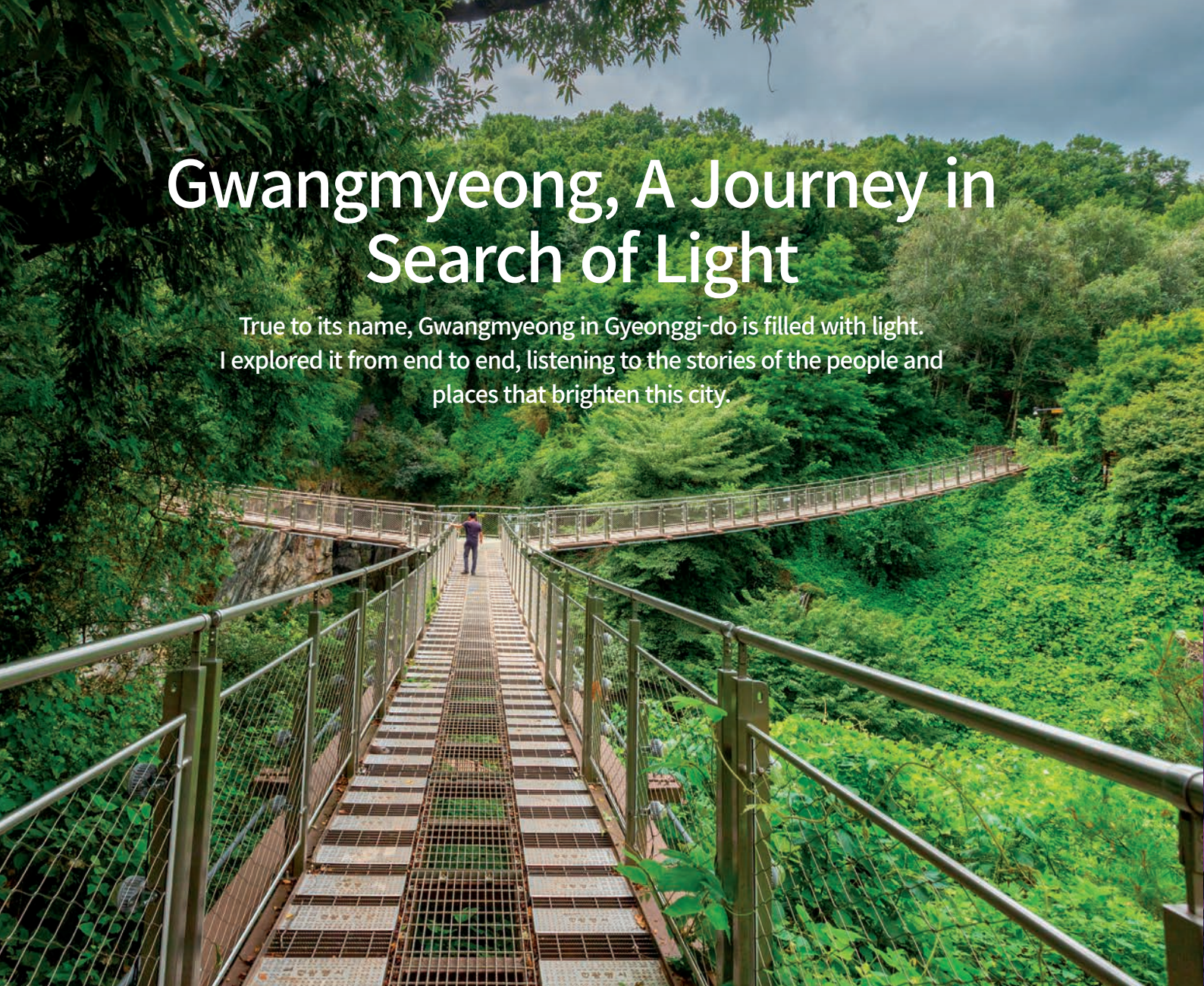
먼저 새롭게 광명9경으로 선정된 안터생태공원을 추천합니다. 도심 속에서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가을이면 억새와 갈대가 흐드러져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도덕산도 빼놓기 아쉽죠. 비교적 완만한 경사로 부담 없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도덕산 출렁다리에 다다릅니다. 이곳에서 탁 트인 하늘과 붉게 물든 단풍을 함께 즐겨 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름산을 제안하고 싶네요. 구름산은 산림욕장과 둘레길을 조성해 가볍게 걷기 좋습니다. 가을이면 산 전체가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답죠.

축제가 열릴 때 광명을 찾는다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년 어떤 행사가 열리나요?

해마다 역사, 문화, 예술, 전통이 어우러진 다양한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중 다가오는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열리는 2025 페스티벌 광명이 대표적입니다. 광명음악명예의전당 2대 아티스트로 선정된 한영애와 안치환, 자우림, 크라이넛을 비롯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후원을 받은 많은 실력파 인디 밴드가 함께할 예정입니다. 도로를 막고 조성한 거리 광장에서 7080 롤러장, 레트로 놀이 존, 퍼레이드 광명 등 행사의 열기를 더할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그 전에 9월 5일부터 7일까지 광명시민운동장 일대에서 열리는 2025 광명마당극축제부터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35회 대한민국마당극축제와 협업으로 진행하며 마당극뿐 아니라 거리극, 퓨전 국악, 인형극, 마임 등 여러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지역 예술의 가능성과 깊이를 보여 주는 구름산 예술제, 조선 시대 대표적 청백리 선비인 이원익의 업적을 기리는 오리문화제,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광명농악의 우수성을 알리는 광명농악대축제도 놓치지 마세요. 올가을, 광명시에서 준비한 풍성한 콘텐츠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아 보는 건 어떨까요?

Gwangmyeong, A Journey in Search of Light

True to its name, Gwangmyeong in Gyeonggi-do is filled with light. I explored it from end to e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the people and places that brighten this city.



Morning People on Dodeoksan

If you want to meet locals who start their day early, there is no better place than the mountains. Gwangmyeong is home to several, including Geurumsan, Dodeoksan, and Cheolmangsan, but I was instantly drawn to Dodeoksan, whose very name evokes a sense of upright spirit. Determined to regain a clear mind and steady posture, I quickened my pace toward the summit. At the neighborhood park at the mountain's base, early risers were already shaping their day. Some walked slowly along the clay paths, feeling the earth beneath their feet, while others used the outdoor exercise equipment with calm expressions. Climbing the deck stairs, I soon came upon the highlight of Dodeoksan — the suspension bridge. Opened in August 2022, the Dodeoksan Suspension Bridge is Korea's second Y-shaped suspension bridge after the one on Udusan in Geochang, Gyeongnam, and features an artificial waterfall that adds a refreshing touch. As I walked across, a cool breeze brushed my face and the gentle sway of the bridge awakened my mind from the fatigue of the uphill climb. On the three branching paths, hikers converged and dispersed, their movements influencing each other. At the bridge's end, the pavilion was filled with people wiping away sweat and rehydrating before continuing their day.

Address 86, Dodeok-ro, Gwangmyeong-si, Gyeonggi-do (Dodeoksan Suspension Bridge)

Gwangmyeong Cave, a Space Guided by Light

Gwangmyeong Cave is without question the city's most iconic attraction. It is the perfect refuge from the heat in summer or the cold in winter, and contrary to what its dark exterior might suggest, the inside is a dazzling world of light. From the Wormhole Square, where four tunnels meet, colorful lighting fills the space, and the first section, called the Space of Light, features LED lights that ripple in time with the beat, heightening the sense of wonder. The Cave Arts Center, with 350 seats, has hosted events one would never expect to see underground, such as operas and fashion shows, and its excellent acoustics have made it a popular performance venue. After watching the media facade show, which runs every 10 minutes, visitors move on to the Golden Road, lined with art installations themed around gold. One highlight is the Supernova of Wishes, created from 4,219 gold plaques inscribed with visitors' hopes. You can touch the golden coin held by the Goddess of Abundance for good fortune, or whisper the magic words taught by Aisha, the cave fairy who turns stones into gold. These playful touches serve as constant reminders that this was once a thriving gold and silver mine.

Address 142, Gahak-ro 85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Gwangmyeong Cave)



Ori Yi Won-ik’s Life of Integrity

Yi Won-ik, pen name Ori, was a prominent civil official of the mid-Joseon period who served as Chief State Councillor six times under Kings Seonjo, Gwanghaegun, and Injo. He is remembered for reforming the rota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to ease the burden on soldiers and for implementing the Uniform Land Tax Law, which reduced the tax load on the people. Admired not only for his administrative skill but also for his upright and frugal lifestyle, Yi was honored as a Cheongbaekri and received a *gwejang*—a ceremonial set of a cane and cushion awarded to meritorious officials over seventy. The Chunghyeon Museum, located on Ori-ro in Gwangmyeong and named after his pen name, preserves the heritage and relics of Yi and his direct descendants. As Korea’s first head family museum, it also exhibits traditional household items from the family. One of its most notable treasures is Gwankamdang, a residence granted by King Injo in 1630 after learning that Yi, despite his high office, was living in a modest two-room thatched house. In the courtyard of Gwankamdang stands a juniper tree over 400 years old, alongside Tangeumam, a rock where Yi often played the geomungo. These enduring traces invite visitors to picture the life of a prime minister who valued integrity while also taking delight in the refined pleasures of music and nature.

Address 5-6, Ori-ro 347beon-gil, Gwangmyeong-si, Gyeonggi-do (Chunghyeon Museum)



Reciting Ki Hyungdo’s Poetry on the Road

To honor the legacy of poet Ki Hyungdo, who died at the age of thirty, and to share his literary world more widely, the Ki Hyungdo Literary Museum was established in 2017 in Gwangmyeong. Ki moved to Seomyeon, Siheung County (present-day Gwangmyeong) at the age of five, but his childhood was far from easy. Perhaps it was the weight of loss and sorrow that turned him toward poetry. Around the time his older sister died in an accident, he began to write. In 1985, he made his literary debut when his poem “Fog,” set along the Anyangcheon embankment, won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of the *Dong-A Ilbo*. After tracing his life through the exhibits, visitors reaching the far end of the first floor will find a space for transcribing his works and listening to recordings of notable poems such as “Worrying About Mother” and “Jealousy Is My Strength,” read aloud by poets including Kang Seong-eun, Kim Haeng-sook, and Park Jun. Hearing each poet’s distinct rhythm and tone, visitors can then take time to copy down the lines that resonate most deeply. For those who want to experience poetry through their own voice, the reading corner in the second-floor lounge offers a place to record recitations and send the files by e-mail. It is also a chance to share a voice of solidarity with someone in need of comfort or encouragement.

Address 268, Ori-ro, Gwangmyeong-si, Gyeonggi-do (Ki Hyungdo Literary Museum)

기운생동, 금산에 살어리랏다

열두 폭 산수화가 살아 움직인다. 비단에 수놓은 듯 산이 에워싸고 강이 흐르는 곳,
충남 금산에서 금수강산이란 관념적 이상을 맛닥뜨린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금산의 산천에 기댈 때다.

가는 방법 금산에서 가장 가까운 기차역은 대전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제천 지원 금산군정



1 / 달콤 쌉싸래한 쾌감 가을날 금산 인삼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져도 인삼은 여전히 귀하고 영험한 존재다. 유구한 세월 동안 일 귀 온 한반도 인삼 문화 중심에 충남 금산이 있다. 국내 인삼 유통의 70퍼센트가량을 책임지는 금산의 인삼 재배 역사는 1500여 년 전 진약산 자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효심이 깊은 한 선비가 관음굴에서 기도하다 꿈에서 본 산신령의 말을 따라 ‘빨간 열매 셋 달린 풀뿌리’를 채취해 아픈 어머니에게 달여 먹이고는 크게 효험을 보았고, 그 뒤로 마을에서 약초 씨앗을 심어 기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이것이 금산 인삼 재배의 효시가 되었다 한다. 별과 바람을 활용한 재배 시설, 땅의 섭리에 근거한 윤작과 휴경 방식 등 자연 친화적인 전통 인삼 농법은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향긋한 제철 삼을 맛보려거든 금산수삼센터로 가면 된다. 수확철인 가을엔 하루 평균 150톤가량 거래가 이루어져 신선한 인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채웅주 금산수삼센터 과장은 인삼 고르는 법에 대해 이렇게 귀띔한다. “뇌두, 몸통, 뿌리가 골고루 발달하고 손에 쥐었을 때 단단한 질감이 느껴지는 게 훌륭한 삼입니다. 상처 없이 매끈한 표면, 원형이 유지된 잔뿌리 등 보기 좋은 삼이 몸에도 좋은 법이죠.” 삼 한 뿌리에 깃든 금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한다.

주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약초로 24(금산수삼센터) 문의 041-754-4185



+ 이렇게 여행하세요

금산세계인삼축제 뿌리 깊은 전통을 자랑하는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올가을 한층 성대한 모습으로 돌아온다. 방문객의 여독을 풀어줄 ‘건강체험관’, 향긋한 인삼 가공품을 망라한 ‘국제인삼교역전’, 인삼을 어루만지며 감각하는 ‘인삼저장거리’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알찬 즐길 거리가 우리를 기다린다. 축제의 백미는 밭에서 손수 인삼을 캐는 체험 프로그램. 직접 캔 삼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바삭한 인삼튀김 한 입, 그윽한 인삼 막걸리 한잔 맛보며 차오르는 기운을 만끽해 본다.

기간 9월 19일~28일

장소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
문의 www.insamfestival.co.kr



1, 2, 3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된 금산의 전통 인삼 농법을 재현했다. 최적의 생육 조건에서 사포닌 함량이 높은 삼을 길러 낸다.
4, 5 금산군에는 금산수삼센터, 금산세계인삼엑스포광장, 금산인삼관 등 인삼을 맛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모여 있다.





2 / 계절을 건너는 시간 월영산 출렁다리

달그림자라는 뜻을 품은 신비로운 곳, 월영산의 맑은 기운을 받으러 간다. 예부터 금산 사람들은 정월대보름이면 산마루에 올라 특별한 의식을 치렀는데, 달이 떠오르는 방향을 보고 그해 농사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이때 월영산 쪽은 풍년을 상징했으니 신묘한 힘을 품은 영산이라 할 만하다. 정상인 해발 529미터 월영봉은 그리 웅장하거나 거대하진 않아도 눈부신 풍광을 자랑한다. 가까이는 금산의 진산인 진악산과 충북 영동의 마니산, 멀리는 전북 무주 덕유산과 진안 마이산까지 내다보인다. 다행히 수고로운 등산을 하지 않아도 유려한 산세를 감상할 방법이 있다. 바로 월영산 출렁다리 건너기다. 높이 45미터, 길이 275미터의 아찔한 출렁다리는 긴장감과 설렘을 동시에 안긴다. 우아하게 휘청거리는 출렁다리 한복판에 이르자 질푸른 금강 물길과 싱그러운 녹음이 두 눈 가득 담긴다. 산세도, 산신령도 부럽지 않은 한 폭의 수묵화다. 아슬아슬 한 걸음씩 내디뎌 강을 건너고 나서 부영산 전망대에 다다르면 별안간 싸아야 하는 물소리에 귀가 쫑긋해진다. 원골 인공 폭포가 쏟아내는 물줄기와 청량한 파찰음이 어수선했던 머릿속을 환히 밝히는 순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이 계절의 공감각적 장면이다.

주소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168-5 문의 041-754-3837

1 높이 45미터의 월영산 출렁다리가 짜릿한 전망을 자랑한다. 유려한 산세와 굽이치는 금강 물길이 한눈에 담긴다. 2 부영산 전망대에 닿자 원골 인공 폭포의 시원스러운 풍광이 펼쳐진다.





3 / 바람이 머무는 물길 적벽강

흐르는 것이 물인가, 바람인가, 마음인가. 붉은 절벽을 적시며 고요히 일렁이는 물길을 바라본다. 전북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금산 부리면 수통리에 다다라 적벽강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중국 송대의 시인 소동파가 노닐던 장강 적벽의 풍경을 닮았다는 이유에서다. 시 짓고 노래 부르게 하는 아름다운 풍광은 물론, 살아 있는 지질학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묘묘한 하천 지형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감입곡류 구간에서 발달하는 하식애(하천의 침식작용으로 발달하는 계곡 사면의 절벽), 하중도(퇴적작용으로 강 한가운데 생기는 섬), 사력퇴(하천 습지)를 맞닥뜨릴 때마다 절로 탄성이 새어 나온다. 물 좋고 바람 시원한 곳엔 으레 정자가 자리하는 법. 적벽강 변 한편에 동그란산이라는 자그마한 바위산이 있다. 조선 시대 광해군 때 한산군수를 지낸 양응해라는 인물이 벼슬길을 뒤로한 채 여기에 귀래정을 세우고 여생을 보냈다. 이곳은 훗날 벼슬아치들의 뱃놀이 장소가 되곤 했는데,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정자를 불태워 현재는 터만 남았다. 물결과 바람결에 무수히 쓸리고 깎인 기암괴석은 오늘날 기나긴 세월을 말없이 증언한다.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일원 문의 041-750-2371



1, 3 예나 지금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모인 이들로 북적이는 적벽강. 한낮 햇살에 일렁이는 물결이 눈부시다. 2 억겁 세월이 조탁한 적벽의 표면이 미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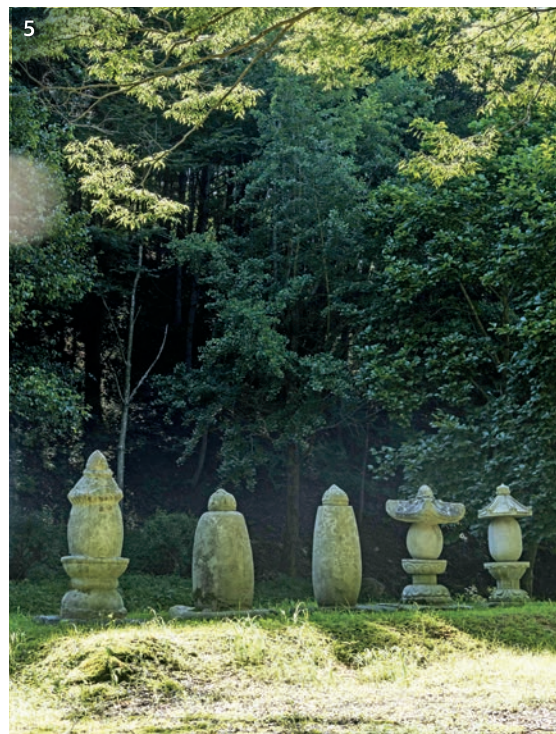


한 걸음 더

적벽강가든 칼칼하면서도 품미가 깊은 어족으로 유명한 식당이다. 칼국수와 수제비도 담겨 든든하기까지 하다. 보통 주방에서 어족을 끓여 뚝배기에 내놓는데, 이 집은 반쯤 끓인 어족을 냄비째 버너에 올려 내와 취향껏 점도를 조절해 먹을 수 있다. 이곳에서 직접 만든 손두부와 감칠맛나는 양념을 발라 구운 도리뱅뱅이를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다. 지역 음식 경연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하며 실력을 공인받은 식당으로, 3대째 손맛을 이어 오고 있는 이 동네 터줏대감이다. 적벽강을 마주한 위치라 전망도 빼어나다.

주소 충남 금산군 부리면 적벽강로 774

문의 041-753-3595



4 / 싱그러운 은신처 보석사

진악산 남동쪽 자락에 안긴 듯이 자리한 보석사는 임진왜란 때 참전한 승병을 기리는 절이다. 입구엔 조선 현종 때 세운 의병승장비가 서 있고, 조사전은 의승장과 종사관 스님 열네 분을 모신다. 호국 정신이 남다른 이곳엔 사찰 건립 당시인 886년 조구대사가 심었다고 알려진 은행나무가 있다. 천연기념물로 높이 34미터, 둘레 약 11미터의 위용이 넘치는 이 나무는 하나의 개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아름답다. 천년 세월을 버티고 선 나무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유한함을 곱씹을 수밖에 없으니, 과연 가르치려 하지 않고도 가르치는 자연이다. 예부터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나무가 기이한 소리를 내며 흐느꼈다는 이야기도 유명하다. 1945년 8·15광복과 1950년 6·25전쟁 등 역사적 사건을 지나는 순간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잇따른 것. 금산에서는 매년 가을 보석사은행나무대신제를 열어 사물놀이와 판소리, 승무, 부채춤 등 신명 나는 전통 연희를 펼친다. 오래도록 마을을 수호해 온 신께 정성을 바치는 행사다. 지난 7월에 열린 금산삼계탕축제에서는 이 나무에서 떨어진 은행 열매를 넣어 끓인 천년장수삼계탕을 선보이기도 했다. 천년의 시간과 정성을 응축한 맛이었을 테다.

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보석사길 30 문의 041-753-1523

1, 2, 3 조구대사가 창건한 보석사는 임진왜란 당시 참전했던 승병장을 기리는 호국 사찰이다. 가을이 오면 경내의 꽃무릇 군락이 붉게 물들어 정취를 더한다.
4 신령한 기운을 뿜어내는 보석사 은행나무. 간절한 염원들이 한데 모여 있다. 5 의병승장비각 맞은편 별 좋은 자리에 부도 5기가 나란히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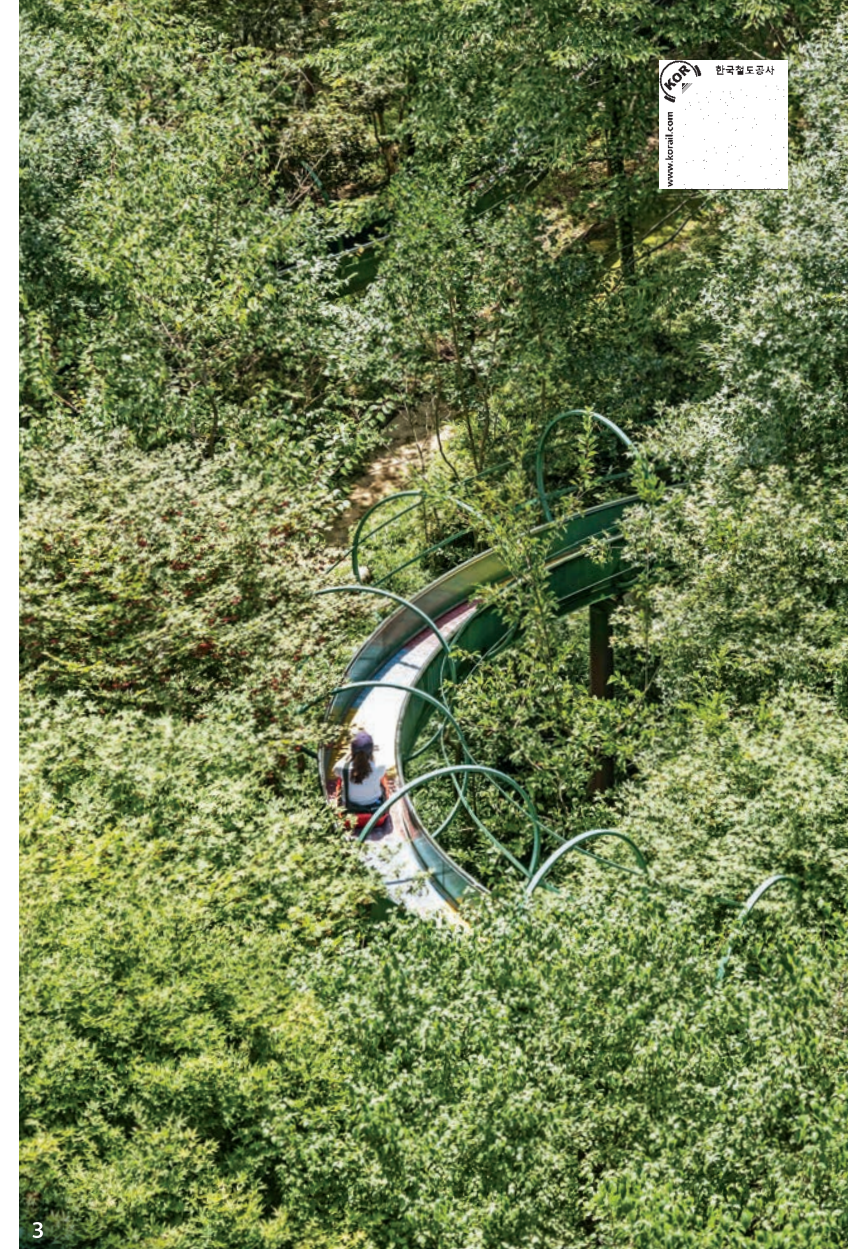
5 / 숲의 모든 것 금산산림문화타운

건고 뛰놀고 헤엄치다가 언제든 게으름 피우며 낮잠을 청해도 좋은 곳. 남이자연휴양림, 금산생태숲, 느티골산림욕장 등 여덟 개 시설을 아우르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은 2008년 개장 이래 숲을 사랑하는 이들의 구심점이 되었다. 넉넉한 객실을 갖춘 숙박 시설과 편의 시설을完비한 야영장, 계곡에 맞닿은 평상과 다채로운 부대시설은 물론, 최근엔 탐방 안내소부터 목재문화체험장까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을 받은 약 1킬로미터의 '무장애 나눔길'을 마련해 모든 방문객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혼재하는 독특한 식생을 관찰하는 즐거움은 덤이다. 산딸나무·자귀나무·매죽나무·비목나무가 잎사귀를 팔랑거리고, 바람이 서늘해지는 이 계절엔 보랏빛 꽃잎을 띄우는 용담이 고개를 내민다. 숲 치유, 숲 해설과 함께 가장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은 목공 체험이다. 단풍나무, 편백나무, 박달나무 등 다종다양한 나무를 만지고 썰고 쥐면서 손끝의 감각을 버린다. 목재문화체험장 한편으로는 금산산림문화타운이 한눈에 담기는 하늘다리가 이어지고, 건물 아래쪽에는 하늘 슬라이드가 자리하니, 마음껏 숲을 가로지르며 달고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셔 본다.

주소 충남 금산군 남이면 느티골길 200 문의 041-753-5706



1, 2 나무의 향기와 질감을 다채로운 공예품으로 감각하는 시간. 직접 나무를 매만지거나 그을려 나만의 공예품을 만들어 볼 수 있다. 3, 4 말 그대로 첩첩산중에 들어선 금산산림문화타운. 하늘 슬라이드를 타고 숲을 헤쳐 나가거나 하늘다리에 올라 산세를 감상한다.



1

Geumsan Ginseng

About 70 percent of Korea's ginseng distribution comes from Geumsan, where the history of ginseng cultivation stretches back more than 1,500 years to the foothills of Jinaksan Mountain. According to legend, a devoted scholar was praying in Gwaneumgul Cave when he dreamed of a mountain spirit who told him to boil the root of a plant bearing three red berries. He gave the decoction to his ailing mother, who recovered completely. From that time, the villagers began planting and cultivating medicinal herbs, marking the beginning of ginseng farming in Geumsan. The Geumsan traditional ginseng cultivation system, which makes use of sunlight and wind, and follows crop rotation and fallowing practices in harmony with the land, has been designated as a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This autumn, the 43rd Geumsan World Insam Festival will return on an even grander scale. The highlight of the festival is a hands-on program where visitors can harvest ginseng themselves in the fields and purchase it at a reasonable price. A bite of crispy fried ginseng and a sip of rich ginseng makgeolli offer a revitalizing taste that lingers.

Address 30, Insamwangjang-ro,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www.insamfestival.co.kr

Geumsan, Vitality in Full Bloom

The landscape unfolds like a living twelve-panel painting. In Geumsan, Chungcheongnam-do—where mountains encircle like embroidered silk and rivers wind gracefully—you come face-to-face with the very essence of Korea's *geumsugangsan*, the ideal of richly beautiful land.



2

Woryeongsan Suspension Bridge

Woryeongsan, whose name means “moon shadow,” is a place touched with a quiet sense of mystery and fresh mountain air. Rising 529 meters above sea level, its peak, Woryeongbong, is not towering or imposing, but it offers sweeping, radiant views. From here, you can see Jinaksan, the guardian mountain of Geumsan, and Manisan in Yeongdong, Chungbuk, while in the distance lie Deogyusan in Muju and Maisan in Jinan, Jeollabuk-do. There's no need for a strenuous climb to enjoy these graceful ridges. Crossing the Woryeongsan Suspension Bridge is enough. At 45 meters high and 275 meters long, the bridge offers both a thrill and a sense of anticipation. In its gently swaying center, the deep blue curve of the Geumgang River and the lush green of summer fill your view, like a living ink painting that even the mountain spirits might envy. Carefully crossing to the other side, you arrive at the Bueongsan Observatory. Suddenly, the rush of water catches your ear. Below, the Wongol Artificial Waterfall cascades down in a cool, clear roar, sweeping away restless thoughts and leaving your mind calm and bright.

Address 168-5, Cheonnae-ri, Jewon-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4-3837

3

Jeokbyeokgang River and Gwiraeyeong

Originating in Jangsu, Jeollabuk-do, the Geumgang River reaches Sutong-ri in Buri-myeon, Geumsan, where it takes on the name Jeokbyeokgang. The name comes from its resemblance to the Red Cliffs along China’s Yangtze River, where the Song dynasty poet Su Dongpo once roamed. The scenery here is so beautiful it inspires poetry and song, and the river’s unusual formations make it feel like a living geological museum. In places blessed with clear water and fresh breezes, a pavilion is never far away. On one side of Jeokbyeokgang stands a small rocky hill called Donggeuransan. During the reign of King Gwanghaegun in the Joseon Dynasty, Yang Eung-hae, who served as county magistrate of Hansan, retired from official life and built Gwiraeyeong Pavilion here, spending the rest of his days in its quiet beauty. Later, the pavilion became a favorite spot for boating parties among local officials, something the villagers disliked so much that they burned it down. Today only the site remains, preserving traces of its past. The strangely shaped rocks along the riverbank, worn smooth and sculpted by countless years of wind and water, still stand as silent witnesses to the passage of time.

Address Sutong-ri, Buri-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0-2371



4

Boseoksa Temple

Nestled on the southeastern slope of Jinaksan Mountain, Boseoksa Temple was built to honor the Buddhist monk-soldiers who fought in the Imjin War. At the entrance stands a stele commemorating the monastic commanders, erected during the reign of King Heonjong of Joseon. Inside the Founder’s Hall are enshrined the portraits and memorial tablets of fourteen monk commanders and aides. One of the temple’s most treasured sights is a ginkgo tree believed to have been planted in 886 by Monk Jogu, the temple’s founder. Standing 34 meters tall with a girth of 11 meters, the tree is massive and beautiful. Before this thousand-year-old giant, one cannot help but reflect on the brevity of human life. Every autumn, Geumsan hosts the Boseoksa Ginkgo Tree Ritual, filling the temple grounds with vibrant traditional performances such as samulnori percussion, pansori narrative singing, seungmu (monk’s dance), and fan dances. During the Geumsan Samgyetang Festival, visitors can taste the “Thousand-Year Longevity Samgyetang,” a ginseng chicken soup made with ginkgo nuts that have fallen from this natural monument. It is a flavor that carries the weight and devotion of a thousand years.

Address 30, Boseoksa 1-gil, Nami-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3-1523

5

Geumsan Forest Culture Town

Geumsan Forest Culture Town brings together eight facilities, including Nami Natural Recreational Forest, Geumsan Ecological Forest, and Neutigol Forest Park, and has served as a gathering place for forest lovers since its opening in 2008. It offers spacious accommodations, a fully equipped campground, riverside pavilions, and a variety of facilities. Recently, it added the “Barrier-Free Sharing Trail,” a one-kilometer path certified as a BF (Barrier Free) environment, welcoming all visitors with open arms. Along with forest therapy and guided forest tours, one of the most popular programs is woodworking. Visitors can hold, touch, and smooth a variety of woods such as maple, hinoki cypress, and hornbeam, honing their sense of touch through the experience. Next to the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the Sky Bridge offers a panoramic view of the entire Geumsan Forest Culture Town. Below the building, the Sky Slide invites visitors to glide through the forest, breathing in the crisp, refreshing air to their heart’s content.

Address 200, Neutigol-gil, Nami-myeon, Geumsan-gun, Chungcheongnam-do
Contact 041-753-5706





2025원주댄싱카니발

9. 26.FRI / 9. 28.SUN 댄싱공연장일원

made in

원주를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WONJU

no.09



1

공간, 예술, 자연의 하모니

뮤지엄 산

2



원주에는 세 개의 산이 있다. 치악산, 소금산 그리고 뮤지엄 산(SAN). 공간(Space)과 예술(Art), 자연(Nature) 각 단어의 머리글자에서 따온 이름처럼 뮤지엄 산은 노출 콘크리트 건축의 대가 안도 다다오가 빚어 낸 건물과 예술 작품, 원주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미술관이다. 웰컴 센터를 시작으로 플라워가든, 워터가든, 뮤지엄 본관, 명상관, 스톤가든, 제임스 터렐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공간을 잇는 오솔길을 따라 걸다 보면 틈틈이 자연 속에 녹아든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된다. 마크 디 수베로의 거대한 작품이 시선을 끄는 플라워가든 옆엔 그라운드가 숨어 있다. 지하 동굴 구조로 설계한 그라운드는 안도 다다오와 영국의 조각 거장 안토니 곰리가 협업한 전시 공간으로, 안토니 곰리의 'Blockworks' 시리즈 중 일곱 점이 전시되어 있다. 천창을 투과해 내리쬐는 햇살, 입구에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 멀리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마저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라운드 맞은편, 빛의 공간에서는 십자 모양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빛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한다. 워터가든을 지나 뮤지엄 본관으로 가는 길, 알렉산더 리버만의 작품 'Archway'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뮤지엄 본관을 빠져나오면 신라 고분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한 스톤가든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사이를 지나 제임스 터렐관에 이르기까지 뮤지엄 산의 모든 공간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예술적 풍경의 연속이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2길 260



3



4

1 워터가든에서 12개의 육중한 파이프를 이어 만든 작품 'Archway'를 지나 뮤지엄 본관으로 향한다.
2 경북 경주의 고분을 닮은 스톤가든.
3 그라운드에선 관람객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
4 자연 속에서 쉬어 가기 좋은 뮤지엄 산 카페.
5 조각 작품 너머로 보이는 그라운드 입구.
6 뮤지엄 본관 내 청조갤러리에서 안토니 곰리의 전시 <Drawing on Space>가 열리고 있다.



5



6



1



4

작가의 숨결이 머무는
박경리문학공원

“원래의 대지, 본질적인 땅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원주(原州), 이름 그 자체를 나는 사랑했는지 모른다.”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박경리 작가가 남긴 말이다. 작가는 대표작 <토지>를 25년간 집필했는데 그중 18년은 원주 단구동에 살며 4, 5부를 완성했다. <토지>는 구한말에서 광복까지 부산, 서울, 간도 용정 등 삼천리를 배경으로 민중의 삶을 생생히 그려 낸 작품으로 등장인물만 600명이 넘는다. 1994년 8월 15일 마지막 원고를 탈고하기까지 작가가 머물던 집과 정원은 2008년 박경리문학공원으로 변모했다. 이곳에서 특히 인기 있는 장소는 서재와 집필실이 오토이 남아 있는 옛집이다. 박경리 작가가 5년간 정성껏 만든 돌길을 따라 걸으면 옛집 앞에 너른 잔디밭이 펼쳐진다. 손수 가꾸던 텃밭은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고, 텃밭에서 일하다 쉬던 자리에는 작가와 그가 아끼던 고양이 동상이 있다. 옛집 안으로 들어서면 거실엔 커피를 즐겨 마시던 소파가, 부엌엔 평소 사용하던 식기가 작가를 추억하게 한다. 주인이 잠시 외출한 집에 방문한 손님이 된 듯한 기분이다. 상만 하나 덩그러니 놓인 집필실에는 생전에 쓰던 안경, 만년필, 사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옛집 관람의 여운은 명상 음악이 흐르는 '카페 서희'에서 느껴 보자. <토지>를 모티브로 조성한 공간에는 작품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박경리 작가의 여러 대표작을 비치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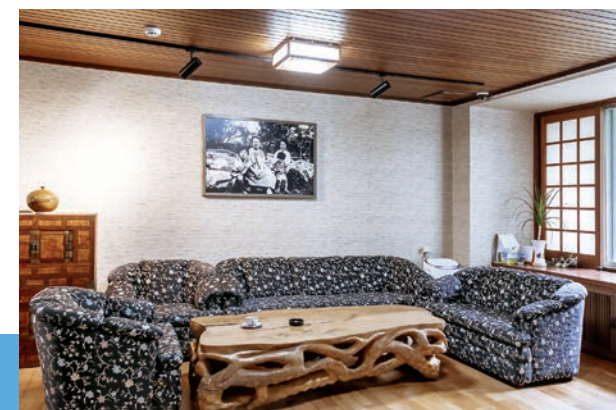
강원도 원주시 토지길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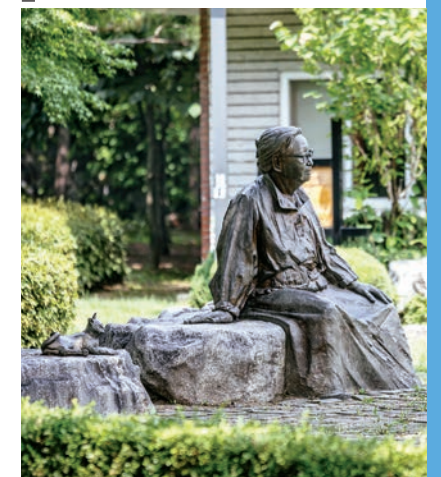
3



5

1 정원이 아름다운 박경리문학공원. 2 소설 <토지>의 세계관을 인테리어로 표현한 카페 서희. 3 카페 서희에서 군고구마 라테 '토지'와 밀크슈페너 '서희'를 맞본다. 4 작가가 생전에 쓰던 만년필, 안경, 사전, 부채 등이 집필실 상 위에 놓여 있다. 5 옛집 거실에선 작가가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던 소파를 만난다. 6 옛집 앞, 박경리 작가와 그가 아끼던 고양이 동상.

6





2025 원주만두축제
원주 만두를 흥겹게 즐기고 싶다면
오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중앙동 전통시장 및 문화의
거리, 원일로 일원에서 열리는
원주만두축제를 기억하자. 올해
3회를 맞는 축제로 만두 미식존,
만두 만들기 체험존, 만두 주제
전시 등 만두를 오감으로 즐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시민
참여 행사로 읍면동 만두 만들기
대회, 만두 덕후 서포터즈 발대식,
만두 이색경연대회, 플라마켓 등
풍성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2

원주의
시간을 맛보다
도래미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



3



4

원주 중앙동에 자리한 전통시장에 가면 맛깔난 음식의 유
혹에 발걸음이 멈춘다. 찜통 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피
어오르며 갓 쪄 낸 만두가 탐스러운 자태를 드러낸다. 이름
도 귀여운 도래미시장 골목에는 김치만두를 대표 메뉴로 내
건 만두 가게가 줄지어 있다. 원주 김치만두의 역사는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전쟁 이후 원주에 정착한
피란민들이 만두를 빚어 팔던 것이 시초다. 익은 김치 대신
생김치를 넣는 것이 원주 김치만두의 특징. 바삭한 튀김만
두는 물론 칼국수와 만두를 합친 칼만둣국도 이곳만의 별
미다. 도래미시장 옆 자유시장 지하에서는 떡볶이, 순대, 김
밥 등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분식집이 인기다. 중앙시장
의 소고기 골목에서 치악산 한우도 꼭 맛볼 것. 뜨거운 숯불
화로에 석식을 올려 치익 소리가 나게 구워 먹으면 입안에
서 살살 녹는다. 취향 따라 갈빗살, 안창살, 살치살 등 다양
한 부위를 주문해도 좋고 차돌박이, 부채살, 업진살, 치마살
을 두루 맛볼 수 있는 모듬구이는 여러 명에서 다양한 맛을
즐거기에 제격이다.

❶ 도래미시장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길 35-4
자유시장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길 11
중앙시장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길 2



6



5

- 1 곳곳에 만두 가게가 늘어난 도래미시장.
- 2 칼만둣국, 김치만두, 튀김만두는 원주에서 꼭 맛봐야 할 메뉴다.
- 3 2024 원주만두축제 풍경.
- 4, 5 중앙시장은 소고기 골목으로 유명하다.
- 6 자유시장 지하에서 분식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 7 중앙시장 2층에 자리한 미로예술중앙시장에는 아기자기한
가게가 모여 있다.



7



1



2



3

- 1 소금산 피톤치드 글램핑장에서선 소금산 너머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볼 수 있다.
- 2 동그란 창이 매력적인 호빗하우스.
- 3 캄파슬로우 내 수제 맥주와 와인을 파는 상점.
- 4 삼산천 협곡을 가로지르는 소금산 출렁다리는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 5 캄파슬로우의 우드 카빙 공방에선 새집이나 나무 장난감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한다.

때로는 자연 속에 머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듯하다. 도시의 소음 대신 새소리, 물소리가 가득한 원주의 글램핑장에서라면 더욱 그렇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깊은 산속, 무성하게 자란 나무에 둘러싸인 소금산 피톤치드 글램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 보자. 손에 닿을 듯 가까이 보이는 소금산 정상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싼 울창한 숲이 뿜어내는 피톤치드 향을 맡으면 온몸이 정화되는 듯하다. 저녁에는 황홀한 노을이 번지는 소금산을 바라보며 바비큐를 즐기고, 새벽에는 유유히 흘러가는 운무를 감상하며 커피를 훌쩍이는 낭만을 만끽할 수 있다. 삼산천 협곡을 가로지르는 소금산 출렁다리 위에서 느끼는 짜릿한 스릴은 덤이다. 백운계곡 옆 캄파슬로우도 숲속 글램핑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다. 나무로 지은 로지, 돔 형태의 호빗하우스 등 각기 다른 유형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 숲길을 산책하다 핀란드식 편백나무 사우나까지 즐기다 보면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흐른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뜻하는 '퍼머컬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하는 우들라농장에서는 제철 농작물을 내 손으로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고, 우드 카빙 공방에서는 자녀와 함께 새집이나 나무 장난감을 만들어 특별한 추억을 남긴다. 최근에 문을 연 가드닝 숍 온실에서는 농장에서 기른 식물과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 소금산 피톤치드 글램핑장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소금산길 12
캄파슬로우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백운산길 67-105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시간 소금산 피톤치드 글램핑장 · 캄파슬로우



4



5



1



2

원주 쌀로 빚은 고품격 소주

모월양조장

원주의 옛 이름은 모월(母月). 어머니의 마음과 은은한 달빛처럼 품어 주는 고장이란 의미가 담겼다. 치약산과 백운산 사이, 원주의 옛 이름을 내걸고 전통 방식 그대로 술을 빚는 모월양조장이 있다. 원주에서 농부의 아들로 나고 자란 김원호 대표가 운영하는 곳으로, 첨가물 없이 오직 원주 쌀 '토토미'와 누룩, 물로만 술을 빚는다. 원주 쌀로 좋은 술을 만들면 사라져 가는 고향의 논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다. 김 대표는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던 농민들마저 미국 쌀로 만든 막걸리를 마시는 현실이 안타까워 2014년 양조에 뛰어들었다. 같은 뜻을 가진 동창생들과 협동조합 모월양조장을 설립하고 술 빚는 데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발효시킨 밀술을 정제해 추출하는 증류 단계에서 상압식 기법으로 쌀의 감칠맛과 향을 유지하고, 구리 증류기를 사용해 맑고 부드러운 맛을 더한다. 모월양조장에서선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소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만든다. 맛과 향이 탁월해 모월양조장의 시그니처 '모월 인'은 2020년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모월 인을 아메리칸 오크 통에 숙성해 오크 본연의 순수하고 진한 풍미를 살린 '모월 인 오크'(41도)도 인기다. 모월 인 외에도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전통주로는 증류식 소주 '모월 로'(25도), 프리미엄 약주 '모월 연'(13도)과 '모월 청'(16도), 새로 출시한 '나랑소주'(19도)가 있다.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판부신촌길 84

interview

모월양조장 김원호 대표

원주 쌀로 술을 빚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술은 결국 농업'이라는 생각으로 양조장을 시작했습니다. 해외에서 수입한 쌀로 한국의 전통주를 만드는 것이 늘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죠. 나라도 앞장서서 우리 쌀로 우리 술을 만들자고 마음 먹었습니다. '술은 농업'이라는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농업은 로컬이고, 로컬이 활기를 띠려면 농업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올바르게 농사 짓고 술을 빚는 것 또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죠.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목표가 있을까요? 지역의 이름을 건 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4만 3000명이 거주하는 멕시코의 도시 테킬라를 알린 술 테킬라처럼 원주 쌀로 만든 술로 원주를 알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3

- 1 모월 인을 아메리칸 오크 통에 숙성한 모월 인 오크는 위스키처럼 깊은 맛을 낸다.
- 2 황동과 스테인리스를 결합해 만든 증류기.
- 3 원주의 옛 이름인 '모월'은 한자로 어머니와 달을 뜻한다.
- 4 양조장에서 생산 과정을 체크하는 김원호 대표.
- 5 모월양조장 2층에는 시음실이 있다.



4



5



1

- 1 치악산 비로봉 정상과 백두대간 능선이 빚어 내는 비경.
- 2 치악산 등반은 구룡사에서 시작한다.
- 3 치악산에는 가족과 걷기 좋은 숲길도 있다.
- 4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 비가 내리는 반계리 은행나무.



2



3



4

걸어서 단풍 속으로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 치악산

산세가 수려한 원주에는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유난히 많다.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어내는 나무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문막 반계리를 지켜 온 거대한 은행나무다. 196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는데 당시 높이가 약 33미터, 둘레는 약 16미터였다. 줄기와 가지가 균형 있게 자라 한국의 은행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아름다운 나무로 꼽힌다. 실제로 보면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반경이 어찌나 거대한지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는 것만 같다. 최근에는 SBS 드라마 <우리영화>에 등장해 사시사철 아름다운 은행나무의 자태를 보여 주었다. 사계절 중 특히 가을에는 해마다 은행잎 비가 내리는 풍경을 보러 여행객이 반계리로 몰려든다. 만추에 접어들면 후드득 은행나뭇잎이 떨어져 주변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등산을 사랑하는 여행자에게 단풍으로 물든 가을의 치악산도 놓칠 수 없다. 구룡사 입구에서 시작해 비로봉까지 이어지는 등산길에서 툼툼이 들리는 시원한 폭포 소리가 온몸의 고단함을 달랜다. 비로봉에서 내려다보는 원주 시내와 백두대간의 능선은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깊어 가는 가을, 원주를 찾아야 할 이유다.

📍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 1495-1
치악산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무쇠점2길 26



빙하미술관

예술로 환경을 이야기하는

원주 지정면 판대리에 거대한 빙하가 나타났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져 가는 시대에, 예술을 매개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하는 빙하미술관이 지난 5월 문을 연 것이다. 미술관에 들어서기 전, 물 위에 떠 있는 빙하처럼 보이는 조형물이 먼저 눈길을 끈다. 빙하를 상징하는 스테인리스스틸과 유리 외벽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원주의 자연을 비춘다. 미술관 내부도 빙하 조형물만큼이나 리듬감이 넘친다. 일반적인 화이트 큐브 형식의 전시장과 달리 곡선의 벽과 V자형 통로, 복층 구조 등을 적극 활용해 같은 작품을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장 너머로 빙하 조형물이 떠 있는 수변 공간이 보여 마치 빙하 속을 거니는 듯한 기분마저 든다. 실험적인 공간만큼이나 돋보이는 것은 기후 위기를 예술 작품을 통해 마주하는 개관전 <1.5도씨-트루바이(1.5°C-Trouville)>다. 1.5도씨는 2015년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임계치를, 트루바이는 프랑스어로 '뜻밖의 발견'을 뜻한다. 미술과 지질을 전공한 황해연 작가가 그린 '빙하, 빙산의 형태 연구 드로잉', 인간과 제비가 공유하는 집을 주제로 한 구지은 작가의 '뉴제비타운 시리즈' 등 작가의 시선이 담긴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환경문제에 깊이 공감하게 된다.

9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구재로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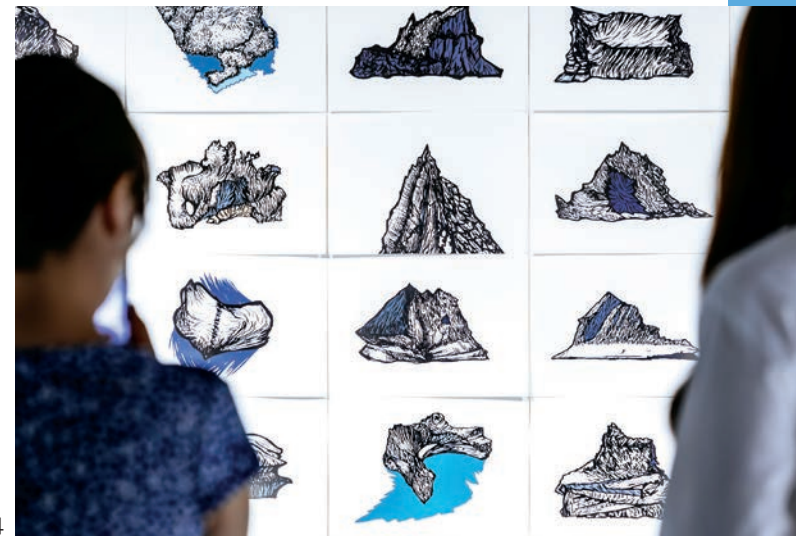


interview

빙하미술관 조수현 학예팀장

미술관의 첫인상이 강렬해요. 빙하를 닮은 미술관을 구현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많은 노력을 들였습니다. 기후 위기를 예술로 풀어낸 개관전에도 특별히 신경 썼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빙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개관전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타 지역에서 온 방문객도 많지만, 특히 원주 시민들이 많이 찾아 주셔서 기뻐요. 유치원생이나 중고생이 단체 관람을 와서 전시를 흥미롭게 볼 때 뿌듯합니다. **다음 행보가 기대됩니다.** 빙하미술관이 예술과 건축,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어요. 올겨울에는 빙하미술관 외벽이 공공 연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의 빙하미술관도 기대해 주세요.

1 빙하미술관 카페에선 빙하를 상징하는 음료를 즐길 수 있다. 2 빙하미술관은 물 위에 떠 있는 빙하를 닮았다. 3 개관전에 전시된 정석우 작가의 'RGB Column #1-3'은 세로 길이가 4미터가 넘는 작품이다. 4 황해연 작가의 '빙하, 빙산의 형태 연구 드로잉'. 5 구지은 작가의 '뉴제비타운 시리즈'와 '회전하는 공동의 숲'.



no.09

WONJU



KTX MAGAZINE

뮤지엄 산

박경리문학공원

도래미시장·자유시장·중앙시장

소금산 피톤치드 글램핑장·캠퍼슬로우

모월양조장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치악산

빙하미술관

WRITER 우지경(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김은주

제작 지원 원주시청

지금 여기

철학자가 된 시인 나태주 |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전시 <마크 브래드포드: Keep Walking> | 우리가 몰랐던 스리랑카
우리 술을 빛는 집, 부산의 꿀꺽하우스 | 유네스코 세계유산,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 대구 레트로 여행



철학자가 된 시인 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개관 소식을 듣고 나태주 시인을 만나러 충남 공주로 향했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시를 채집해 시인에게서 태어난 말에는
운율이 실리고, 사람들에게 되돌아간 시는 마음을 위로한다.
그리고 시인은 어린이 같은 시선을 가진 철학자가 된다.

짧고 간결한 나태주의 시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가 세상에 흠어진 작은 감동을
어린이가 같은 시선으로 포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한참 비뚤어진 때였다. 책을 읽지 않는데 텍스트는 험
하고, 책이 팔리지 않는데 도서전 티켓이 매진되는 기
이한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물며 시라니! 과연
우리에게 행간의 여백을 건넨 힘이 있긴 한 걸까. 다정
한 말을 찾아 나태주 시인에게로 갔다. 시인은 꽃에 물
을 주고 있었다. 책이 긴 밀짚모자로 별을 가리고 땀을
흘리며 꽃에게 말을 걸듯 정원을 돌보고 있었다. 잔디
에는 나뭇가지를 구부려 십자 모양으로 포개 우산처
럼 씌워 둔 게 여럿이다. 어디선가 날아와 뿌리를 내린,
시인의 눈에만 보이는 작은 풀꽃을 보호하기 위한 장
치다. 시인의 정원에는 그렇게 바람을 타고 날아와 사
는 식물이 많다.

피카소 그림을 닮은 시

한국 현대 시를 대표하는 나태주 시인은 자연과 인간,
일상에 대한 깊은 애정과 치열한 성찰을 순수한 언어
로 풀어낸다. 시인의 언어는 소박하고 투명하다. 복잡
한 이론이나 추상적 사유보다 사소한 순간, 주변의 평
범한 사물에까지 '생명의 감각'을 부여한다. 특별한 수
사나 화려한 수식이 없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이
한 언어를 사용한다. 시에 쓰는 언어가 본래 말하는 언
어, 곧 입말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짧고 간결한 그
의 시가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에 흠어진 작은 감동을 어린이가 같은 시
선으로 포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시는 피카소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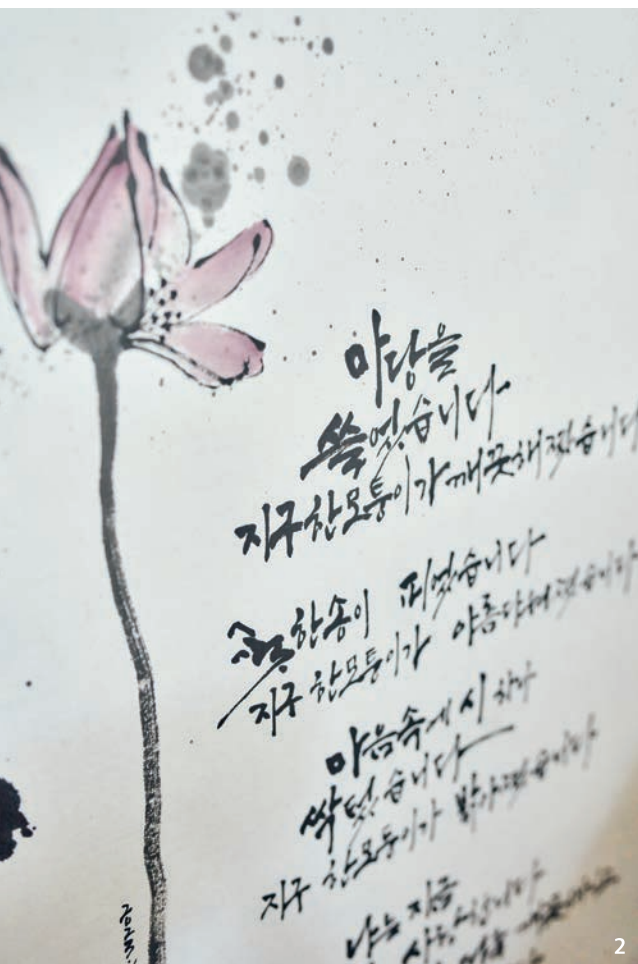
림과 닮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64년부터 43년간 초
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이들의 동심, 자연
의 아름다움, 타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체득했기 때
문일 것이다.

문학의 집, 풀꽃문학관

대부분의 문학관이 전시관 형태를 갖춘 것과 달리 충
남 공주의 풀꽃문학관은 시인의 집 같았다. 1930년대
에 지은 일본식 목조주택은 방과 거실, 부엌, 다락까지
원형 그대로인데, 2014년부터 풀꽃문학관으로 운영하
며 나태주 시인이 소규모 강연을 하고, 찾아오는 관람
객과 담소를 나누곤 했다. 운이 좋으면 시인을 찾아온
문인을 만날 수도 있다. 지난 7월 29일 풀꽃문학관 신
관이 개관했다. 기존 문학관을 산처럼 포근히 감싼 건
물로 문학관 기능의 대부분이 옮겨 가고, 구관은 '시인
의 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풀꽃문학관 신관은 시를 닮
았다. 최소한의 콘텐츠를 전시하고, 나머지 공간은 관
람객이 사색할 수 있도록 여백으로 두어 일부러 문도
만들지 않았다. 나태주 시인은 구심점인 문학을 발미
로 전시를 보고 강연도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고요한 공
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1층 상설전시실에는 시인
이 사용하던 물건과 출간한 시집, 에세이집, 미술품 등
을 전시하고, 평소 도서관처럼 운영할 풀꽃라운지에
서는 금요일마다 시인의 강연이 열린다. 2층은 관람객
이 만들어가는 공간이다.





“만족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노력의 과정을 인정하고 만족하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1 풀꽃문학관 신관에서는 '시인의 집'(구 풀꽃문학관)과 공주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2 풀꽃문학관으로 향하는 길 담벼락에는 나태주 시인의 다정한 말이 적혀 있다. 3 '시인의 집'에는 나태주 시인의 출간 도서와 수집한 미술품이 전시돼 있다. 4 1964년부터 43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시인의 과거를 만날 수 있는 신관 상설전시실. 5 영국 뉴몰든한글학교 어린이 29명이 한 글자씩 정성껏 만든 '풀꽃' 시화. 6 신관 2층에는 관람객이 편히 쉴 수 있는 야외 정원을 마련했다. 7 신관 개관 기념 기획전 <공주 원로 작가 3인전>이 진행 중인 기획전시실. 나태주 시인의 수집품으로 구성했다.

시인을 통해 세상에 나오는 모든 말이 시처럼 들립니다. 시는 무엇일까요?

나의 감정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 시예요. 시가 되기 전 단계를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는 고백이자 하소연이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용납되는 시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고백과 하소연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나도 그렇다’고 느끼고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시를 쓴다는 것은 나의 감정을 언어로 바꿔 너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의 인정이란 감정적인 도움일 수도 있고 삶의 지혜나 지침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지혜가 되고 친구가 되는 시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시란 무엇일까요?

한때 나는 ‘위대한 시는 이발소로 간다’고 말했어요. 옛날 이발소에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가 적혀 있었거든요. 머리를 감거나 면도를 하려고 의자를 찌르면 시선 닿는 곳에 그 시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발소 세대 남성들은 푸시킨의 시를 다 알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괴테와 헤르만 헤세도 같은 말을 했고, 성경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두 인생에 관한 시예요. 좋은 시는 나의 하소연과 고백을 알지 못하고 만나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나의 시를 통해 위로받고 의욕을 갖고 용기 있게 살아가게 돕는 것,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면서 치유를 받는 시예요.

시에 대한 새로운 정의처럼 들립니다. 보통 시와 산문을 나누는 기준을 ‘형식과 표현’에 두니까요.

백석의 시는 산문처럼 썼는데 왜 시일까요. 문장이 축축하게 물기를 머금듯 감정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의 결과를 걸러 정제된 다음 문장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백석의 문장은 ‘물기 머금은 복숭아 꽃대처럼’ 탱탱해요. 시의 문장인 거죠. 이성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현대 시는 건조해야 한다고 하는데, 나는 반대예요. 세상에 건조한 감정은 없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에도 물기가 가득해요. 요즘 시는 감정을 배설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체한 걸 토하듯 배설하고 나면 나는 시원하겠지만, 사실 그것은 오물일 뿐 시가 아니에요.

언어 생활도 같아요. 조롱 섞인 표현이 위트 있는 거라 여겨지고, 따뜻하고 다정한 말은 오글거린다는 말로 막아버리니 언어가 더 건조해지는 느낌입니다.

건조하다기보다 거칠고 약해진다는 표현이 옳아요. 언어가

단순해지는 거죠. 좋으면 ‘대박’, 나쁘면 ‘헐’. 감탄사가 두 개뿐이면 세상은 두 개로 나뉘어요. 중간이 없는 사회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양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시인의 임무가 큼니다. 시인은 사회가 잃어버린 말을 찾아 예쁘게 써 주고, 자기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끌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자기 안에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감정에 따라 감탄사가 달라져야 해요. 남의 감탄사를 따라 한다는 건 아주 불편한 일이에요. 사는 게 복잡하니 대중 크게 그룹을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갈라요. 그러면 어딘가에 속할 수 있고 편하거든요.

외로울 때 시를 통해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시인의 임무가 크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앞서 말했듯 시는 나의 호소이자 고백을 언어로 표현한 건데, 이를 조금 발전시키면 (사람과 사물을 포함한) 너의 입장에서 너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느낀 감정을 시로 써서 ‘네 마음이 이렇지 않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위로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기 많은 꽃이 있어요. 꽃은 저마다 아주 적은 양의 꿀을 가지고 있어요. 벌은 꽃에 다가가 꿀을 모아 꿀통을 채워요. 그런데 꿀은 원래 벌의 것이 아니에요. 벌은 꿀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꽃꿀이 아니라 벌꿀이라 불러요. 벌이 꿀을 모으듯, 시인은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아주 적은 양의 시를 모아 자신의 꿀단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시를 지었으니 돌려줘야 한다는 말씀에, 풀꽃문학관을 찾은 관람객들과 사진을 찍어 주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람들에게 받은 꿀을 돌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시를 쓰고 시집을 만들어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로 돌려주는 것과 문학관을 찾아온 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을 찍어 주는 거죠. 풀꽃문학관 신관을 개관하면서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겼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문학관 ‘풀꽃라운지’에서 강연을 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강연 주제나 대본 같은 건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너’가 된 ‘사람들’과 만나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려고요.

시인의 언어가 순수하기 때문인지 어린이 독자가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귀한 존재지만, 내게는 특히 어린이 독자가 소중한요. 한번은 글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내 시집을 읽어 줬더니 “마술책이다”라고 했다는 독자가 있었어요.



반가운 마음에 다른 시집을 보내 줬어요. 그랬더니 “마술책이 또 생겼네”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시가 마술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모두 시인으로 태어났어요. 어른이 되면서 시를 잃어버린 거죠. <어린 왕자> 서문에 “어린이 시절이 없는 어른은 없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고 적혀 있어요. 첫 문장은 맞는 말이에요. 다음 문장은 주관적이긴 해도 맞는 말이지요.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어린이처럼 사는 사람이다’라고 덧붙이고 싶어요.

풀꽃문학관 신관 개관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부러워하는 외부 시선과 달리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유지·보수를 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큼니다. 유지·보수에는 물리적 측면뿐 아니라 콘텐츠도 포함돼요. 살아 있는 시인이 문학관을 연 것에 대한 부담감도 굉장히 커

요. 아주 힘들다는 표현을 ‘불편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상태죠. 풀꽃문학관을 찾는 이들이 문학을 매개로 잠시 쉬면서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정서적인 충족감과 위안을 얻어 치유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KTX매거진>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를 읽는 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부자가 되고 싶고,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고 싶을 때는 시를 찾지 않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시를 찾죠. 시는 마음의 결핍된 부분을 채워 주거든요. 각자 만족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연습해 봐야 만족되지 않을 테지만 연습이라도 해 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만족하는 연습은 체념과 달라요.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연습은 노력하는 거니까. 노력의 과정을 인정하고 만족하며, 실패하더라도 괜찮다고 자기를 위안할 필요가 있어요.

아메리칸 뷰티

K-뷰티의 고장 서울이 LA에서 온 무지갯빛 카펫으로 뒤덮였다. 올 하반기 기대작, 마크 브래드포드의 전시를 보려면 반드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밟고 지나가야 한다.



더러운 구둣발로 아름답고 소중한 무언가를 짓밟는 건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그게 100억 원에 달하는 고가의 미술품이라면 더욱더. 8월 1일부터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마크 브래드포드: Keep Walking>에서 작가는 이 불경한 행위를 작품의 일부로 기꺼이 허락한다. 동시대 미술을 대표하는 마크 브래드포드의 작품은 크리스티, 소더비 등 미술품 경매 사이트에서 약 700만 달러에 팔리고 있다. 거리의 전단지와 신문지 등을 알록달록한 긴 띠의 형태로 재단하고 노끈으로 이어 붙여 600여 제곱미터 바닥 전체를 덮은 ‘떠오르다(Float)’(2019)는 이번 전시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으로, 전시를 보기 위해선 관람객이 반드시 이를 밟고 지나가야 한다. 물론 브래드포드는 경건한 장소나 집 안에선 신발을 벗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전통에 대해 잘 알고 있다. LA 한인타운에 사는 그에게 한국은 낯선 나라가 아니다. 작가에게 중요한 건 관람객의 신체가 개입된다는 점이다. 전시 도록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작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예술 작품을 밟고 서는 데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소위 말하면 ‘작품’을 훼손하는 것 또한 원했습니다. 몇몇 관람객은 바닥에 누워서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그는 힘의 논리에 의해 소외된 평범한 사람들과 잊힌 이름들을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만든다.



‘떠오르다’(2019)는 작가가 작업실 주변에서 수집한 도시의 부산물을 재단해 만든 작품이다. © 아모레퍼시픽

LA 키드의 생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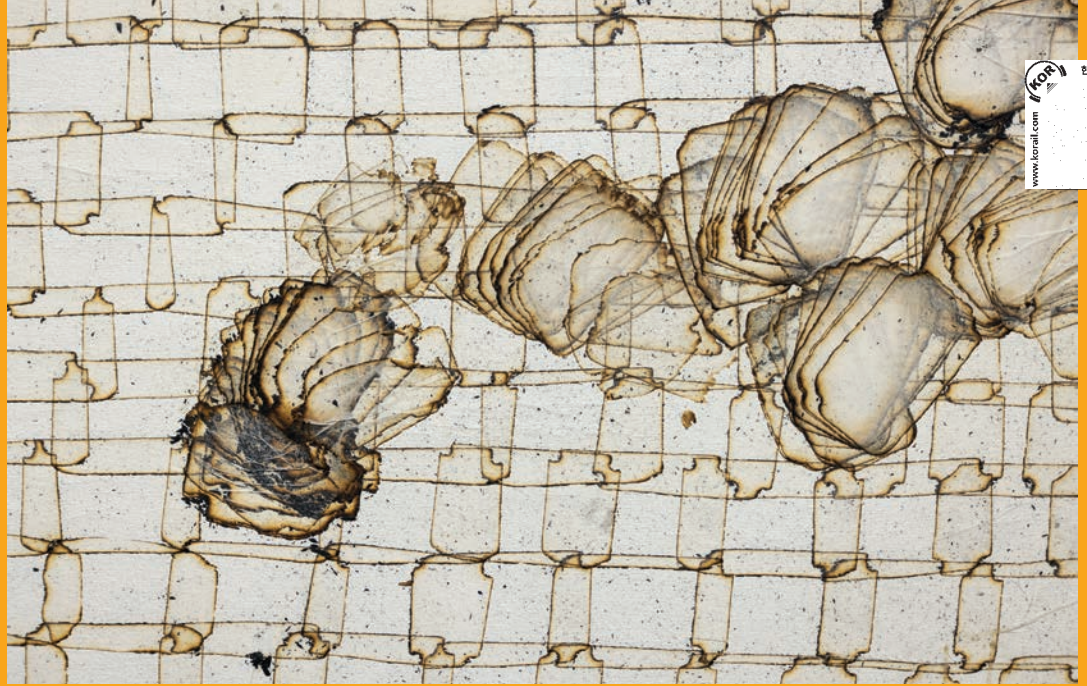
천사들의 도시 LA(Los Angeles의 ‘Angeles’는 천사를 뜻한다)에 사는 흑인 게이 남성, 그리고 예술가. 누군가를 단 몇 글자로 정의하는 건 무례한 일이겠지만 브래드포드의 작업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미국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 그는 주류 서사에서 배제된 이들을 조명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백인 남성 중심의 서양미술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이번 전시에서는 1970년대 다운타운 풍경과 클럽 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기억을 2025년 서울 한복판에 소환한다. ‘사회적 추상’이라 불리는 그의 작품은 미국 내 흑인 대중문화, 그리고 작가의 개인사와 맞닿아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인 브래드포드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도시 하층민이 모여사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했다. 동네의 여느 미용실처럼 주부들의 일상적 대화가 오가던 이 평화로운 비무장지대는 남다른 감수성을 지닌 소년에겐 일용할 양식을 주는 일터이자 가장 친밀한 장소이며 영감의 원천이었다.

작가의 초기 연작 ‘엔드 페이지’ 역시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파마용 반투명 종이(End paper)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서툰한 삶에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에 입학한 그는 졸업 전시에서 자신에게 익숙한 미용실 재료인 파마 종이로 그림을 완성했다. 습자지처럼 얇은 종이를 캔버스에 겹겹이 쌓아 격자 구조를 만들고, 염색약

여러 개의 구체로 구성된 ‘그는 제너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2019)는 불탄 대륙과 바다를 통해 파편화된 세계를 시각화했다.



미용실에서 파마할 때 쓰는 얇은 반투명 종이 ‘엔드 페이지’를 겹겹이 붙이고 태워 만든 회화.





작가의 모습을 담은 조각 '데스드롭'(2023)과 '엔드페이퍼' 연작이 전시된 모습.

거리에서 일상의 잔재를 수집해
이를 작품화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자전적 서사는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중첩된다.

부동산 광고 전단지(의 문구를
차용한 '명백한 운명'(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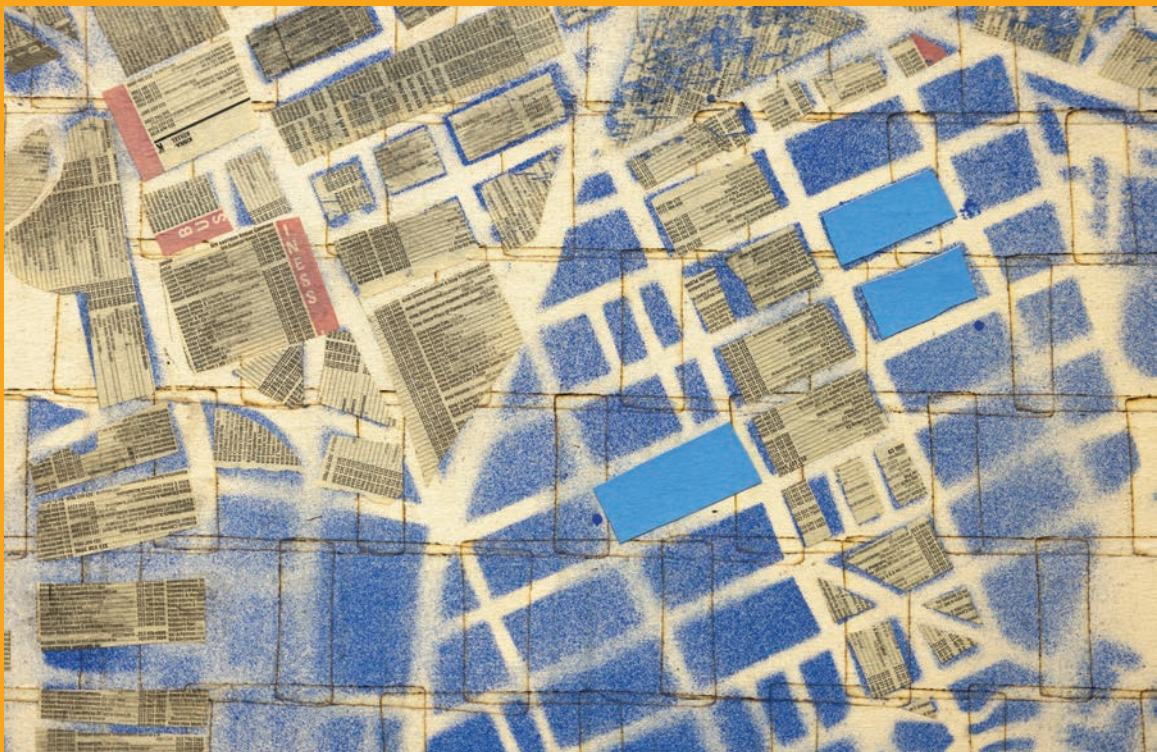


과 안료를 혼합해 층층이 색을 쌓은 이 작업은 기존 회화에서는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것으로 곧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다. 그는 미용사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붙이고 지지고 볶는 것처럼 종이를 쌓아 붙이거나(콜라주), 종이를 찢고 떼고 태운다(데콜라주). 때로는 상업포스터나 전단지, 신문, 잡지 등 불투명한 재료를 물에 적서 페인트처럼 흐르게 만들어 이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와 매일 걷는 거리에서 일상의 잔재를 수집하고, 콜라주와 데콜라주 기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자전적 서사는 도시와 지역공동체의 역사와 중첩된다. 브래드포드의 새로운 추상화는 형이상학적 가치를 추구하던 기존 추상화와 달리 현실 세계에 온몸을 높히고 큰 소리로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불안한 동네(The Hood is Moody)'(2003)에서 격자 구조로 짜인 그림 속 풍경은 지역사회에 정서적 불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암시한다. 또 파란색 스텐실로 도

시 지도를 그리고 신문 조각을 겹쳐 구역을 형상화한 '파랑(Blue)'(2005)과 최근의 '엔드페이퍼' 연작은 평면을 가로지르는 선을 통해 도시의 교통망이나 도로, 수도 시설 등 도시계획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을 나누고 지역공동체의 빈부 격차를 극대화하는지 보여준다. 또한 "조니가 집을 삽니다(Johnny Buys Houses)"라는 부동산 광고 문구가 흐리게 보이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2023)은 땅을 빼앗긴 19세기 미국 원주민 역사와 오늘날의 첼트리페케이션을 병치시킨다. 집을 둘러싼 투기 자본과 계층 간의 갈등은 지금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민의 삶은 하드코어하다.

전설의 드래그 퀸과 춤을

브래드포드는 NBA 농구 선수만큼이나 키가 크지만 그는 스포츠보단 춤을 좋아한다. 스스로를 '꽤 팬찮은 댄서'였다고 평하는 그는 볼룸 문화(Ballroom Culture) 전성기에 학창 시절을 보냈다. 볼룸 문화는 1970년대에 뉴욕에서 시작된 아프리카인, 라틴계 성소수자들의 하위문화로 이들은 드래그 쇼나 댄스대회에 참가해 패션과 퍼포먼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한다. 슈퍼모델 포즈를 연상시키는 보잉 댄스, 런웨이 워킹 같은 퍼포먼스 등에서 '걷기(Walking)'는 중요한 요소다. 앞서 언급한 무지갯빛 카펫 '떠오르다'위를 걸어서 통과한 관람객은 작가를 본뜬 조각과 만나게 된다. '데스드롭(Death Drop)'(2023)은 볼룸 퍼포먼스 중 하나로 한쪽 다리를 구부린 극적인 동작이 특징이다. 패딩 점퍼 차림에 나이키 운동화를 신은 채 바닥에 드러누운 조각의 모습은 마치 살인 사건 현장의 한 장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파란색 스텐실로 지도 형태를 구현하고 흑백 신문지를 붙인 '파랑'(2005)을 가까이에서 본 모습.



콜라주와 데콜라주 기법을 동시에 이용한 회화 작업.



20세기 초, 차별을 피해 이주한 흑인 600만 명의 대이주를 소재로
기차 출발 시간과 지명을 담은 '기차 시간표' 연작.

댄스 플로어는 가장 안쪽의 전시실로 이어진다. 어두운 방 안에는 미국 최초의 쿼어 인권 운동가이자 드래그 퀸인 윌리엄 도어시 스완이 있다. 노예로 태어났지만 영원한 여왕으로 남은 그는 국가와 시대에 저항한 선구적 인물이다. 브래드포드는 스완의 서사를 2005년의 카트리나 대참사와 연결 짓는다. 당시 초대형 허리케인으로 미국 뉴올리언스의 제방이 붕괴하면서 도시의 80퍼센트가 물에 잠겼고 이재민들은 한동안 메르세데스-벤츠 슈퍼돔에서 함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많은 사상자와 피해를 남긴 이 사건은 국가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정과 인종·계급 간 갈등, 경제적 격차가 만들어 낸 인재이기도 했다. 브래드포드의 신작 '폭풍이 몰려온다(Here Comes the Hurricane)'(2025)는 21세기의 문제적 상황과 그 대안을 제시한다. 허리케인이 핏빛고 간 듯한 흔적이 남은 검은 벽지에는 스완의 형상을 투영한 그림과 함께 영문 가사가 적혀 있다. 케빈 제이지 프로덕스의 'Here Comes the Hurricane Legendary Katrina'다. 이 곡은 한때 인터넷 밈으로 유행하기도 했는데, '카트리나'라는 반복적인 랩 가사에 맞춰 춤을 추는 해외 영상들이다.

작가는 미술관을 불안하고도 매혹적인 클럽으로 변모시킨다. 전시가 열리는 장소와의 매칭도 흥미롭다. 아모레퍼시픽의 전신 '태평양'은 해방 이후 한국 뷰티 시장의 역사와 함께한 기업이다. 태평양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놓인 가장 넓은 바다이기도 하다. K-뷰티의 성지에서 만나는 브래드포드의 아메리칸 뷰티. 물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미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 1980년대의 에이즈 대확산과 쿼어 공동체, 인종 갈등 같은 민감한 문제부터 마릴린 먼로의 영화, <왕좌의 게임> 같은 소소한 팝 컬처까지. 비록 에디 머피의 스탠드업 코미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낸시 윌슨의 감미로운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해도 전시 자체를 즐기는 데 큰 무리는 없다. 일단 스펙터클한 풍경이 펼쳐질 테니까. 브래드포드가 한국 관람객에게 바라는 건 간단하다. 전시 제목 'Keep Walking'처럼 그냥 계속 걷는 것이다. 브래드포드는 자신이 준비한 무지갯빛 아메리칸 드림을 가까이 밟고, 느끼고, 춤추라고 말한다.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연약한 것들에 경의를!



스탠드업 코미디 형식을 차용해 사회적 고정관념을 풍자하는 영상 설치 작품 '스파이더맨' (2015).

역사적 쿼어 인물의 삶과 역대 최악의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빙자시킨 '폭풍이 몰려온다'(2025).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

한국에서 개인전은 처음이지만 그의 이력은 이미 화려하다. 2009년 일명 '천재들의 상'이라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한 데 이어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미국관 대표 작가, 2021년 <타임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 2024년 영국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의 '파워 100' 등에 선정되었으며 세계 유수의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처럼 눈부신 예술가로서의 명성이 '흑인, 쿼어, 도시 하층민'이라는 그의 정체성과 계층적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브래드포드의 초기작부터 신작까지 40여 점을 망라한다. 독일 베를린의 함부르크 반호프 현대미술관이 주최한 순회 전시의 일환으로 2026년 1월 25일까지 이어진다.

Discovering

우리가 몰랐던 스리랑카



Sri Lanka

실론으로 불리던 옛 시절, 서구의 눈은 스리랑카를 이렇게 형용한다.
신비로운, 황홀한, 성스러움으로 가득한 보물섬.
그 피상적인 인상을 뒤로하고 진짜 스리랑카를 찾아 나섰다.





1 스리랑카 서핑 챔피언, 렉키.
2, 4 갈레에는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식 건축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3 웰리가마에는 가성비 좋은 서핑 스쿨이 많다. 5 선베드와 방갈로를 갖춘 해변 카페, 서핑 습이 물려 있는 웰리가마 비치.



스리랑카 바다의 새 주인 웰리가마와 갈레

스리랑카 남부의 해변 도시, 웰리가마를 상징하는 장면의 주인공은 바다 위, 가냘픈 장대에 꼭예사처럼 앉아 물고기를 낚는 스틸트 피셔맨(Stilt Fisherman)이었다. 지금 스리랑카에서 이런 풍경을 만났다면 집중팔구는 관광객에게 팁을 받고 연출한 장면이다. 어부가 사라진 바다는 서퍼들이 채우고 있다. 구글 맵에 웰리가마 비치를 찍고 달리다 보면 해변에 즐비한 서핑 스쿨이 시야에 들어온다. 출발 전 가이드에게 “나 오늘 서퍼 꼭 만나야해. 무조건!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건 아니겠지?” 하고 수선을 떨었던 것이 무색하게, 온갖 나라에서 모여든 서퍼들과 무수한 서프 숍이 해변과 바다를 점령하고 있었다. 가이드와 대화를 마친 후 서너 곳의 서핑 스쿨 직원들이 “보드도, 슈트도, 샤워장도 다 있어. 서핑 한번 하고 가”라는 말로 던지는 유혹을 겨우 뿌리치고 그가 추천해 준 웰리가마 서퍼들의 아지트로 향했다.

스리랑카 서핑 챔피언이 운영하는 카페엔 그 주인공이 딱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락시타 마두산(Lakshitha Madusan)이라는 본명 대신 ‘렉키’로 불리는 그의 나이는 겨우 열아홉 살. 열한 살 때 삼촌을 따라 처음 서핑을 시작했고, 내셔널 서핑 대회에서 우승해 국가대표 선수가 됐다. 그의 서가에서 발견한 <더 서퍼스 가이드>에 따르면 이 나라에 처음 ‘서핑 트랩’을 온 사람은 미국의 서프 챔피언 러스티 밀러이며, 이는 무려 1964년에 일어난 일이다. 1973년 호주의 서퍼 데이브 피셔와 브루스 웰리가 히카두와에서 환상적인 파도에 반해 정착한 이후 스리랑카 남부 해안은 질 좋은 파도와 한적한 바다를 갈구하는 유럽과 호주 서퍼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부상했다. 로컬들의 서핑 시대는 1993년 히카두와 첫 서핑 대회가 개최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이후 20년 동



안 웰리가마, 히카두와, 카발라나 같은 해변을 중심으로 ‘스리랑카 서핑 신지’라고 부를 만한 문화가 생겨났다. 국내 서퍼들도 발리의 바글대는 해변, 비용과 거리가 부담스러운 하와이나 호주를 피해 웰리가마를 새로운 서핑 여행지로 주목하고 있다. 서핑이 취미가 아닌 이들은 돌고래를 찾아나서는 배에 오르거나 아름다운 산호로 유명한 우나와투나 해변에서 해수욕과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다. 바다에서 실컷 시간을 보낸 후엔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휴양 도시, 갈레의 호화로운 리조트에 짐을 풀다.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식민지였던 흔적이 건축과 유적으로 고스란히 남은 갈레 포트(Galle Fort) 지구는 시간을 잊고 배회하기 좋은 동네다. ‘트로피컬 모더니즘’이라는 건축 사조의 대가 제프리 바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제트윙 라이트하우스에서 하루밤을 보낸 후 세련된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늘어난 페들러 스트리트를 산책하다가 동행에게 뜬금없이 다짐을 말했다. “다음엔 웰리가마에 한 달 정도 지낼 집을 얻을 거야. 그리고 주말마다 갈레에 놀러와야지.”



1

스리랑카대자연의 야성

알라 국립공원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생물 다양성이 높은 나라. 인간의 손길이 덜 닿은 스리랑카 대자연의 야성을 만나러 알라 국립공원으로 향한다. 알라 국립공원 입장 시각은 오전 6시부터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4시에는 출발해야 야생동물이 땀을 피해 죄다 숨어들기 전에 공원에 도달할 수 있다. 승합차에서 오프로드용 지프로 옮겨 타는 순간엔 야생 표범과 그 유명한 스리랑카코끼리를 곧 보게 되리라는 생각에 심장이 배꼽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물소와 사슴과 야생 멧돼지, 그리고 당최 이름을 알아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새들만 보다 보니 기대감이 조금 식은 게 사실이다. 물론 스리랑카는 (과장을 조금 섞자면) 코끼리가 길고양이만큼 빈번히 출현하는 나라이므로 나무보다 키가 큰 수컷 코끼리 한 마리를 멀찍이, 그리고 사파리 투어 지프들이 긴 줄을 이루든가 말든가 초연하게 제 갈 길 가던 야기 코끼리 한 마리를 가까이에서 만나긴 했다. “수십 마리가 무리를 이룬 채 드넓은 초원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라는 문장을 내 경험으로 만들려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했다. 한국에 돌아와 “거기 어땠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다. “정말 평화롭더라. 스리랑카에서 사파리는 명상이나 마찬가지더라고.” 그리고 며칠 전, 이 나라의 야생을 알아본 나의 교만을 깊이 후회했다.

던 코끼리가 미식축구 선수의 기세로 지프에 돌진하는 장면, 창문을 가뿐히 깨고 그 굵고 긴 코를 쭈서 넣어 차안을 거칠게 헤집던 모습, 필사적으로 내쫓아도 다시 끈질기게 따라붙는 근성을 봤다. 이를 보도하던 앵커가 “습격을 받은 호주 출신의 카순 바스나야케가 기지를 발휘해 먹다 남은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을 창문 바깥으로 던진 덕에 현장을 빠져나왔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한 대목에선 등골이 서늘했다. 그 샌드위치와 감자튀김이 담긴 도시락은 보통 전날 머문 호텔에서 사파리 투어를 하러 새벽에 일찍 나서는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거고, 그게 나한테도 있었기 때문이다. 야생은 역시 야생이다.

알라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엔 이런 소개 글이 걸려 있다. “1900년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1938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알라에는 44종의 포유류와 215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표범, 코끼리, 나무늘보, 곰, 삼바, 자칼, 점박이어우, 공작새, 악어 등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스리랑카표범은 알라 국립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이다. 사파리 투어 중간쯤 하늘에서 현금 다발이라도 떨어진 양사방에서 달려오는 차들 사이에 끼여 있었는데 필드 가이드가 “저 숲에서 누가 표범을 봤다더라”고 한 말을 들은 것도 표범과의 만남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크고 사나운 짐승과의 조우는 불발됐지만 나의 감흥을 자극한 건 예상 밖의 것들이다. 난생처음 맡아보는 이름 모를 짐승 냄새, 코끼리가 갓 썩 똥에서 피어오르는 뜨끈한 김, 새벽부터 부지런히 반신욕하는 물소와 나무 그늘 아래서 꾸벅꾸벅 조는 사슴의 게으른 자태. 야생의 지극히 사소한 일상 앞에서 심박은 조용했지만 마음은 호수처럼 일렁였다.

2



3



4

1, 3, 5 알라 국립공원의 매력은 야생의 평범한 일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알라 국립공원은 바다와 맞닿아 있다. 방문하기 좋은 시기는 2~7월이다.
4 스리랑카의 생물 다양성을 잘 아는 전문가 가이드가 포함된 사파리 투어 프로그램을 예약하면 더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

5





무언가를 삼킬 때 목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가 있다. 꿀꺽. 술이든 음료든 다른 무엇이든 ‘꿀꺽’ 삼키는 짧은 순간, 우리는 꽤나 복합적인 경험치를 얻는다. 맛에 대한 경험, 재료에 대한 경험, 그것을 빚어 낸 손길과 시대·문화에 대한 경험이다. 마치 목 너머로 뒤섞여 흐르는 액체 형태의 무언가처럼, 일단 시작된 경험은 자유롭게 모습을 바꾸고 경계를 넘나들며 스스로 영역을 넓혀나간다. 다양성과 유연성 그리고 창의성.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부산 일대에 번진 이른바 ‘크래프트 문화’의 본질이자, 저마다의 영역에서 활약해 온 세 청년이 ‘꿀꺽’이란 단어 아래 의기투합한 배경이기도 하다.

맥주에서 전통주로,
새로운 술 문화를 꿈꾸다

세 갈래 길이 하나로 모인 시작점은 다름 아닌 ‘맥주’였다. 부산에서 수제 맥주를 양조하던 이준표 대표는 양조장 동료로 최승하 이사를, 단골손님으로 이우주 이사를 처음 만났다. 한창 지역을 달구던 수제 맥주의 열기 속에서 자연스레 시장의 성장기와 부흥기를 함께 한 세 사람은 머지않아 새로운 술 문화를 향한 열망을 공유하게 됐다. 맥아와 홉 등 양조의 핵심 요소를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오다 보니 원재료에 대한 갈증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직접 생산자와 소통하며 고른 좋은 재료로 좋은 술을 빚고 싶다는 이 대표의 바람은 이 여정의 방향을 전통주 쪽으로 이끌었다. 최초의 질문은 이러했다. 수제 맥주의 독립성과 창조 정신, 다양성에 관한 화두를 전통주로 풀어 보면 어떨까? “수제 맥

한잔 술이 문화가 될 때, 꿀꺽하우스

경계를 허문 시대, 밀도 높은 다양성의 도시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만의 가양주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대하여.

1 '꿀꺽' 삼키는 모양을 시각화한 꿀꺽하우스의 로고.
2 양조 과정에서 생기는 술지게미를 안주로 활용한 '지게미 된장 회무침'과 감자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옥고감전'. 모든 메뉴는 술과의 공합을 고려해 셰프와 함께 개발한다. 3 유연성과 확장성, 무경계, 연결 등을 키워드로 섬세하게 꾸민 브루 펍 내부. 4 방정아 작가의 동명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욕망의 거친 물결'.



주리는 해외 문화를 경험하면서 얻은 색다른 아이디어가 많은데, 그걸 전통주에 적용하면 재미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접목해보자는 생각으로 우리 술 장르를 시도하게 됐어요.”

새로운 술 문화의 거점으로 부산 광안리를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심 속 해변 특유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서와 광안대교의 야경을 휘젓는 낭만, 지역민과 여행자가 함께 호흡하는 문화 생태계야말로 오늘날 광안리를 대변하는 수식어일 터이다. “사실 부산의 문화적 특성 중 저희와 부합하는 게 좀 많아요. 지역성과 글로벌성이 공존하고, 바다와 산이 공존하고, 어떤 지역은 굉장히 투박한데 또 어떤 지역은 무척 세련된 모습이죠. 특히 광안리가 그렇거든요. 1인 가구와 외국인 가구도 많고요. 그런 다양성이 저희가 만들고 싶은 술의 방향과 닿아 있었어요.”

전통주와 수제 맥주 문화 그리고 광안리. 세 사람의 고민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로 이어졌다. 단순히 술만 빚는 양조장이 아니라, 술과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문화적으로 소통하는 주막 같은 공간이 필요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 소비자

에게 가장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도 컸다. 고민의 해답은 브루 펍이었다. 그리하여 2022년 여름, '꿀꺽하우스'라는 이름을 내건 양조장 겸 펍이 광안리 해변 인근에 문을 열었다. “우리 술의 기반은 가양주 문화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우리 술을 빚는 우리만의 집’을 만든 셈이에요.” 탁 트인 통유리창 사이로 계절과 술이 나란히 익어 가는 이 집에서 이대표는 양조와 운영, 최 이사는 기획과 브랜딩, 이 이사는 사업과 수출을 책임진다. “처음부터 모든 인원이 현장에서 협업하며 서로의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생각을 동기화하려 노력했어요. 여러 분야의 일을 보고 배우면서 얻는 경험 역시 본인의 자산이 될 테니까요. 이런 게 크래프트 문화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술에 깃든 사람·지역·시대의 이야기

전통주와 수제 맥주의 만남은 양조 과정에서 특히 눈에 띈다. 보통 전통주는 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하는데, 그안의 수많은 미생물이 자연 발효를 거치며 매우 복합적인 맛과 향을 낸다. 이런 복합성이야말로 전통주의 특징이자 강점이지만, 그만큼 환경에 예민한 탓에 늘 균일한 맛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대표가 전통주와 맥주 양조 기법을 합친 방식으로 술을 빚는 이유다. 우선 맥주 공법을 활용해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누룩을 더해 특유의 복합적인 풍미를 살린다. “전통주 제조의 경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지식이 많잖아요. 조금씩 데이터를 정리하고 또 개척하면서 저희만의 술을 만들어 간다는 게 굉장히 기쁘고 재미있는 과정이에요.”

하나의 술을 완성한 뒤 여러 변화를 덧입히는 게 아니라 모든 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기획한다는 점 역시 전통주보다는 수제 맥주의 특성에 가깝다. 실제로 꿀꺽하우스의 술은 어느 하나 비슷한 스타일이 없다. 재료와 효모 종류도 다르고 활용하는 기법도 제각각이다. 다만 한 가지, 쌀만큼은 김해의 창년 농부와 협업해 양조 전용으로 재배한다. “저희 술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 가장 기본이 되는 쌀은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지는 마음이었죠. 맛이나 질감에 관해 여러 논의와 실험을 거듭하면서 우리 술에 적합한 쌀을 함께 찾아가고 있어요.”

결국 술은 사람과 삶, 시대상을 반영한다. 기획자이자 양조자로서 이들에게 중요한 가치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대추로 술을 빚는다면 ‘요즘 정말 맛있는 대추는 어디에서 나는지’ ‘우리가 좋아하는 시나몬 물이나 추로스 맛을 술로 구현해 볼





1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깃든 무언가를 찾아내
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순 없는지’ 같은 동시대적 관심사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접목
하려 애쓴다. 그렇게 완성한 제품이 밀양 단장 대추와 시나몬
을 결합한 ‘대추겉절이’다.

한편 지역 화가인 방정아 작가와의 협업 역시 꿀격하우스만의
색깔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보통 술과 예술의 만남은
라벨이나 패키지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순수하게 작품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술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육망의 거친 물결’
은 유독 특별하다. 유자와 스피어민트로 켜한 산미를 살리
고, 파도처럼 거친 질감을 더한 이 탁주는 동명 작품의 색깔은
물론 이름의 뉘앙스, 작가의 술 취향 등 무수한 요소를 담은
결과물이다.

“한국의 제철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 확실히 맛에 대한 공감대
가 깊다고 느껴져요. 최근엔 우리 밀에 참깨를 넣어 ‘고소했밀’
이란 술을 빚었는데, 뜻밖에 깨송편 맛이 나서 추석 즈음에
마시면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꿀격하우스의 술에
담긴 지역성이란 재료 자체보다는 그 재료나 맛이 지닌 공감
대에서 기인한다. 어울리지도 않는 특산물을 집어넣고 ‘부산
의 술’이라 호소하는 대신, 여러 분야의 지역민들과 대화하며
창작의 영감과 아이디어를 얻는다. 더덕과 메이플 시럽을 조



3



4

합한 ‘더덕캐냈네’ 역시 더덕으로 술을 만들고 싶다는 지역 어
르신의 사연에서 출발한 술이다. 이 대표가 단 한 번도 술의 재
료로 생각하지 못했던 더덕은 오랜 기획 끝에 어린 시절 어머
니가 만들어 준 더덕 요구르트 맛의 탁주로 재탄생했다. “다
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깃든 무언가를 찾
아내 술로 표현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다 보면 젊은 세대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술 하나로 통합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전통주의 장점이겠죠.”

현재 꿀격하우스는 시즌마다 대략 10종의 술을 선보인다. 정
규 라인업은 ‘정오, 혼자가 아닌 나’ ‘광안밤’ ‘육망의 거친 물결’
‘달그락’ ‘더덕캐냈네’ 등 다섯 가지다. 나머지는 한정판으로 시
즌에 따라 조금씩 구성이 달라지는데, 재료가 계절을 타기도
하지만 매해 이들의 관심 분야가 바뀌는 까닭도 있다. 이렇테
면 곡물에 유독 관심이 많은 해에는 쌀의 도정률이나 로스팅
방식을 집중 탐구해 신제품을 구상하는 식이다.

우리만의 가양주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영감을 모으고 이야기를 발표시키며 꿀격하우스가 하루하
루 쌓아 온 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양주 문화’다. 물
론 가양주에 대한 해석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저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이 시대를 우리 술로 표현하는 것”이자
신들의 역할이라 이야기한다. 과거 우리가 쌀과 함께 먹었던
반찬이라면, 적어도 우리 안에 그 맛과 문화에 대한 경험치가
있다면 어떤 식재료도 우리 술의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터. 오
히려 재료보다 우선하는 기준은 여정 자체가 주는 즐거움의
농도다. 꿀격하우스는 어떤 술이든 만드는 사람이 즐거워야
마시는 사람도 즐거울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꿀격하우스
가 여러 문화 예술 분야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궁리하는 것도
도전하는 데 대한 설렘과 희열, 자신들의 폭넓은 관심사 때문
이다. 지난해에는 백현진 작가와의 협업을 기념하며 작가의
노래인 ‘모과’를 술로 표현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하나막걸리
와 함께 ‘에브리명 베이글’ 맛이 나는 막걸리를 기획해 뉴욕과
부산에서 동시에 선보이기도 했다. “지금은 예술뿐 아니라 술
과 결합한 음식이나 음악, 무용 등 각종 영역에서 협업을 시도
하는 단계예요. 아직은 좀 막연하지만 문화과의 만남도 고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 모든 장르를 결합한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돌이켜 보면 세 사람의 지난 3년은 끝없는 실험과 도전의 연속
이었다. 술과 요리를 개발하는 틈틈이 팝업 행사를 열고, 발

1 다양한 술 외에도 김해 도예가인 이용무 작가와 협업해
제작한 주병과 잔, 직접 기획한 각종 굿즈를 함께 선보인다.
2 늘 계절과 함께 술이 익어 가는 양조장 내부. 3 바 좌석이
불편한 손님을 위해 여러 형태의 테이블을 마련했다.
4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어간장 들국수’와 쌀로 오렌지
주스를 표현한 탁주 ‘정오, 혼자가 아닌 나’. 직접 달인 어간장과
들기름, 들깨의 풍미가 막걸리의 은은한 단맛과 조화를 이룬다.

꿀꺽하우스가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건
몇 종류의 술 너머, 시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경험의 씨앗이다.

효 세미나와 양조클래스, 페어링 모임도 꾸준히 진행했다. 이
들이 빛은 술을 맛보려고 국내 다른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적지 않다. 꿀꺽하우스가 목표하는
다음 단계는 좀 더 소비자가 많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 다만
더 넓은 시장에서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건네고 싶은 건 몇 종
류의 술 너머, 시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경험의 씨앗이다. 이
들이 꿈꾸는 해외 진출의 결과물이 단순히 ‘꿀꺽하우스도쿄’
나 ‘꿀꺽하우스 뉴욕’ 같은 형태만은 아니라는 의미다. “사실
하나막걸리와 협업하는 것도 직접 뉴욕에 가지 않으면서 우
리 문화를 그곳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 술을 마시거나 우리의 스토리텔
링을 접하면서 결국은 한국을 경험하고, 부산을 경험하는 것
이라 봐요.” 지역의 야생 효모를 채취해 일명 ‘부산의 효모’를
개발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앞으로 꿀꺽하우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
요. 지금은 우리 술이란 장르가 너무 재미있고 해야 할 일도
많아 열심히 도전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쌀로 빚은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요.” 이제 막 씨앗을 뚫고 나온 줄기가 어떤 방향으로 뻗어 나
갈지, 어떤 꽃과 열매를 맺으며 얼마나 큰 숲을 이룰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마치 ‘꿀꺽’ 삼키는 순간 시작되는 맛의 경험이
어떻게 변하고 확장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다만 분명한 건 꿀
꺽하우스가 시대와 문화,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끊임없이 길
을 닦고 문을 낼 거라는 사실이다. 우리 삶에 깃든 술한 낮과
밤이, 지금도 술과 함께 익어 가는 무수한 이야기가 바로 그
문 너머에 있다.



이준표 대표



이우주 이사



최승하 이사



금강송 기운 품은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금강송 고목으로 둘러싸인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을
걸으며 경북 울진의 숨결을 오롯이 느껴 본다.
숲의 향을 듬뿍 머금은 마을에서 마주하는 자연
밥상은 덤이다.

울진군의 깊은 산속, 하늘 위로 쪽뻗은 금강소나무 사이로 신
비로운 숲길이 보인다. 바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 국내 여섯
번째로 지정된 국가숲길로 총길이가 79.4킬로미터에 이른다.
수령 30년부터 600년에 이르는 약 160만 그루의 금강송이
서식해 숲길 대부분이 ‘금강소나무 산림유전자 보호구역’으
로 지정되었다. 이 때문에 사전 예약으로 전문 숲해설가와 동
행하는 탐방만 가능하다.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보부상의 교역로였던 십이령 고갯길
부터 아이들과 함께 걷기 좋은 가족탐방로까지 총 7개 구간
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눈여겨봐야 할 곳은 보부상길. 이름처
럼 옛 보부상의 애환과 노고가 서린 길로 보부상 주막터, 짐반
이 작대기 쉼터 등 당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보부상
길은 생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이곳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산양은 존재 자체로 이곳의 생
태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증명한다.

보부상길 입구에 위치한 두천1리 마을에는 숲의 향기를 담은
‘숲밥 도시락’이 기다리고 있다. 마을 주민이 손질한 제철 식재
료로 정성스레 차린 음식을 맛보면 힘이 절로 솟아난다. 여유
로운 여행을 계획한다면 금강송 향을 품은 두천1리 마을에서
하룻밤 묵어보자. 하루 종일 숲길을 걷고 나서 지친 몸과 마음
을 달래기에 제격이다.



국립자연사정
② 울진자연사정

1 수령 500년에 이르는
금강소나무가 서식하는
울진금강소나무숲길은
생태·역사·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탐방 길이다.
2 짙고 단단한 뿔과 회갈색
털을 가진 산양은 멸종
위기종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숲속에 산다.



1



③ 국립수목원, 강혜중

세잎송마(Cimicifuga heracleifolia var. bifida Nakai)
해발고도 100~160미터 숲속, 그늘지고 축축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한국 고유종이다. 한줄기에 세장의 잎이
어긋나며 잎 가장자리가 톱니처럼 갈라져 있다. 8~9월 무렵
줄기 끝에서 여러 송이의 흰색 꽃이 촘촘히 피어난다.

The poster features a vibrant, stylized illustration of a harbor scene. At the top, a large pink and orange sun or moon is partially obscured by a cable car. Several colorful fish (orange, green, pink) are depicted swimming in the water. A large, stylized white crane or ship's mast is on the left. In the center, a large blue and white ship is shown with a net full of colorful fish. Below the ship, two workers in white uniforms and orange hats are handling crates of fish. To the right, a red vertical band contains illustrations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s (nongak) with people in white and black costumes. At the bottom right, a green and black circular graphic shows a vinyl record with musical notes. The background is composed of large, curved shapes in shades of pink, blue, and black.

MOKPO
2025

PORT
FESTIVAL
2025. 9. 26.(Fri) ~ 28.(Sun)
Mokpo port & Samhak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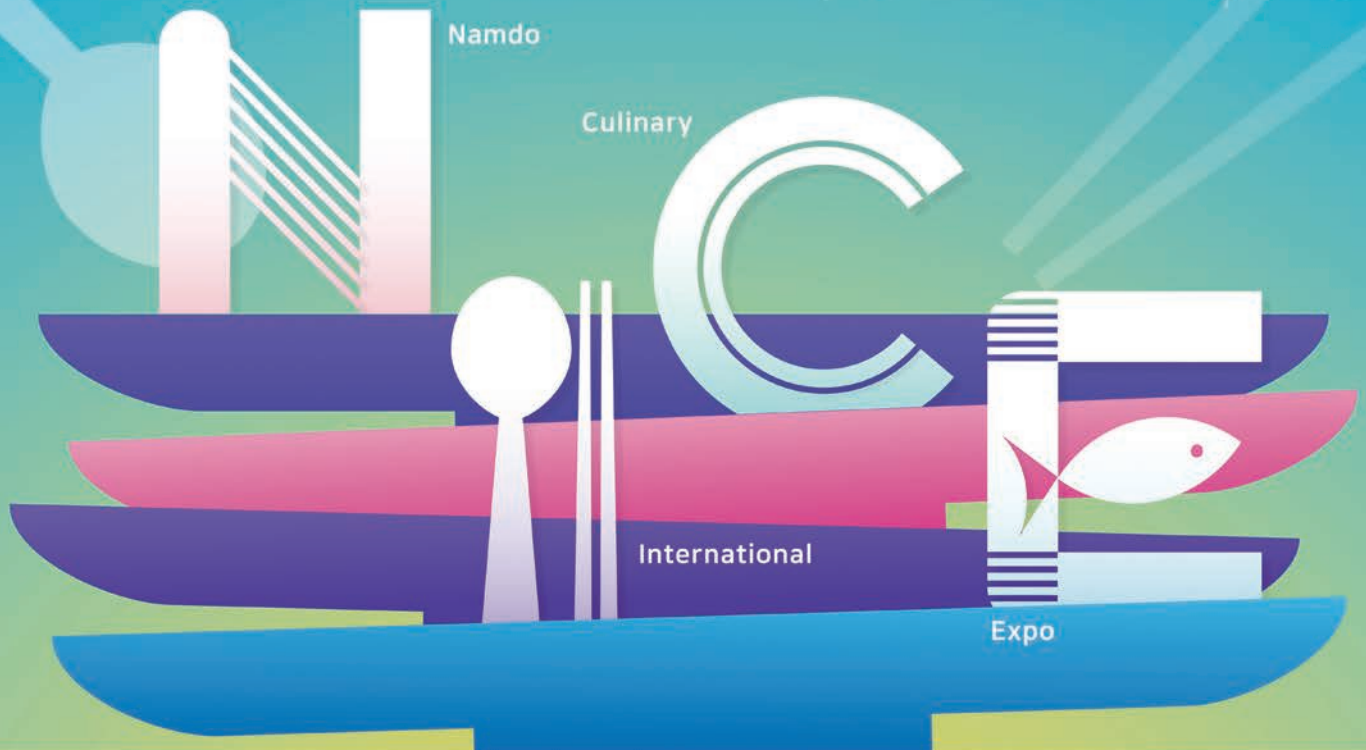
2025 Namdo International
Culinary Expo



남도국제 미식산업박람회

2025. 10. 1. - 10. 26.

목포문화예술회관 / 평화광장 / 원도심 일원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

Where Nature Meets Flavor,
Where Ocean Greets Taste

주최 전라남도

주최 목포시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후원 한국식품산업협회

볼거리, 먹거리, 축제로 가득한

목포

여행가이드





03 지금 목포로 떠나야 하는 이유

04 사진으로 기억하는 도시, 목포시티투어

목포랑시티투어

별빛물결시티투어

08 목포를 맛보다, 제철 해산물 열전

명인집_먹갈치구이·조림

선창횃집_병어찜

선경준치회집_아귀찜·탕

영란횃집_민어회 코스

12 항구도시의 낭만, 가을 축제 가이드

2025 목포항구축제

2025 목포해상W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KTX MAGAZINE

WRITER 이제희(여행 칼럼니스트) • PHOTOGRAPHER 장은주

지금 목포로 떠나야 하는 이유

계절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는 즈음,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광을 좇아 길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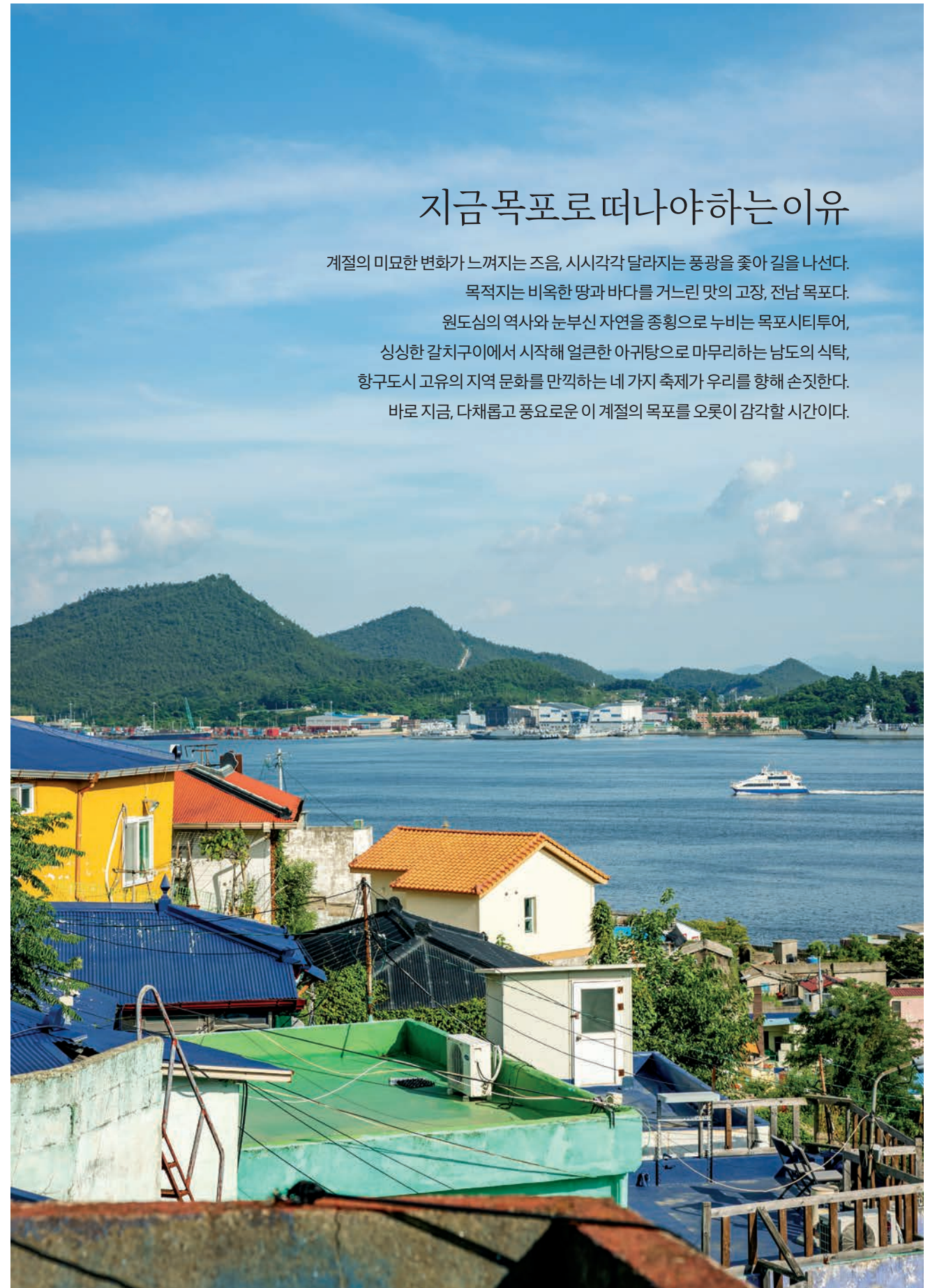
목적지는 비옥한 땅과 바다를 거느린 맛의 고장, 전남 목포다.

원도심의 역사와 눈부신 자연을 종횡으로 누비는 목포시티투어,

싱싱한 갈치구이에서 시작해 얼큰한 아귀탕으로 마무리하는 남도의 식탁,

항구도시 고유의 지역 문화를 만끽하는 네 가지 축제가 우리를 향해 손짓한다.

바로 지금,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 계절의 목포를 오롯이 감각할 시간이다.



사진으로 기억하는 도시 목포시티투어

#SCENE 1 목포근대역사관

목포 원도심 한복판, 근대사의 자취가 어린 붉은 벽돌 건물이 우뚝 서 있다. 1898년 일본영사관으로 지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이다. 훗날 목포이사청과 목포부청사, 광복 후에는 목포시청 그리고 목포문화원으로 역할이 바뀌며 보존되었고, 2014년 보수 공사 후 목포근대역사관 1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도시의 태동부터 근현대사를 통과하기까지 지난한 곡절이 사진, 문서, 미디어처 등 다채로운 전시물에 담겨 깊은 울림을 준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목포근대역사관 2관은 1920년에 지은 옛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에 들어섰다. 일제의 수탈과 아픔을 간직한 이 건물은 이제 목포의 항일운동과 독립운동가의 역사를 보여 주는 교육장으로 거듭났다.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와 얼굴들을 마주하는 순간이다.

주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1관), 번호로 18(2관)
문의 061-242-0340(1관), 061-270-8728(2관)



도시의 매력을 가장 집약적으로 경험하는 방법, 바로 시티투어 버스를 타는 것이다. 낮에는 목포랑시티투어, 밤에는 별빛물결시티투어로 밤낮없이 화사한 목포의 풍광을 사진에 담는다.

#SCENE 2 서산동 시화골목

어떤 길은 그 자체로 한 편의 시가 된다. 유달산 자락에 펼쳐진 오래된 주택가, 알록달록한 벽화와 골귀로 이어지는 서산동 시화골목을 걷다 보면 어느새 가슴 한편에 어촌 사람들의 삶이 흥건하게 흘러든다. 이곳은 2015년부터 약 3년간 목포 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주도하에 주민과 지역 시민이 힘을 모아 조성했다. 마을 어르신들이 손수 쓴 시가 유독 발길을 잡아 끄는데, “옛날 옛날 젊은 시절에/ 남편 가불고 혼자서 애 키웠제”처럼 바닷가 마을의 앞길은 운명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긴 문장에 마음이 몽클해진다. 영화 <1987>에서 주인공 연희가 사는 곳으로 등장하는 ‘연희네슈퍼’부터 전망대 보리마당까지, 이정표를 따라 정다운 언덕길을 누비는 동안 한낮 햇살에 반짝이는 서산동 앞바다가 내내 촉촉처럼 아물거린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127번길 14-2 (연희네슈퍼)
문의 061-270-8599(목포역 관광 안내소)



#SCENE 3 목포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 사이, 오직 목포해상케이블카만 있다. 북항과 유달산, 고하도를 연결하는 장장 3.23킬로미터의 여정에 올라 다도해의 눈부신 풍광을 물새의 눈으로 굽어본다. 하이라이트는 투명한 소재로 바닥을 마감한 ‘크리스탈 캐빈’에 탑승해 바다를 가로지르는 구간이다. 높이 155미터 주탑을 통과하는 짜릿한 찰나, 목포 대교와 도심 풍경이 어우러진 360도 파노라마 전망이 두 눈 가득 밀려든다. 고하도 선착장에 내려 섬을 둘러보는 산책 코스도 근사하다. <난중일기>에 “지형이 매우 좋았으므로 진을 치고 집 지을 계획을 세웠던 곳”이라 묘사된 이 섬에는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 열세 척을 형상화한 전망대가 자리한다. 고하도 용머리부터 유달산 일등바위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경관을 선사하니, 가파른 계단을 오르는 수고를 기꺼이 감내할 만하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양대로 240(북항승강장), 고하도안길 186(고하도승강장)
문의 061-244-2600



#SCENE 1

목포스카이워크와 목포대교

해가 지고서야 본색을 드러내는 풍경이 있다. 목포스카이워크에서 바라본 목포대교와 이 도시의 실루엣이 그렇다. 활처럼 우아한 곡선미를 자랑하는 목포스카이워크는 2020년 유달유원지에 들어선 전망대다. 항만 개발과 매립 등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유달해수욕장 일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랜드마크로 거듭나 여행자를 불러 모으는 중이다. 높이 약 15미터, 총길이 15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에 발을 디디면 상공에서 바다를 조망하는 듯 초현실적 감각에 사로잡힌다. 붉게 타오르던 하늘이 점차 푸르게 젖어 가고, 어느덧 조명이 하나둘 불을 밝히는 시간. 끝내 어둠에 잠긴 바다와 목포대교가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하니 환상성이 한층 짙어진다. 호수처럼 잔잔한 수면 위로 꽃 같은 불빛이 어른거릴 때, 우리 마음도 물결을 따라 일렁거린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양대학교 59(목포스카이워크)

문의 061-270-8599(목포역 관광 안내소)



#SCENE 2

갯바위

아득히 먼 옛날, 아픈 아버지를 부양하던 소금 장수 젊은이가 큰 돈을 벌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 고생 끝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젊은이는 참회의 심정으로 갯갯을 쓴 채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결국 아들과 주검이 된 아버지가 돌이 되어 버렸다는 슬픈 전설이 천연기념물 목포 갯바위 풍화혈에 깃들어 있다. 이 이야기에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사람을 닮은 갯바위 형상이 눈길을 끄는데, 약 8000만 년 전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응회암이 파도에 쓸려 오늘날의 모습이 된 것이다. 갯바위가 자리한 영산강 하구는 해수와 담수가 만나는 길목으로, 풍화작용과 해식작용이 동시에 일어나 이 같은 형태의 기암괴석이 발달했다. 까만 밤, 달맞이공원에서 이어지는 덕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영롱한 조명이 드리운 갯바위의 자태가 한층 처연하고 신비롭게 느껴진다.

주소 전남 목포시 상동 1119-2(달맞이공원)

문의 061-270-8599(목포역 관광 안내소)



#SCENE 3

삼학도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섬에서 육지, 다시 육지에서 섬이 된 땅, 삼학도. 마치 세 마리 학이 앉은 듯한 형상이라 해서 이런 지명을 얻었다. 1960년대 간척 사업으로 육지가 된 삼학도는 2000년대에 들어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다시 섬으로 거듭났다. 복원 공사로 수로를 내고 대삼학도, 중삼학도, 소삼학도 세 개 섬을 조성한 결과다. 이곳엔 전설적인 노래 '목포의 눈물'을 부른 가수 이난영의 이름을 딴 난영공원과 경복화합의 숲이 나란히 들어서 있고, 삼학도공원과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이 볼거리를 더한다. 밤에는 경관 조명을 환하게 밝혀 낮과는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 주는데, 특히 바다처럼 푸른 조명을 사용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외관이 인상적이다. 목포외항부두의 활기찬 분위기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색다른 정취를 자아낸다.

주소 전남 목포시 삼학로92번길 68(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문의 061-245-5660

목포를 맛보다 제철 해산물 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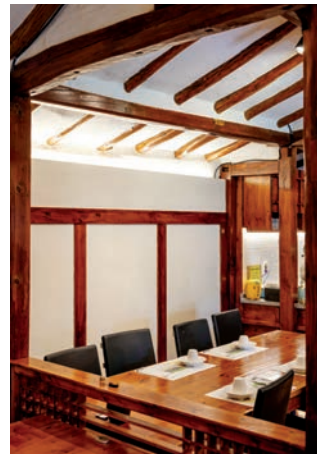


명인집

먹갈치구이·조림

한반도 서남해안 바다 깊은 곳에서 큰 그물로 건져 올린 갈치를 '먹갈치'라 부른다. 그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은빛 표면이 어둡게 바래기 때문이다. 스무 해 넘도록 명인집 주방을 지켜 온 오경단 대표에 따르면, 이 집에선 목포 앞바다에서 잡은 싱싱한 먹갈치만 사용한다. 살이 유난히 두툽한 데다 씹을수록 달고 고소한 맛이 배어나는 게 특징이며 구이로도, 조림으로도 즐길 수 있다. 풍미를 더하는 밀반찬도 일품이다. 짭조름한 풀치(새끼 갈치)조림, 입안을 개운하게 하는 참외 장아찌 등 모든 반찬에 정성이 담백 들었다. 10년째 양조장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니만큼 잘 빚은 막걸리를 곁들여도 좋다. 물과 누룩으로 빚은 신선한 술에 호박·유자·고구마를 넣고 맛을 내는데, 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이다. 이 계절의 정취가 물씬한 한 상이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173번길 45(근대역사관점) 문의 061-244-8308



목포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해산물로 풍성하게 차린 한 상을 즐긴다.
도톰하게 살이 오른 먹갈치와 병어, 민어, 아귀를 제대로 맛볼 시간이다.

선창횃집

병어찜

1978년 식탁 네 개만 간신히 들인 부둣가의 작은 식당으로 출발한 선창횃집은 1대 김점이 대표, 2대 송광순 대표, 그의 딸 한주연·한주희에 이르는 3대가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기나긴 세월과 담당한 손맛이 커져이 쌓인 이 집엔 단골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 그들이 입을 모아 추천하는 제철 메뉴는 병어찜이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병어를 큼직하게 썰어 넣고 물고추와 과일을 갈아 숙성한 양념과 함께 둥근하게 끓여 내니, 칼칼하면서도 은은한 단맛이 올라와 구미를 한껏 돋운다. 양념이 잘 밴 말캉말캉한 어육은 입에 넣자마자 고소한 향내를 풍기며 녹아 없어진다. 숨은 별미 깡다리조림도 놓치지 마세요. 주로 젓갈을 담가 먹는 황석어를 이곳 방언으로 '깡다리'라 한다. 목포 바다의 깊고 농밀한 맛을 품은 메뉴다.

주소 전남 목포시 만호로 6-1 문의 061-244-3708



날카로운 이빨과 커다란 입, 험악한 생김새와 달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내는 아귀는 익히면 살이 한층 탱탱하고 쫄깃쫄깃해져 찜과 탕으로 즐기기에 좋다. 목포항에서 유달유원지로 넘어가는 대로변에 자리한 선경준치회집은 오랜 세월 동안 바닷가 마을인 온금동을 지키며 뱃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 왔다. 유구한 내력은 물론 “직접 잡은 국내산, 자연산 생선만을 사용합니다”라고 써 붙인 차림표부터 믿음직스럽다. 진득한 양념을 머금은 아귀찜, 미나리와 대파를 양껏 넣어 시원하게 끓인 아귀탕이 차례로 식탁에 오르는 순간엔 세상 부러울 게 없다. 넉넉한 양, 깊은 풍미에 마음까지 너그러워진다. 식당 이름에 ‘준치’를 내건 만큼 준치회무침도 반드시 맛봐야 하는 메뉴다. 공깃밥 위에 올려 쓱쓱 비비면 눈 깜짝할 사이에 새콤달콤한 회덮밥 한 그릇을 해치우고 만다.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57번길 2 문의 061-242-5653

선경준치회집

아귀찜·탕



영란횃집

민어회 코스

조선 왕들이 즐겼다는 바다 보양식, 민어. 고문헌에 따르면 기운이 따뜻하고 단백질이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고 식욕을 자극하는 데 주효한 식재료다. 목포에서는 민어를 바닷바람에 말린 뒤 찌거나, 쌀뜨물에 대파·무·열치를 넣고 탕을 끓여 먹기도 한데, 민어 본연의 맛과 향을 음미하려면 역시 회가 답이다. 1969년 개업 이래 ‘민어의 거리’를 대표하는 식당으로 자리매김한 영란횃집은 부레와 겹질, 지느러미 등 질감이 독특한 특수 부위를 모은 민어회 코스로 유명하다. 새콤하고 산뜻한 특제 막걸리 식초 소스를 바른 민어는 유독 혀에 착 감기는 느낌이다. 민어전도 빼놓을 수 없다. 박영란 대표의 지침에 따라 민어전 한 점에 잘 익은 목은지를 둘러 입에 넣고 우물거리니, 담백한 어육과 감칠맛이 자아내는 감흥에 눈이 번쩍 뜨인다.

주소 전남 목포시 번화로 42-1 문의 061-243-7311

항구도시의 낭만 가을 축제 가이드



2025 목포항구축제

조업이 이루어지는 어장에서 형성되는 해상 어시장을 파시라 한다. 1897년 개항한 이래 서남해안의 중심 항구도시로 발전한 목포는 파시의 역사와 명맥을 잇는 행사인 목포항구축제를 열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알려 왔다. 대표 프로그램은 퍼포먼스 '파시 만선이다'와 제철 수산물을 판매하는 '파시 해상 어시장'이다. 가수 이난영의 이름을 따온 '난영가요제'와 바다 콘서트, 항구 디스코 파티, 파시 동전 노래방 등 화려한 무대가 축제의 흥을 돋우는 한편, 경매로 낙찰받은 해산물을 즉석에서 조리해 먹는 '파시 수랏간'과 '파시장터 구이타' 등 체험 부스도 흥미를 자극한다. 화려한 도깨비장터와 파시마켓, 어등터널 미디어 아트가 목포항의 풍경을 한층 풍요롭게 만든다.

기간 9월 26일~28일 장소 전남 목포항, 삼학도 일원
문의 061-270-8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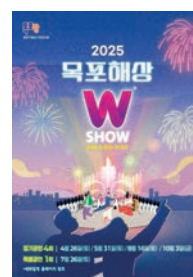
이 계절의 목포 여행은 축제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다.
항구도시의 역사와 문화, 고유한 서정을 담아낸 네 가지 빛깔의 축제를 모아 소개한다.



2025 목포해상W쇼

목포 앞바다를 무대로 열리는 목포해상W쇼가 올해 마지막 공연만을 남겨 놓았다. 2021년 평화광장에서 첫선을 보인 이래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한 목포해상W쇼는 해마다 LED 조명과 레이저, 빔 프로젝터, 무빙 라이트 등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콘텐츠의 진화를 거듭하며 관객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관람료가 무료라는 사실. 그만큼 예매 경쟁이 치열하지만 황홀한 야경과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니 시도해 볼 만하다. 지금껏 주크박스 뮤지컬, EDM 워터밤, K-팝 댄스 등 흥미진진하고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 목포해상W쇼가 어떤 모습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지 기대해도 좋다. 인파가 몰리는 행사이니 만큼 안전 수칙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시 10월 3일 오후 8시 장소 전남 목포 평화광장 해상무대
문의 061-270-2171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깊은 맛과 풍요로운 식문화를 간직한 남도가 한국 미식 산업의 중심점이 된다. '자연을 맛보다, 바다를 맛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과 전통의 미래를 잇는 이번 행사의 개최지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맛의 고장, 목포다. 감칠맛으로 가득한 목포의 식탁이 40여 개국의 요식업계 전문가와 미식 여행자를 불러 모은다. 박람회의 중심은 단연 주재전시관이다. 싱싱한 남도의 식재료를 소재로 한 미디어 아트, 퍼포먼스, 융복합 공연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전남 지역을 대표하는 22개 시군의 대표 식당과 남도 미식 명인의 음식을 만나는 남도미식문화관, 지속 가능성과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비건식품관과 할랄식품관, 세계의 미식 지형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수출기업관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입맛을 돋운다.

기간 10월 1일~26일 장소 전남 목포문화예술회관, 평화광장, 원도심 일원
문의 070-7703-1238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먹의 농담을 이용해 그린 그림인 수묵은 가능성이 무한한 예술적 소재다. 남도 화단의 예술성과 유구한 역사를 잇고자 수묵을 주인공으로 내건 전남국제수묵 비엔날레가 돌아왔다. 수묵의 고아한 정신과 미적 전통을 새롭게 발견하고 계승하는 행사로, 올해는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한 네 번째 막이 오른다. 주 전시는 목포, 진도, 해남에 위치한 여섯 곳에서 열리는데 전광영, 윤준영, 팀랩 등 27명의 작가가 '새로운 자연과 움직이는 수묵'을 주제로 역동적인 수묵의 일면을 보여 준다. 또한 손부남, 첸시 등 35명의 작가가 '수묵 예술의 동시대 가치'라는 가치를 내걸고 역사성을 담아낸 수묵 예술의 가치를 설파한다. 특별전은 전남도립 미술관에서 '블랙&블랙'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기간 10월 31일까지 장소 전남 목포, 진도, 해남 일원(주 전시)
문의 061-280-5867





한반도 선사인들의 창의적 걸작, 울주 반구천의 암각화

수천 년 전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창의적 걸작.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탁월한 관찰력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옛사람들의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자.



우리 땅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염원, 상상력과 예술성이 녹아든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들여다볼수록 경이롭다.

한반도 암각화, 베일을 벗고 세계유산이 되다

울산 울주군 '반구천의 암각화'가 지난 7월 12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를 아우르는 단일 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린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 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선사시대부터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우리 땅에 살았던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과 염원, 상상력과 예술성이 녹아든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는 들여다볼수록 경이롭다.

암각화는 문자 출현 이전, 선사시대 사람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을 말한다. 암각화가 새겨진 곳은 주로 커다란 자연 바위로, 각종 의례를 거행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다. 암각화는 고인돌이나 선돌 같은 거석(巨石) 유구나 제단 시설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에서 암각화가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진 것은 1970년이다. 인근 주민들에 의해 암각화의 존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졌으나, 그 전까지는 선사시대 유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1970년 12월 24일, 울주 지역에서 불교 유적 조사를 하던 동국대학교박물관 조사단이 반구대를 방문했고, 이때 마을 주민 최경환의 안내로 천전리 암각화를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비로소 암각화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졌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울산 울주군 태화강의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 위치한다. 높이 약 4.5미터, 너비 약 8미터의 암각화가 새겨진 중심 바위 면과 주변 바위 면에 300여 점의 그림이 발견되었다. 제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는데, 관련 유물 유적과 비교해 볼 때 신석기시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물개, 물새, 상어, 물고기, 사슴, 멧돼지, 호랑이, 표범, 여우, 늑대 등 20여종의 동물이 새겨져 있다.

그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은 고래. 등에 새끼를 올려놓은 귀신고래, 앞뒤 색이 다른 범고래, 몸집이 유별나게 크고 세로 줄무늬가 많은 흑등고래, 입과 머리가 뭉툭한 향유고래 등 50여 점의 고래 그림이 확인된다. 무려 6000년 전, 울산 바다에 고래가 출몰했고, 선사인들이 고래잡이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울산 태화강과 울산만 주변에 뛰어난 해양어로 문화를 가진 포경 집단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

암각화에는 배와 작살, 그물 등으로 고래를 잡는 모습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작살을 맞은 고래를 잡기 위해 해양으로 나가는 배는 물론, 긴 나무배에 탄 10여 명이 고래에게 작살을 던지고, 잡은 고래를 끌고 가서 살을 발라 내는 모습도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학계에서는 이를 통해 문자가 없던 선사시대에 포경 교육을 목적으로 암각화를 그린 것이라고 추정한다. 고래잡이 단계를 자세히 묘사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는 동아시아 한반도 사람들의 예술성을 잘 보여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산예 ©

1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건너편에 설치된 전망대. 확대경을 통해 암각화를 관찰할 수 있다. 2, 4 울산 울주 태화강의 구불구불한 지류 하천인 반구천 절벽에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가 새겨져 있다. 3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물개, 물새, 상어, 사슴, 멧돼지, 호랑이 등 20여 종의 동물이 새겨져 있다.



2

한산예 ©



한산예 ©

3



한산예 ©

4



© 울산시



© 울산시



© 울산시

1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전망대. 바로 앞에 넓게 자리한 암반에서는 공룡 발자국 화석도 발견되었다. **2, 4** 암각화에는 고래, 거북 등 수많은 동물과 함께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고, 신라 시대 문자 127점도 확인된다. **3**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중심 암면은 상단이 25도 기울어져 비바람을 막아 준다.



© 울산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있다. 자동차로는 10여 분, 돌레길을 따라 걸으면 1시간 남짓 걸린다. 공룡 발자국이 찍힌 암반 근처에 높이 2.7미터, 너비 9.8미터의 거대한 바위가 시선을 사로잡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위 면에 바다 동물과 육지 동물, 마름모와 동심원 등 기하학적 문양 600여 개를 비롯해 수많은 명문(銘文)이 새겨져 있다. 한편에는 신석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동물 그림과 사람이 활을 들고 사슴을 사냥하는 그림이, 위쪽에는 청동기 시대에 새긴 것으로 추정되는 마름모, 원형 등의 추상적인 문양이 배치되어 있다.

또 바위 면에서는 끝이 뾰족한 금속 도구로 신라 시대에 새긴 문자가 총 127점 확인된다. 문자는 중국의 표의문자인 한자이며, 한 글자로 이루어진 짧은 문자에서 10행이 넘는 장문의 문자까지 다양하다. 문자는 언제, 누가, 왜 이곳에 왔는지 등으로 구성되는데, 525년 법흥왕 동생인 사부지갈문왕과 누이가 이곳을 찾아와 '서석곡(書石谷)'이라 이름 짓고, '원명(原銘)'이라 새긴 것이 확인된다. 14년 후인 539년에는 사부지갈문왕의 아내인 지물시혜비와 아들(훗날의 진흥왕)이 갈문왕의 자취를 찾아와 바위 면에 '추명(追銘)'이라고 새겨 넣었다. 이 밖에도 귀족과 승려, 화랑이 이곳을 찾아와 명문과 그림을 남겼다.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의 중심 암면은 상단이 25도가량 앞으로 기울어진 덕분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위 그늘이 비바람으로부터 암각화를 보호하고 있다.



© 울산시

+ 한 걸음 더

울산암각화박물관 2008년 개관한 대한민국 유일의 암각화 전문 박물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서 불과 1킬로미터 거리에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다. 선사미술과 바위 그림에 대한 설명은 기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와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실물을 보는 듯 자세히 관찰하며 공부할 수 있다. 배와 그물, 동물 뼈 등을 통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고래잡이를 했는지 상상하는 것도 흥미롭다. 반구천의 암각화를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탐험할 수 있도록 한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

문의 052-229-4797

홈페이지 ulsan.go.kr/s/bangudae



한산영화제 ©

울주 가을 축제

영남알프스를 무대로 한 산악 영화제와 트레일 러닝 대회, 한우 불고기 축제까지, 울가를 울주에 가야 할 이유가 세 가지나 된다.

1 제10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울가울에도 화려한 막을 올린다. 총 43개국이 참여하며 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작품 110편을 상영한다. 올해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71개국에서 996편이 접수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제 경쟁 부문과 아시아 경쟁 부문 본선에 오른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에 상영한다. 국제 경쟁 부문 선정작 중 2024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공식 경쟁 부문 및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카를로비바리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화제작 <삼발라>를 국내 최초로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공개한다.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다큐멘터리 <걸 클라이머>.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골든게이트 코스를 24시간 자유 등반으로 완주한 에밀리 해링턴의 생존 스토리를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폐막작은 레바논 다큐멘터리 <세상 끝까지, 470킬로미터>로 딸에게 의지와 결단력만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달리는 60세 아버지의 이야기가 감동을 전한다. 영화제 기간 중 9월 27일에는 주한 네팔 대사와 네팔 감독 및 영화배우가 참석하는 '히말라야네팔의 밤' 행사가 열린다. 네팔 영화를 상영하고 네팔 전통악기 공연과 함께 네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음료 부스도 마련한다.

152 기간 9월 26일~30일 장소 울산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 울주시네마



한산영화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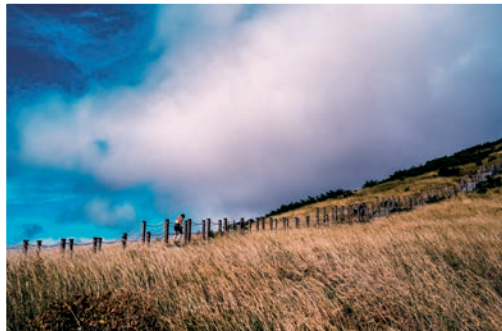
한산영화제 ©

2 2025 울주 봉계 한우불고기축제

울주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한우 불고기 축제가 울가를 한우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봉계 다목적행사장에서 2025 울주 봉계 한우불고기축제가 열리는 것. 품질 좋기로 유명한 봉계 한우를 실컷 맛보는 특별 시식 코너가 마련되고, 한우 직거래 장터가 열려 생산자가 직접 판매하는 봉계 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1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형 행사장에서 열리는 한우 불고기 파티. 봉계 한우 불고기 특구의 한우 전문점 30여 곳이 참여해 뛰어난 불고기 맛을 자랑한다. 축제 기간에는 불고기 만들기 체험은 물론, 지역 예술 공연과 농특산물 전시·판매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기간 10월 24일~26일

장소 울산 봉계 다목적행사장



한산영화제 ©

3 2025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UTNP)

울주 트레일 나인피크(Ulju Trail Nine Peaks, UTNP)는 국내 최고 난도의 트레일 러닝 대회다. 올해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울주 영남알프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대회 종목은 총 6개로 거리와 고도차에 따라 나뉜다. 울주 9피크 코스는 약 122킬로미터, 고도차는 9000미터에 달하며, 울주 지역 주요 봉우리 9개를 모두 연결하는 하이퍼 트레일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키즈 트레일은 약 9킬로미터, 고도차는 700미터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출발해 가을 억새밭과 단풍이 어우러진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달린다. 코스 곳곳에 영남 지역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코너도 마련된다. 참가 접수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인기 종목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다.

기간 10월 24일~26일 장소 울산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일원

강릉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강원도 강릉의 진짜 매력은 밤이 되어서야 빛을 발한다.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경포호수와 흥겨운 월화거리 야시장,
밤에 더 반짝이는 솔향수목원, 별명하기 좋은
안반데기까지 낮보다 아름다운 강릉의 밤을 만나 보자.

1 다섯 개의 달이 뜨는 경포호수

경포해수욕장과 불과 200미터 거리에 있는, 둘레 약 4.3킬로미터의 경포호수는 강릉 여행의 필수 코스. 경포호수는 낮에도 좋지만 해가 진 후엔 또 다른 느낌의 황홀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특히 경포호수를 끼고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한 경포가시연습지는 연꽃밭을 걷는 듯한 몽환적인 느낌을 전한다. 경포호수는 다섯 개의 달이 뜨는 호수로도 유명하다. 하늘의 달, 호수에 비친 달, 바다에 비친 달, 술잔에 비친 달, 그리고 님의 눈에 비친 달. 사랑하는 사람과 다섯 개의 달을 찾으며 걷는 길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경포로 365 문의 033-640-4531

2

해가 지면 흥 내려온다, 월화거리 야시장

월화거리는 강릉역에서 중앙시장, 강릉대도호부관아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강릉을 찾은 여행객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하게 된다. 거리 중앙에 사랑을 상징하는 월화교가 놓여 있는데, 밤에는 화려한 조명을 밝혀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거리 공연과 야간 분수 쇼, 플리마켓도 펼쳐져 활기차다. 특히 지난 5월에 처음 열린 월화거리 야시장은 매주 금·토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출출한 여행자의 침샘을 자극한다. 월화거리 야시장은 10월까지 계속된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11번길 9
문의 033-640-4565



제2지원 강릉시정



3 별빛에 취하다, 안반데기 마을

해발 1100미터 고산지대에 위치한 안반데기 마을. 낮에는 끝없이 펼쳐진 배추밭과 산자락 풍경이 장관을 이루고, 해가 지면 전혀 다른 느낌의 별빛 향연이 펼쳐진다. 은하수, 별자리, 유성이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나는데, 운이 좋으면 맨눈으로도 위성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안반데기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화사 편에 별 사진 맛집으로 나와 더욱 유명해졌다. 감감한 밤하늘에 무수히 박힌 별빛의 황홀경을 경험하면 안반데기의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데기길 428
문의 033-655-5119

4 황홀한 빛의 세계, 강릉솔향수목원

칠성산 자락에 위치한 강릉솔향수목원은 줄기가 붉고 곧게 자라는 금강소나무 집단 자생지로 유명하다. 최근에는 야간 개장을 해 낮과는 또 다른 반전 매력을 뽐내고 있다. 매일 밤 713개의 화려한 조명이 단조로운 숲에 화려한 빛을 입혀 환상적인 장면을 펼쳐 보인다. 금요일은 더욱 컬러풀한 조명으로 방문객의 눈을 사로잡는데, 특히 초록색 조명은 마치 반딧불이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어둠이 내린 용소에서는 빛으로 구현한 용 한마리가 하늘로 솟아오른다.

주소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수목원길 156 문의 033-660-2322

빈티지 아트 포스터 습부터 음악
감상실과 근대 의상 대여 카페까지,
대구역에서 레트로 감성 가득한
여섯 곳을 찾았다.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환승 후 대구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대구 향촌동은 6·25전쟁 후 시인과 화가가 피란살이를 하러 모여들면서 예술 동네가 되었다. 1970년대부터는 수제화 가게가 들어서 수제화 골목이라고도 불렸다. 여전히 구두 장인들이 푹푹딱딱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수제화 골목 안, 옛거리의 정취를 머금은 카페 향촌이 자리한다. 오래된 건물을 빈티지 분위기의 카페로 리모델링했는데, 2층 창문 너머로 경상감영공원의 장독대와 뱃나무가 내려다보여 계절의 변화를 느끼기 좋다. 피낭시에, 다쿠아즈 등 디저트 메뉴도 다양하다. 시그너처 메뉴는 옥수수 소금빵, 옥수수 콩포트,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듬뿍 올린 찹쌀 모나카와 직접 구운 소금빵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카페 향촌에 들어서면 고풍스러운 원피스를 전시한 쇼윈도가 눈길을 끄는데, 이곳에선 근대 의상을 대여해 준다. 특별한 점은 백화점 의류 매장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는 손보화 대표가 어울리는 모자와 액세서리 등을 추천해 준다는 것. 멋진 의상을 입고 향촌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증 사진을 남겨 보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대구 레트로 여행이 될 것이다.



카페향촌

근대 의상 빌려주는 빈티지 카페

주소대구시 중구 중앙대로455-2 문의 0507-1349-8647



이런 곳에 소품 숨이? 가파른 계단을 올라 2층의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물비늘'이란 이름처럼 몽환적인 풍경이 펼쳐진다. 서른 살 되기 전에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던 이보람 대표가 손수 꾸민 공간이다. 힘들 때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다는 그는 가게 이름도 물비늘로 지었다. 물가에 핀 꽃을 상상해 그린 그림이 물비늘의 로고. 방문객이 이곳에서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품을 갤러리처럼 전시하고, 벽에는 이 대표가 좋아하는 시와 사진을 붙였다. 만들고 싶은 소품이 많은 그는 이곳에서 손수 제작한 키링과 티셔츠, 머그잔, 문진 등을 판매한다. 4년 전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마이너 취향의 물건이 팔리겠냐며 걱정했는데 지금은 그 취향을 찾아 여행자가 방문하는 곳이 되었다. 3층에서는 초록 기운을 뿜어내는 식물과 화분도 판매한다.

주소대구시 중구 북성로 98-1 문의 0507-1473-9017



116년 된 건물 2층에 동지를 틈 빈티지 아트 포스터 숍. 처음 이 건물을 보고 나무 천장에 반한 강민우 대표가 최소한으로 리모델링해 매장을 꾸몄다. 패션 업계에서 일하며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아트 포스터와 빈티지 포스터를 큐레이션해 소개한다. 박서보 화백의 포스터, 영화 <펄프 픽션> 포스터, 나가이 히로시의 일러스트 포스터,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의 빈티지 포스터 등 스펙트럼이 방대하다. 국내는 물론 대만, 일본 등 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다. 더 많은 사람이 오리지널 포스터를 감상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인근의 복합 문화 공간 '오픈대구'에서 서울올림픽 공식 포스터 아카이브 전시도 열었다. 정식 라이선스를 통해 발행한 오리지널 포스터를 소장하고 싶다면 노실리컬렉트에 들러 보자. 구경만 해도 눈이 즐겁다.

물비늘

취향에 맞는 소품 가게

노실리컬렉트

소장하고 싶은 빈티지 포스터



북성로 끝자락, 오래된 적산 가옥 2층에 노르웨이의 숲이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동명 소설에서 상호를 따온 이곳은 문학 카페일 바다. 메뉴는 <인간 실격> <데미안> <존재의 이유> 등의 소설이나 <일 포스티노> <탑간> 같은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다. 카페일을 주문하면 책 속 구절이나 영화 대사가 적힌 카드를 건네 준다. 슬램덩크 마니아들 사이에서 노르웨이의 숲은 슬램덩크 성지로도 통한다. 대표가 수년간 수집한 슬램덩크 아이템이 공간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외에 빈티지 소품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세월의 흐름이 느껴지는 달력, 전화기, 선풍기 등이 창가에 놓여 있는데, 옛 방송국 소품실을 방불케 한다. 레트로풍 포토존으로 손색이 없는 이곳은 가끔 인디 밴드의 공연 무대로도 변한다. 노르웨이의 숲 인스타그램에서 미리 공연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다.



1980년대에 대구엔 음악 감상실이 스무 곳 넘게 있었다. 1990년대부터 오디오가 보급되며 점점 자취를 감추었지만, 하이마트 음악감상실은 3대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독일어로 '고향'이란 뜻의 이름처럼 향수를 자극하는 모습 그대로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한 무대 양쪽에 1926년에 나온 영국산 하이엔드 오디오와 탄노이 스피커가 놓여 있고, 그 앞엔 음악 감상용의 자 50여 개가 늘어서 있다. 입장료 8000원을 내면 음료 한 잔(커피, 녹차, 주스, 모과차 중 선택)을 마시며 2시간 동안 음악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하이마트 음악감상실은 이색 데이트 장소로도 유명하다. '뽕'을 타는 두 사람이 이곳에 오면 반드시 커플이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 입장권에 들고 싶은 곡을 써서 주크박스로 건네면 신청곡을 틀어 준다.

노르웨이의 숲

빈티지 수집가의 카페일 바

하이마트 음악감상실

시간을 머금고 소리의 매력

주소대구시 중구 북성로 104-15 문의 053-291-2569



'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복합 문화 여관'을 모토로 한 대화장은 1920년대에 지은 '대화장여관'을 리모델링한 이색 공간이다. 여러 채의 건물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즐길 거리가 많다. 로비 역할을 하는 살롱에 들어서면 '최후의 만찬'을 모티브로 한 스테인드글라스 창 너머로 빛이 투과되어 오색 빛깔로 채워진 공간이 황홀함을 자아낸다. 살롱을 나서면 왼쪽에 팝업 스토어나 공연이 열리는 홈스위트홈이 자리한다. 홈스위트홈 옆 건물 1층에는 대화장사진관이, 2층에는 스몰 웨딩을 진행하는 대화장에식장이 있다. 살롱에는 개성 넘치는 메뉴도 많다. 토마토 속에 부라타 치즈를 넣은 '토마토 콤파스타'와 스페인식 파에야에 매콤함을 더한 '해물 파에야'가 대표적이다. 친구나 연인과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대화장의 대화 카드를 활용해 보자. 대화 카드에 쓰인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에게 한 뼘 더 다가가게 된다.



대화장

아름답고이며 대화할까?



MZ세대 사로잡은 K-무속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괴테가 말했지만 이것마저 세계에 통할 줄은 몰랐다.
한국 토속신앙인 무속이 그 주인공으로, 'K-무속'이라 불릴 만큼 힙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많아졌다.



1 과거 무당의 이미지를 현대 아이들에 접목한 신선한 발상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
2 인간의 몸에 갇힌 이무기와 무녀가 왕가에 얽힌 각종 원귀를 퇴치하는 판타지 로코물 <귀공>.
3 현실의 무속인을 연애 예능으로 소환해 화제를 불러온 <신들린 연애>. 4 MZ세대 무속인의 화려한 세대교체를 알린 <파묘>.
5 21세기 청춘의 문제를 악령과 결합한 <악귀>. 6 무속인과 여고생의 첫사랑이란 이색 조합으로 인기를 끈 <견우와 선녀>.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는다. K-팝과 무속을 결합해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킨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죽을 운명의 소년을 지키려는 무당 소녀의 로맨스로 글로벌 흥행을 누린 드라마 <견우와 선녀>의 인기가 신기하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우리는 오래전부터 대중문화에서 다른 무속 문화에 친숙함을 느껴 왔다. 여름밤이면 <전설의 고향>을 보며 이불 속에서 벌벌 떨었고,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 주술을 쓴 이야기의 사극을 보며 자란 한국인 아닌가. 물론 'K-무속'이란 명칭이 붙은 작품의 기류는 남다르다. 과거 무속 소재 작품은 오컬트 영역이거나 한국인 특유의 정서인 '한(恨)'을 극대화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무속 콘텐츠는 심오함은 덜어 내고 장르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음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무속이 양지로 나온 형국이다.

젊음 입고 발랄함 내세운 K-무속

먼저 MZ세대 무속인의 전면 등장이 돋보인다. 지난해 흥행작 <파묘>의 'MZ 무당즈' 화림과 봉길이 결정적이다. 캔버스 운동을 신은 채 굿판에서 춤추고, 헬스장에서 스피닝으로 체력을 관리하며, 평상시엔 과감한 버건디색 가죽 코트를 입고 '아아'를 마시는 화림의 모습은 기존 무당 이미지를 산산이 깨부수었다. 축경(귀신을 쫓거나 액운을 막는 제문)을 팔뚝에 새기고 뺨을 붉은 헤드폰을 낀 봉길의 이미지와 함께 화림은 젊은 세대에게 다양한 '맘'을 확산시켰다. 악령을 퇴치하는 걸 그룹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탄생한 보이 그룹 '사자 보이즈'의 정체성을 밝히며 세계를 지킨다는 내용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말할 것도 없다. 헌트릭스와 사자 보이즈는 10~20대로 구성된 아이돌 그룹에서 착안, 젊은 세대의 모습과 취향을 반영해 친숙함을 안긴다.

무속과 로맨스의 결합이 도드라지는 것도 K-무속의 특징이다. 물론 무속 기반 로맨스물의 인기는 이전에도 있었다. 왕과 무녀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궁중 로맨스 드라마 <해를 품은 달>과 귀신을 보는 영매 체질의 여자가 운명의 남자를 만나 사연을 지닌 영혼들을 위령하는 내용의 <주군의 태양>이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도깨비와 소녀 사이의 운명적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저승사자와 삼신 같은 한국의 전통적 사후 세계관의 캐릭터를 대거 등장시킨 <도깨비>는 또 어떨고. 그러나 2010년대만 해도 무속인의 정체성을 로맨스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드물었다. <해를 품은 달>의 무녀는 사실 기억을 잃은 세자빈이었고, <주군의 태양>의 주인공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귀신을 보게 된 인물이었으니까.

최근 들어 K-무속 콘텐츠는 무속인을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데 스스럼이 없다. 무당의 운명을 거부하는 무녀 여리가 자신의 첫사랑 몸에 갇힌 이무기 강철이와 사랑에 빠지는 드라마 <귀공>, 여고생 무당 성아가 첫눈에 반한 견우의 목숨을 살리고자 '인간 부작'이 되길 자처하는 <견우와 선녀>가 대표적이다. 첫사랑이라는 애절한 장치를 두어 '무속+청춘물'이라는 하이브리드 형식을 꾀한 점도 신선하다. 한국 연애 리얼리티 예능의 인기원을 열었다 할 만한 <신들린 연애>는 어떤가. 이 프로그램은 현실의 무속인들을 연애 굿판으로 소환, 국내 MZ세대의 뜨거운 호평을 얻어 올해 시즌 2를 해외 62개국에 판매하며 글로벌 관심을 입증했다.

K-무속이 대중문화에서 급부상한 이유

K-무속의 인기 이유는 복합적이다. 먼저 시청각적 즐거움이 있다. 무속의 필연적 요소인 굿판을 보자. "음악과 춤으로 악귀를 쫓는 한국 무속 의식인 굿이야말로 이 영화의 콘셉트와 딱 맞을 것 같았다"라고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의 말처럼, 관점을 바꾸면 굿은 한바탕 신명나는 콘서트다. 형형색색 한복을 입고 강렬한 음악에 맞춰 파워풀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화려한 모습이 단박에 시선을 붙든다. 마찬가지로 신칼과 작두 같은 도검류와 방울, 부채, 오색기 등 각종 무구도 예전에는 두려움과 터부의 대상이었으나, 헌트릭스 멤버들이 무당의 신칼을 무기로 쓰는 것처럼 해외에선 신기한 굿처럼 비쳐져 관심을 샀다.

K-무속의 시청각적 매력에 극대화된 사례는 예능 <월드 오브 스트리트 무먼 파이터>에서 댄스 크루 '범잡이' 선보인 퍼포먼스 '몽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퍼포먼스는 상모돌리기, 부채춤 같은 한국 전통 무용을 바탕으로 쓴 저승사자들이 망자를 황천길로 인도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세계를 뒤흔들었다. 저승사자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갓은 '몽경'뿐 아니라 이미 여러 콘텐츠에 등장해 해외에서 힙한 아이템으로 통한다.

무속이 감정적 교감을 꾀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점도 K-무속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악령을 퇴치하는 것에 그치는 서구권의 구마와 달리 한국 무속은 악령마저 억울한 사연을 들어 주고 천도시키려는 위로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 남다르다. 이런 감정적 교감은 불투명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는 젊은 세대, 계층 이동이 닫힌 사회 시스템에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준다는 분석이다. 무속인들이 직접 유튜브, 틱톡 등 SNS에서 활동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MZ세대가 이를 통해 손쉽게 정서적 힐링을 얻는 현상도 한몫한다. 20대의 78퍼센트가 무종교지만 점이나 타로 상담을 즐긴다는 조사 결과에서 젊은 세대가 무속을 실용적이고 문화적으로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K-무속, 스테디 메가 콘텐츠 될까

비합리성을 상징하던 무속은 한국 민속 문화 및 세계관과 결합해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의 자원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저승사자, 망자의 영혼 인도 등 무속과 사후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 1, 2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공이 좋은 예시다. 기존에 빛을 발했던 오컬트 장르도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는 추세다. 공인중개사인 티마사가 퇴마 사기꾼과 팀을 이뤄 원귀를 퇴치하는 생활 밀착형 드라마 <대박부동산>이나 황금만능주의 시대에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다 악귀에 썩인 청춘을 내세우고 민속학을 결합한 <악귀> 같은 작품이 그러하다. 다큐멘터리 <사만: 귀신전> 같은 콘텐츠도 K-무속의 한 갈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속 문화에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대중의 이해를 넓힌 이 작품은 2024년 첫 공개 후 역대 티빙 오리지널 다큐 중 유료 가입자 수 1위 기록을 경신했고, 최근 시즌 2 제작을 발표했다. 8월 말 방영을 시작한, 12지신 설화를 모티브로 한 액션 히어로물 <트웰브>처럼 전통에 새로움을 접목하는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스타일을 입은 K-무속 콘텐츠가 대중문화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해 본다.

TOURISM



마리아나 관광청, 광복 80주년 기념 한인사 재조명

마리아나 관광청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마리아나제도에 남겨진 한국인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이판과 티니안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휴양지를 넘어 기억과 성찰의 공간으로서 마리아나의 가치를 전했다. 지난 8월 9일에 방송한 KBS1 교양 프로그램 <걸어서 세계 속으로>에서는 사이판에 위치한 태평양 한국인 위령 평화탑과 수중 위령비의 평화 활동을 주요하게 다루어, 전쟁 당시 강제 동원된 한국인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그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홈페이지 mymarianas.co.kr



내 마음과 만나는 시간, 명상 콘퍼런스 ‘밋마인드’

2025 밋마인드(Meet Mind)가 오는 9월 27일 서울시 동작구 소재의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원불교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밋마인드’는 마음을 만난다는 뜻으로, 명상을 통해 현대인의 자기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을 주된 지향점으로 삼는다. 올해는 ‘회복 탄력성’을 주제로 태극권, 미술 치료, AI 명상 등 다섯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명상 콘퍼런스 ‘밋마인드’는 명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인스타그램 @meet._mind



K-팝 스타 지수, 싱가포르 자연 담은 ‘Your Love’ 스페셜 비디오 공개

싱가포르 관광청은 글로벌 K-팝 아티스트 지수와 협업해 두 번째 솔로 앨범 <아모르타주(AMORTAGE)>의 수록곡 ‘Your Love’의 스페셜 비디오를 공개했다. 이번 뮤직비디오는 레인포레스트와 일드 아시아, 싱가포르 동물원 등을 배경으로 싱가포르의 아름다운 자연과 세계적인 야생동물 명소를 담아 지수의 음악적 감성이 돋보이게 했다. 앞서 싱가포르 관광청은 방탄소년단 진, 쿨드플레이, 빌리 아일리시, 영국 일렉트로닉 팝 듀오 혼네 등 글로벌 음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싱가포르를 전세계인에게 소개한 바 있다.

홈페이지 visitsingapore.com

VIDEO

〈어쩔수가 없다〉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한 만수가 재취업을 위한 처절한 전쟁을 시작한다. 이병헌, 손예진, 염혜란 등 연기파 배우들의 만남과 드라마틱한 전개, 블랙코미디가 어우러져 기대를 모은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 이후 3년 만의 국내 스크린 복귀작.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부산에서 최초 공개한다. 9월 개봉.

감독 박찬욱 출연 이병헌, 손예진

〈얼굴〉

도장 만드는 장인으로 이름난 맹인 임영규와 그의 아들 임동환이 40년 전 실종된 아내이자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놀라운 진실을 마주한다.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에는 특유의 날카로운 주제 의식이 담겨 있다. 2018년에 출간한 동명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다. 9월 11일 개봉.

감독 연상호 출연 박정민, 권해효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1920년대 뉴욕의 하이패션계를 대표하는 모델이었다가 종군기자가 된 리 밀러의 드라마틱한 생애를 다룬 최초의 영화.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한복판에 뛰어들어 전쟁의 참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리 밀러 역을 맡은 케이트 윈슬렛이 기획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이끈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높인다. 9월 개봉.

감독 엘렌 쿠라스 출연 케이트 윈슬렛, 알렉산더 스카스가드

〈은종과 상연〉

서로를 가장 동경하면서도 질투하던 은종과 상연의 우정과 갈등을 그린 영화. 10대 때부터 30년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두 사람은 40대가 되어 재회하고, 은종은 상연에게서 자신의 죽음에 동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누구나 한번쯤 느꼈을 법한 친구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떠올리게 한다. 9월 12일 공개.

감독 조영민 출연 김고은, 박지현 제공 넷플릭스

〈신입기자 토롯코〉

문학을 사랑하는 여고생 토코로가 문예부 부장에게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꿈꾸던 문예부 입부를 도와주겠다는 것. 단, 신비주의 작가 코노하의 정체를 밝혀야 한다. 코노하에 대한 단서가 있는 신문부로 잠입한 토코로. 뜻밖이지만 정의감 하나만큼은 투철한 그의 발칙하고도 진지한 모습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9월 3일 개봉.

감독 고바야시 게이이치 출연 후지요시 카린, 타카이 아시아카리



ⓒ (주)영화사 진진



BOOK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4회 철도안전공모전 입선 '기술열차' © 정원우



KTX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APEC 정상회의 준비



한국철도공사가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열차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있다. 먼저 부피가 큰 짐을 보관하는 KTX 수하물 보관대를 23곳에서 28곳으로 확충했다. 청결한 열차 환경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과 KTX 25대 외부 도장의 철분을 제거하는 세척·광택 작업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KTX-청룡,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사단법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상으로, 전문가와 소비자가 제품의 친환경성을 평가해 선정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경부선 KTX-청룡이 서비스 부문에서 상을 받으며 1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KTX-청룡은 소비자에게 인기 많은 상위 7개 제품에 수여하는 인기상도 수상했다.

현금결제 승차권 ‘계좌 이체 환불 서비스’ 시행



지난 7월 14일부터 새로운 온라인 환불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금으로 결제한 승차권을 환불받기 위해 역 창구를 방문해야만 했던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서비스다.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승차권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 신청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단, 입석·자유석 승차권, 정기승차권 등은 역 창구에서만 환불 가능하다.

임산부·다자녀 철도 할인으로 상반기 40만 명 혜택



출산 장려 제도 ‘맘편한 코레일’과 ‘다자녀 행복’ 할인으로 상반기에 4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맘편한 코레일’의 할인 대상 열차를 일반 열차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행복’의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할인율을 높인 덕분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열차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일부 좌석을 임산부·다자녀 회원 전용으로 운영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백년과 하루:
기억에서 상상으로
A CENTURY
AND A DAY:
MEMORY, MEET,
MOMENT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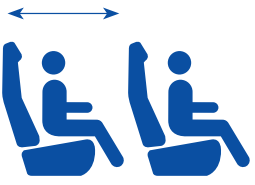
2025. 9. 30. —
11.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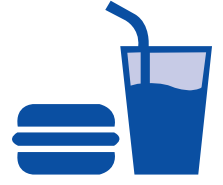
문화역서울284
Culture Station
Seoul 284

옛 서울역
준공 100주년
기념 전시
100th
Anniversary
Exhibition of
Culture Station
Seoul 284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신문 Newspaper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에 있습니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신문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 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 15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산천(원강) 7·17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 13·16호차와 KTX-산천 6·16호차,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KTX-이음 3·4호차, KTX-청룡 2·3·5호차, ITX-새마을 3·4호차,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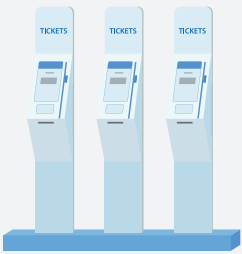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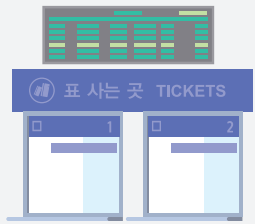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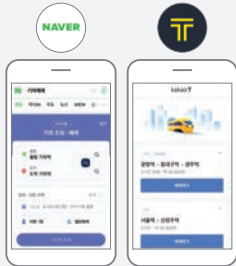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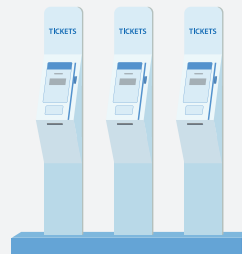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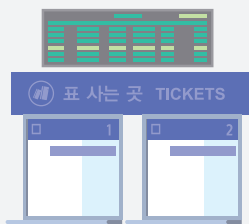
KORAIL Website(www.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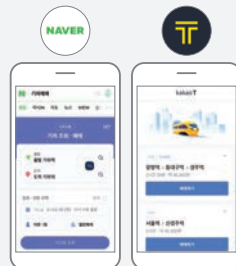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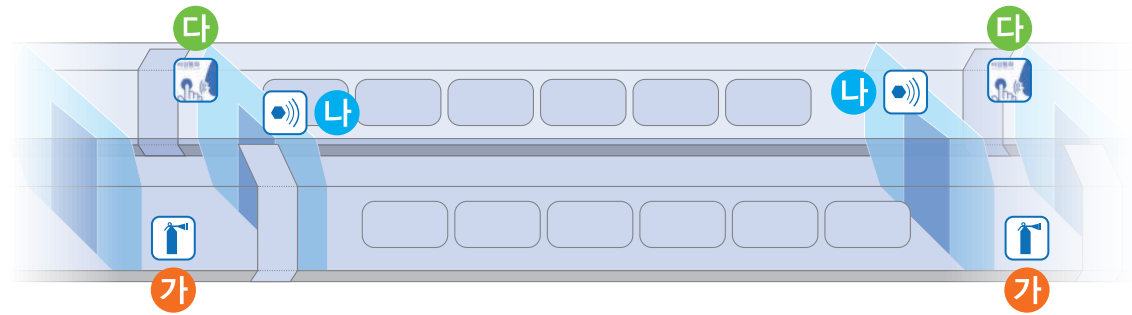
구분	1개월~ 출발 2일 전까지	출발 1일 전까지	출발 당일		출발 후		
			3시간 전까지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 시각 전까지	20분까지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60분 경과 후~ 도착 시각 전까지
월~목요일		무료		5%	15%		
금~일요일 공휴일, 명절	400원	5%	10%	20%	30%	40%	70%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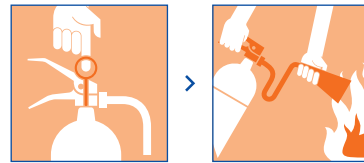
Classification	1 month-2 day prior to departure	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		After Departure			
			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ee		5%		15%		40%	70%
Fri-Sun, holidays	KRW 400	5%	10%	20%	30%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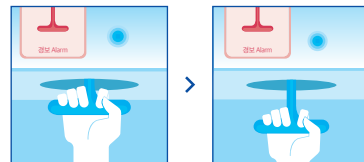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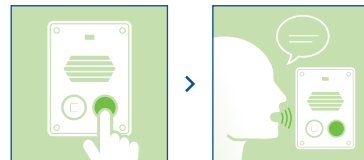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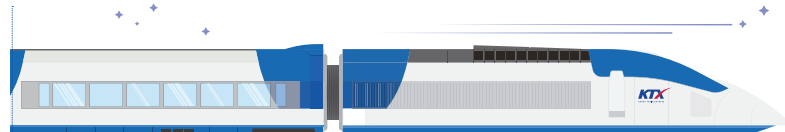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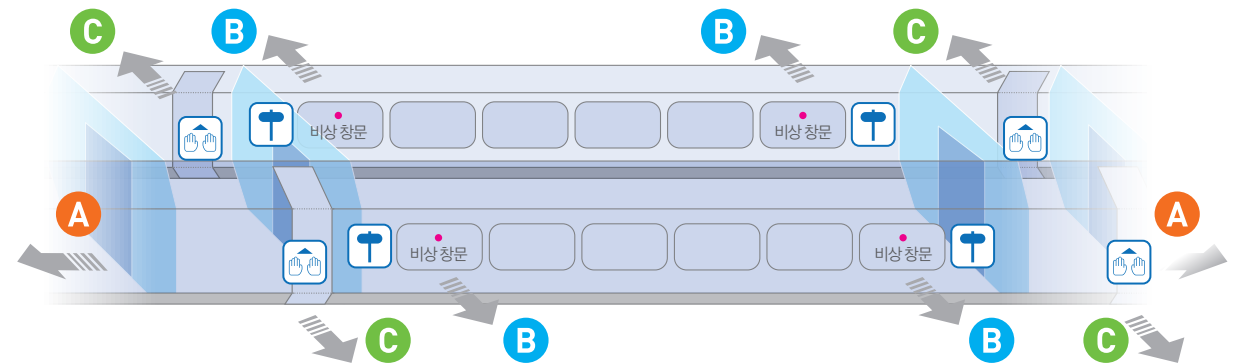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차 내 설비 사용법과
비상시 행동 요령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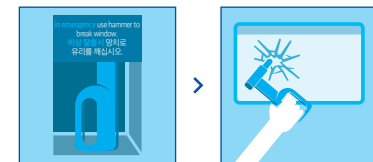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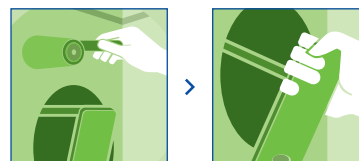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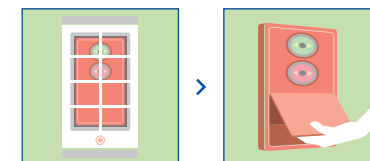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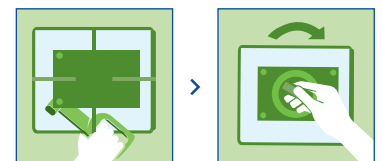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세이수미와 떠나는 음악 여행



음악 듣기



세이수미

최수미(보컬·기타), 김병규(기타), 김재영(베이스), 임성완(드럼)으로 구성된 부산 출신 록 밴드. 2012년에 결성해 2년 뒤 1집 <We've Sobered Up>을 발표하고, 2017년 영국 런던의 레이블 댄나블리와 계약을 맺으며 세계시장에 음악을 알리기 시작했다. 인디 록, 서프 록, 슈게이징, 로큰롤 등 록을 기반으로 하는 폭넓은 장르에 세이수미의 색을 입혀 간다. 대표곡으로 'Old Town' 'Around You' 등이 있다.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부산국제영화제로 지역 일대가 뜨거워지는 9월, 부산 출신 록 밴드 세이수미가 이달에 어울리는 노래를 소개한다.

바다 내음 물씬 풍기는 플레이리스트



▶ 세이수미

Vacation(feat. Kim Hanjoo) 세이수미

제목처럼 휴가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살면서 종종 조금한 마음이 들 때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말해요. 그곳하고 무심한 듯한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면 초조한 마음이 사라지죠.



▶ 세이수미

월드투어 보수동쿨러, 해서웨이

이 노래를 들으면 복직복직 부산전포동과 서로를 향해 미소 짓는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라요. 다정한 친구와 함께 여행길에 오른다면, 기차가 어느 곳으로 가든 행복할 거예요.



▶ 최수미

You Can Have It All 요 라 탕고

드럼, 메인 코러스, 오케스트라 스트링 등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가치를 연상시켜요. 막연한 기대와 설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든 것에 어울려요. 기차 안에서 듣기에 완벽한 곡이죠.



▶ 김병규

Zoo Eyes 알더스 하딩

기차를 타고 갈 때 소음과 진동을 차단하려고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고요한 음악이 주는 단절감과 평온함이 좋아요. 긴장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 김재영

Take the "A" Train 클리포드 브라운, 맥스 로치

이 곡에 한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차 출발 시각에 맞춰 재생하면 동네 친구들이 "빨리와서 놀자!" 하고 손짓하는 것 같아요.



▶ 임성완

Chasing Cars 스노우 패트룰

누구에게나 기차에 얽힌 추억이 있듯, 음악을 순수하게 즐기던 시절에 들던 노래가 불러일으키는 향수가 있습니다. 잔잔히 진행되다 후반부에 모든 악기 소리가 터져 나올 때 큰 감동을 줘요.



